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2017. 3.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입 학 처]

목 차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 1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3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규정 ····· 4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조직 구성 ····· 5
3. 2017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6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7

1. 출제전 ····· 8
2. 출제과정 ····· 10
3. 출제후 ····· 11
4. 금년도 개선사항 요약 ····· 15

Ⅳ. 문항 분석 결과 요약 ····· 16

1. 문항분석결과 요약표 ····· 17
2. 문항별 분석결과 ····· 18

Ⅴ.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26

1. 평가결과의 활용과정과 절차 ····· 27
2. 평가결과의 활용실적 ····· 27
3.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평가의견 ····· 30
4. 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의 반영 계획 ····· 34

Ⅵ. 부록 ····· 35

1. Ⅱ-1.의 규정 ····· 36
2. **논술고사의 문항 제출 양식 :『문항카드』** ····· 38
3. 기타고사(재외국민 특별전형) 출제문항 ····· 107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201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숙명여자대학교는 정부의 대학입학정책에 따라 우리대학의 신입학 전형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의 신입생 선발 관련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의 적절함에 대한 사회적 공인을 확보하고, 신입생 선발 전형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문항 총괄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 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고사	논술우수자	인문계	-	(1교시)공통	1		○								
			-	(1교시)계열	2	○	○	○							
			-	(2교시)공통	1		○	○							
			-	(2교시)계열	2		○	○							
			-	(3교시)공통	1	○	○	○							
			-	(3교시)계열	2	○									
		자연계	-	공통문항	1	○	○	○							
			-	계열문항	2-1				○						
					2-2(a)				○						
					2-2(b)				○						
기타 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 계열	-	국어과	1~40	○									
			-	수학과	1~20				○						
			-	영어과	1~33									○ (영어)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Ⅱ.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자체 점검 결과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O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O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O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O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O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O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대학은 관련 내용을 규정화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5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 및 제5조의2

■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법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 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14.6.26.)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조신설 2015.2.6.)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직구성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입학처장을 위촉함
- 내부위원은 논술출제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교수 6인, 외부위원은 현직교사 3인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입학처	입학처장	차OO	내부위원
위원	기초교양학부	교수	이OO	
위원	컴퓨터과학부	교수	유OO	
위원	교육학부	교수	송OO	
위원	한국어문학부	교수	이OO	
위원	수학과	교수	신OO	
위원	한영고등학교	교사	박OO	현직고교교사 (일반고)
위원	문영여자고등학교	교사	이OO	
위원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사	홍OO	
간사	입학처	입학사정관	강OO	-

□ 외부위원 구성 현황

외부위원 직위	참여 인원	소위원회 구성 비율 (외부위원 / 전체 위원)	일반고 교사 참여 비율 (일반고 교사 / 전체 고교 교사)
현직 고교 교사	3명	33.3%	100%

3. 2017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내용	일자		담당
입학처 자체평가 자료 작성 및 평가	'16.9～'16.12		입학팀
입학처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 심의 및 평가	'17.1～'17.2	1차 회의: 1월 16일(월)	선행학습영향평가 소위원회
		2차 회의: 2월 8일(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확정 및 처리	'17.3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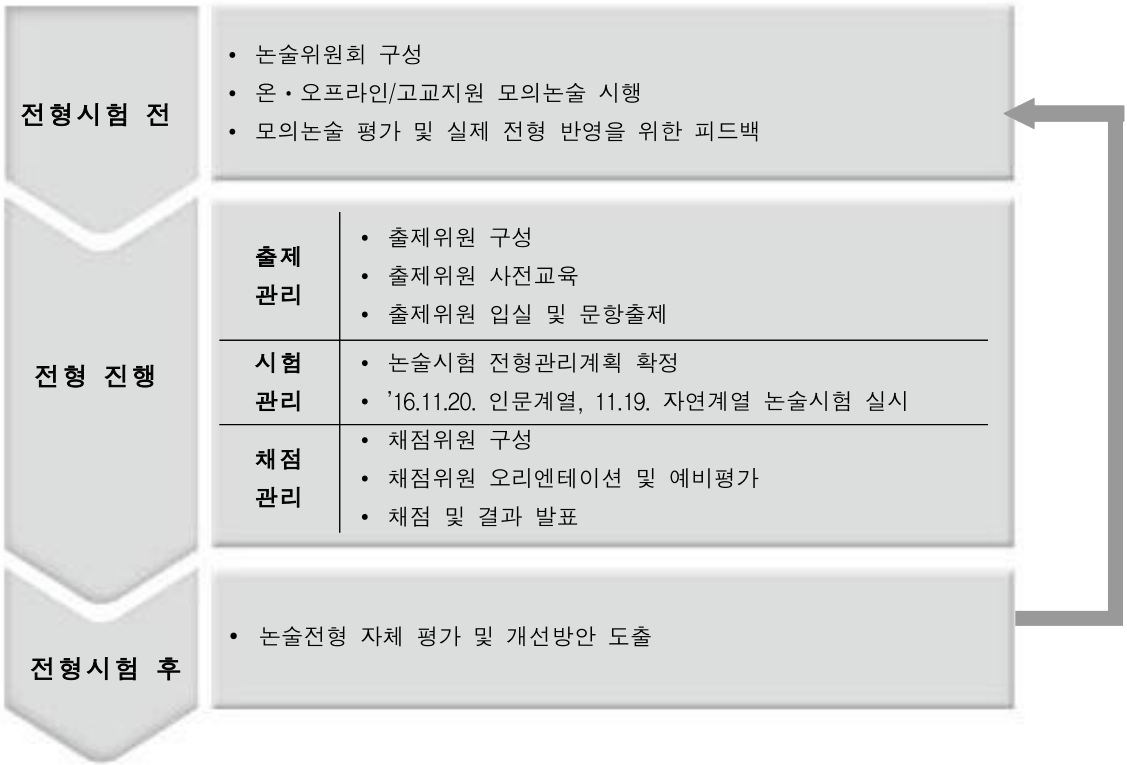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활동사항

일자	내용	관련 공문
1.16.(월)	**(1차)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개최**	·입학팀-3166(2017.01.04.) ·입학팀-3283(2017.01.17.) - 회의록 및 회의자료 첨부
	· 장소/시간 : 숙명여대 입학처 회의실/15:00 · 참석 : 위원장(입학처장)을 포함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및 간사 · 주요 안건 -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당위성 설명 - 2017학년도 '논술고사, 재외국민 필답고사' 등 대학별고사 출제문항 검토와 위원별 업무분장 논의 - 본교 내부위원과 외부 현직 고교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분장 확정	
1.17.(화)~1.23.(월)	(위원별) 업무 분장에 따른 출제문항 검토 및 결과보고서 제출	
1.24.(화)～2.7.(화)	결과보고서 내용점검 및 2차 회의 자료 (자체평가 보고서 내용) 작성	
2.8.(수)	**(2차)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개최**	·입학팀-3435(2017.02.03.) ·입학팀-3473(2017.02.09.) - 회의록 및 회의자료 첨부
	· 장소/시간 : 숙명여대 입학처 회의실/11:00 · 참석 : 위원장(입학처장)을 포함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및 간사 · 주요 안건 - 2017학년도 '논술고사, 재외국민 필답고사' 등 출제문항의 위원별 검토결과 내용 공유 - 위원별 기타 의견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논의 - '2017학년도 숙명여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안)' 내용 검토	
2.9.(목)～2.17(금)	(위원별) 보고서 내용 추가 검토 및 차년도 대학입학전형 반영사항 의견 수렴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우리대학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의 운영은 아래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었으며, 논술고사가 전형 이전, 전형 과정, 전형 이후 모든 과정에 걸쳐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였다.



1. 출제전

□ 고교 교육과정 분석 및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교육

- 우리대학은 대학입학전형 고사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각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연계되고 그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
-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문항 출제 전,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사전교육 및 팀별 자체검토를 실시하여 논술우수자전형 문항연구를 통하여 전년 수준의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팀별 자체 검토 및 논의 기회는 확대함

구분	세부 내용
고교 교육과정 분석 및 사전교육 준비	•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의 교과목별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 기출문제 및 교과서 확인
고교 교육과정 사전교육	【2016.10.20. 논술출제위원 회의 개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안내 •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입학담당자 연수(2016.09.22.)' 내용 교육 •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수학과 적용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사전교육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도덕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사회과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8]「수학과 교육과정」 • 출제문제에 대한 출제의도 및 관련근거 등 공교육정상화법 준수 여부 사전 확인에 대한 당부 안내
고교 교육과정 자체 검토 및 출제 논의	【2016.10.21.~2016.11.11.】 • 논술출제위원 팀별로 고교 교육과정 과목별 내용과 성취기준 자체검토 실시 • 교육과정 내용 및 성취기준, 적용 교과서 내용 검토, 필요도서 구매, 기출문제 검토

[참고] 논술출제자 사전교육 및 자체검토 내용

구분	과목	세부 내용
인문계열	국어/사회/도덕	· 국어, 사회, 도덕 교과 교육과정 및 내용정리 · 숙명여대 논술시험에 대한 제언
자연계열	수학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 · 수학과 교육과정 및 선택교과목의 내용 · 숙명여대 논술시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의 교육과정 준수여부 확인

□ 모의논술 시행

- 전형 전, 모의논술시험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본 논술 출제 시 반영하였다.
-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논술 출제방향을 안내하고 개인별 채점 결과 및 우수답안을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입시부담 경감과 사교육 유발 억제에 기여하고, 2017학년도 논술고사의 방향과 난이도 측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참고] 모의논술 세부 운영 내용

구분	온·오프라인 모의논술	고교지원 모의논술
일시 및 장소	• 오프라인 모의논술 : 2016. 6. 12(일), 우리대학 지정 고사장 • 온라인 모의논술 : 2016. 6. 12(일) ~ 6. 20(월), 입학처 홈페이지	• 2016. 6. 24(금) ~ 고등학교 개별 실시
대상자	• 2017학년도 우리대학 논술우수자전형에 관심 있는 수험생	• 2017학년도 우리대학 논술우수자전형에 관심 있는 수험생을 지도하는 고등학교
신청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모의논술 신청 페이지 가입을 통해 학생 개인 선착순 접수 - 오프라인 : 2016. 5. 23(월) 10:0 ~ 5. 30(월) 17:00, 선착순 800명 - 온라인 : 2016. 6. 12.(일) 13:30 ~ 6. 20.(월) 10:00, 기간 내 신청 후 응시, 선착순 600명	• 2016. 5. 17(화) ~ 6. 10(금), 입학처 이메일을 통해 고등학교별로 모의논술 시험에 필요한 문제지 및 답안지 수량 신청

<table>
<tr>
<td>세부
프로그램</td>
<td>• 오프라인 모의노술 (2016. 6. 12)
- 13:30~15:30 : 오프라인 모의논술시험 실시
- 16:00~17:30 : 2017학년도 전형 안내, 모의논술 문항해설 및 특강 실시
<table>
<tr><th colspan="2">문항해설 및 특강자</th></tr>
<tr><td>공통문항</td><td>홍○○ 교수</td></tr>
<tr><td>인문계열문항</td><td>박○○ 교수</td></tr>
<tr><td>자연계열문항</td><td>김○○ 교수</td></tr>
</table>
• 온라인 모의논술
- 2016. 6. 12(일) 13:30 ~ 6. 20(월) 10:00 : 시험 실시</td>
<td>• 해당학교로 문제지 및 답안지 발송, 해설서 제공
•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의논술 실시 및 채점</td>
</tr>
<tr>
<td>채점결과
제공</td>
<td>• 채점결과 2016. 6. 3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제공
• 문항, 해설, 총평 및 우수답안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개</td>
<td>• 학교별로 일정수량의 채점 요청을 받아 우리대학에서 채점 후 2016. 8. 12 담당교사 메일로 결과 제공
• 문항, 해설, 총평 및 우수답안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개</td>
</tr>
</table>

2. 출제과정

□ 전문가 확보 및 참여

-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 과정에는 전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반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계열별 각 2명씩 총 4명으로 현직교사가 참여하였다.
- 사교육 확대를 방지하고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검토하기 위해 논술 문제의 출제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그 출제과정에 교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현직 교사의 입실 문항 출제 참여기간을 전년대비 2일 연장하여 문항출제 초기단계부터 문항의 검토, 개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위원의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하였다.
- 출제 과정 중 출제위원과 현직 교사 검토위원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 및 수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일자	세부 내용
2016.11.12.~2016.11.18.	논술 출제 기간 중 고교 교사가 입실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여 문항 검토 실시 (4명) ※ 2015년부터 고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 출제 및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현직교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입실에 참여함

- 고교 교원 참여 비율 : 논술출제위원 및 출제검토위원 19명 중 고교 교원은 총 4명 참여하였다.

직위	참여 인원	고교 교원 구성 비율[1]	일반고 교원 참여 비율[2]
현직 고교교사	4명	21%	75% (일반고 교원 : 3명)

1) 고교 교원 구성 비율 : 고교 교원 / 전체 위원

2) 일반고 교원 참여 비율 : 일반고 교원 / 전체 고교 교원

3. 출제 후

□ 출제 이후 출제·검토위원에게 출제문항 및 평가기준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확인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 위원 전원이 출제 문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검증하였으며, 출제 과정이 대학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참고] 고교교사 검토위원 결과보고서 제출 내용

구분	내용
위원1	• 숙명여대의 2017학년도 논술고사는 제시문들을 일정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통합적으로 내용을 연결하고 구상하는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모두 우리의 삶과 사회의 문제들을 단순한 개인적 소견 차원에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철학적, 학문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다. • 제시문의 수준이나 논리적 연관성, 제시문 발췌의 범위 등 모든 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성하였다. 또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고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제시문들로 구성하여 통섭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통합논술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 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해결 방안의 논리성과 비판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들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별하기에 적합한 기준들이다. 형식과 내용, 분량, 표현 능력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른 능력을 평가하되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논거의 타당성과 내용의 완결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논제들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고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논제와 제시문들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실린 비문학 글들이나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사회교과 여러 과목들의 교사용 지도서에 실린 참고 자료들이나 참고 문헌 등에서 문항마다 하나 정도씩 포함시킨다면 외형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명확히 고려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2	• 모든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깊이 공부하여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의도에 부합함. 아울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모든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교과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개별 제시문들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임. 이러한 출제경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논제의 경우에는 실제 논술우수자전형의 경향과 모의논술을 통해 매년 제시된 유형을 따름으로써 학생들에게 익숙함. 아울러 제시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지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우수한 독해력과 분석력을 갖춘 학생들을 변별하기에도 적합한 논제들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위원3	• 제시문의 주제가 수험생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되었으며, 모의논술에서 출제되었던 유형이 유지가 되어 공교육 과정 안에서 준비가 가능토록 배려함 •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결 가능한 문제로 출제되어 충분한 변별력도 갖추었다고 판단됨. • 앞으로도 본 출제 방향을 유지하여 논술 시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었으면 함. 이는 수험생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매우 적합한 논술전형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임.

위원4	• 고등학교 공통수학 수준의 수리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교과서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모의논술과 비슷하게 제시문을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의 문제를 제시문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추론하여 풀어내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돋보인다. 고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으나 단순 지식의 암기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되었다. • 문제가 명쾌하고 교육과정을 전혀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난이도를 갖추고 있어 대학별 고사로서의 좋은 모범이 되는 문제들로 구성되었으며, 난이도와 문항 제작을 위해 얼마나 고교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깊은 고민을 하며 출제가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 여겨진다.

□ 2017학년도 전형 후, 논술시험 자료 공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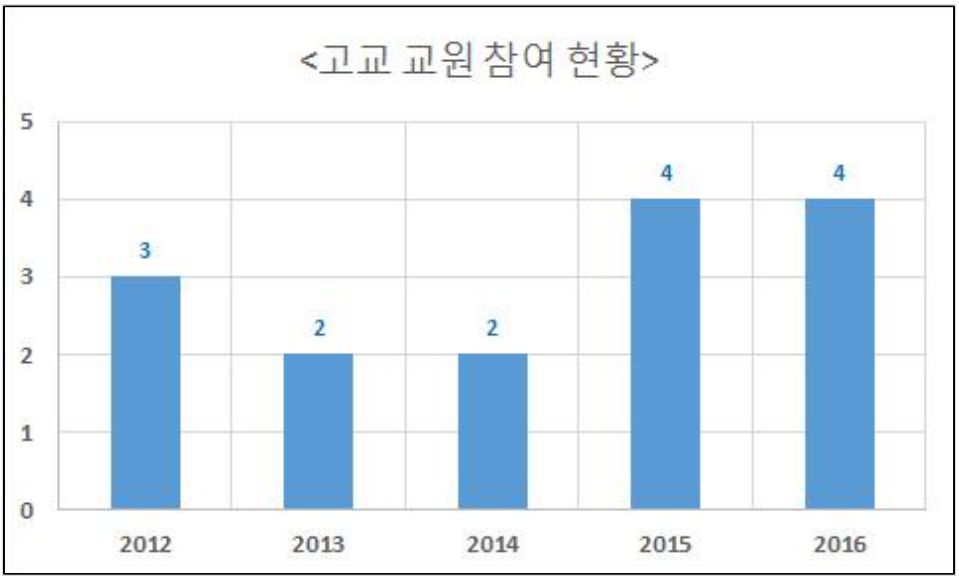
일자	세부 내용
2017.03.23(목)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문항 해설(제시문 출처,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답안 구성요소, 모범답안 예시 등 포함)을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ookmyung.ac.kr)에 탑재하여 논술준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우리대학은 논술고사 출제 과정에서 고교 교원을 꾸준히 출제·검토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그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 논술문항 출제 교사 참여 현황(2012~2016년)

년도	고교명	담당교과	이름	인원
2012	OO고등학교	수학	지OO	3명
	OO고등학교	국어	고OO	
	OO고등학교	사회(한국사)	권OO	
2013	OO고등학교	수학	조OO	2명
	OO고등학교	국어	송OO	
2014	OO고등학교	국어	정OO	2명
	OO고등학교	수학	홍OO	
2015	OO고등학교	국어	김OO	4명
	OO고등학교	국어	정OO	
	OO고등학교	수학	지OO	
	OO고등학교	수학	홍OO	
2016	**OO고등학교**	**국어**	**김OO**	**4명**
	OO고등학교	**사회**	**이OO**	
	OO고등학교	**수학**	**리OO**	
	OO고등학교	**수학**	**이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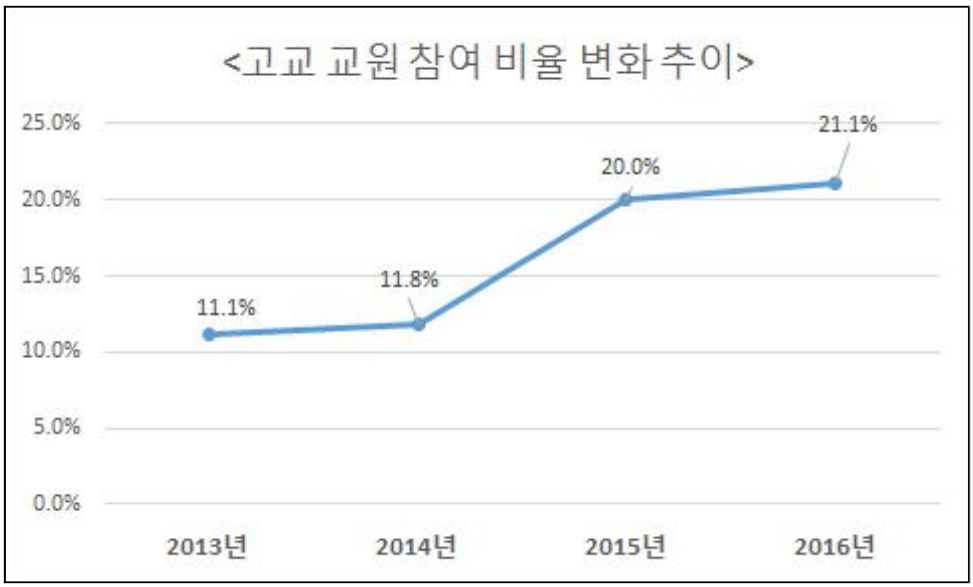
[참고] 논술문항 출제 고교 교원 참여 현황 그래프



• 2015년부터 계열별 각 2명씩 총 4명으로 현직교사 참여를 확대하였고, 이번 2016년에도 전년도 대비 확대된 인원을 유지함.

[참고] 논술문항 출제 고교 교원 참여 비율 변화 추이 그래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위원 수(명)	18	17	20	19
고교 교원 수(명)	2	2	4	4
고교 교원 참여 비율	**11.1%**	**11.8%**	**20.0%**	**21.1%**



•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논술문항 출제에 참여한 고교 교원 참여 비율 변화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논술고사 외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우리대학은 논술고사 외에 면접 질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시험 출제 문항에 대해서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면접

□ 우리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숙명미래리더/숙명과학리더전형 및 고른기회입학전형)과 숙명글로벌인재전형 등의 심사위원인 위촉사정관과 전임사정관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교내 교육·훈련 연구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였으며,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일체 배제하기 위해 교과 관련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

- 해당 수험생의 면접 전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를 검토하여 질문 문항 도출
-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배제
- 전공적합성, 종합적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과 관련한 수험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 우리대학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필답시험의 출제지침을 수립하고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검토하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학년도 출제위원은 아래와 같이 교내 교수진으로 위촉하였음.

과목	소속	성명
국어/외국어에세이	한국어문학부	이OO
	한국어문학부	이OO
영어	영어영문학부	전OO
	영어영문학부	육OO
수학	수학과	신OO
	통계학과	김OO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시험의 출제 문항 검토위원은 현직 고교 교원이 적극 참여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 국어 및 수학 과목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중 현직 고교 교사 참여
- 영어 및 외국어에세이 : 별도 현직 고교 교사를 위촉하여 진행

□ 홈페이지 공지 현황

일자	세부 내용
2016.03.11(금)	201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출문제(국어/수학/영어/외국어에세이)를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ookmyung.ac.kr)에 탑재
2016.05.04(수)	기존 시험의 출제범위, 문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한 문제 출제를 확정하여 201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시험 출제 방향 및 범위를 홈페이지(http://admission.sookmyung.ac.kr)에 탑재

4. 금년도 개선사항 요약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에 대한 2017학년도 개선사항 요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별 고사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평가 결과를 출제위원에게 주지
- 출제위원에게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 출제 지침 전달
-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문항 카드를 작성토록 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사전 검증
- 출제자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교육하고, 교과서 검토를 출제 팀별로 실시
- 출제 중 출제장에 고교 교과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토록 함
- 고교 교사를 검토위원으로 배치하여 출제 문항을 검토하고, 출제위원과 합동회의를 통해 의견 개진
- 출제검토위원은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결과를 행정적으로 확인함
- 모의논술을 온·오프라인 방법으로 시행하여 수험생의 사전 논술 준비에 도움을 줌
- 논술가이드북 제작 배포, 기출문제 및 문제해설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제해설 동영상 탑재
-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항의 간소화
  - 금년도 논술시험부터 자연계열 계열문항의 서술형 문항(2-2번)을 폐지하여 고교교육과정 범위의 문항을 부족하지 않은 시간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도록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킴

2016학년도

공통문항(1번 문제)	계열문항(2번 문제)
1개 문항 (1,000±100자)	2-1번 : 수리 문제 (노트형식)
	2-2번 : 서술형 문제 (700±70자)

⇨

2017학년도

공통문항(1번 문제)	계열문항(2번 문제)
1개 문항 (1,000±100자)	수리 문제 (노트형식)

<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 출제 체제 변경>

- 여러 과목을 균형 있게 반영한 문항 개발
  - 한 교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출제가 되도록 하였고, 그래프와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 출제를 고려함

Ⅳ. 문항 분석 결과 요약

Ⅳ. 문항 분석 결과 요약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논술고사	논술우수자	인문계	(1교시)공통문항	1	• 사회과 (사회·문화)	○	**문항카드 ①**
			(1교시)계열문항	2	• 도덕과 (생활과 윤리) • 사회과 (사회, 사회·문화) • 국어과 (화법과 작문, 문학, 고전)	○	**문항카드 ②**
			(2교시)공통문항	1	• 도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 (경제, 사회)	○	**문항카드 ③**
			(2교시)계열문항	2	• 도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 (사회)	○	**문항카드 ④**
			(3교시)공통문항	1	• 사회과 (사회, 사회·문화) • 도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국어과 (독서와 문법)	○	**문항카드 ⑤**
			(3교시)계열문항	2	• 국어과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	**문항카드 ⑥**
		자연계	공통문항	1	• 사회과 (사회, 경제, 사회·문화) • 도덕과 (생활과 윤리) • 국어과 (독서와 문법)	○	**문항카드 ⑦**
			계열문항	2-1	• 수학과 (확률과 통계, 수학Ⅱ)	○	**문항카드 ⑧**
				2-2(a)	• 수학과 (수학Ⅰ, 미적분Ⅰ, 미적분Ⅱ)		
				2-2(b)	• 수학과 (기하와 벡터, 미적분Ⅰ, 미적분Ⅱ)		
기타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 모집계열 특성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 외국어에세이 과목을 '선별적으로 부과'하였음.			○	'Ⅳ.2-다' 본문참조

*: 문항 붙임 번호는 [붙임]으로 제시한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번호 기재, 세부 문항 분석 결과는 "Ⅵ.부록-2"에 첨부함

2. 문항별 분석 결과

가. 논술고사

□ <u>논술고사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①~⑧)』은 "Ⅵ.부록-2"로 첨부함.</u>

- '문항카드'는 각 문항별 일반정보, 문항 및 자료, 출제 의도, 출제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 논술고사 개요

○ 전형명 : 논술우수자전형

○ 모집인원 : 331명 (인문계 230명, 자연계 101명)

○ 모집시기 : 수시

○ 모집단위 : 인문계(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제외) 및 자연계(응용물리전공 제외) 모집단위

○ 지원자격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합격자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논술60 + 학생부(교과)40

○ 수능최저학력기준

- 인문계열 : 4개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의 합 4.5이내
- 자연계열 : 4개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의 합 5.5이내

○ 전형일정(논술시험일)

- 인문계열, 의류학과 : '16.11.20(일)

차수	시험시간
1회차	09:00~11:00
2회차	13:00~15:00
3회차	16:30~18:30

- 자연계열(의류학과 제외) : '16.11.19(토) 15:00~17:00

○ 논술시험

- 유형 : 통합논술형
- 출제범위 : 고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범위에서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
- 문항수 : 공통문항 1문항, 계열문항(인문계/자연계) 1문항(총 2문항)
  - 인문계, 의류학과 : 공통문항 1문항, 인문계열문항 1문항
  - 자연계(의류학과 제외) : 공통문항 1문항, 자연계열문항 1문항
- 시험시간 : 120분
- 답안분량
  - 공통문항 : 1,000자±100자 (원고지형식)
  - 인문계열문항 : 1,000자±100자 (원고지형식)
  - 자연계열문항 : 노트형식
- 성적산출 : 평가위원 2인이 각각 9등급(최고600점~최저450점)으로 종합평가함

□ 논술고사 출제의 적절성

• 논술고사의 경우는 인문·자연계열별로 진행되고 각 계열별로 공통문항과 계열문항이 한 세트로 구성되며,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1~3교시까지 각 교시별 세트문항, 자연계열은 1교시 한 세트 문항으로 진행된다.

• 논술고사 출제문항 및 고교 교육과정 분석내용
- 숙명여자대학교 2017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의 문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관련 교과 학습활동의 수준과 목표성취 정도를 고려하여 출제되었다.
- 모든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깊이 공부하여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의도에 부합하며, 본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
- 인문계 문항은 고등학교 국어, 사회 및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자연계 문항 또한 고등학교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제시문들의 각각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러한 출제경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논술고사 방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어휘력과 이해력과 적용력을 측정하고 나아가 고등정신기능인 비판능력과 종합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나. 면접

□ 면접 개요

○ 전형명 (※괄호 안의 숫자는 모집인원) - [수시] 숙명미래리더(227), 숙명과학리더(164), 국가보훈대상자(6), 기회균형선발(9), 사회기여및배려자(10), 농어촌학생(68), 특성화고교출신자(34), 특성화고졸재직자(30), 특수교육대상자(15), 숙명글로벌인재(57) - [정시] 일반학생전형: 체육교육과(28) ○ 전형일정(면접시행일) - 숙명미래리더전형 : '16.11.5(토) - 숙명과학리더, 특수교육대상자, 숙명글로벌인재전형 : '16.11.6(일) -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사회기여및배려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 '16.11.26(토) - [정시] 일반학생전형(체육교육과에 한함) : '17.1.12(목) ○ 면접유형 - [수시] 개별면접 (면접시간 : 10~15분 내외, 평가위원 2인) - [정시] 개별면접 (면접시간 : 5분 내외, 평가위원 2인)

□ 면접 평가 방법
•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종합적사고력',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 정시 일반전형 면접(체육교육과에 한함)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종합적사고력',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교직적성·인성 포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반면접으로 이루어진다.
• 질문 문항은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 제출서류 기반 기재내용 확인 면접으로 진행된다. 일률적으로 제시되는 공통질문 및 제시문 없으며, 수험생별 개별질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선행학습 유발요인 없음

□ 면접 평가 항목 (학생부종합위주 전형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자료 및 주요 활용 영역
전공적합성	• 전공 선택 동기, 관심, 적성, 진로탐색과정, 발전 가능성 등 •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학업에 대한 노력 정도	• 학교생활기록부 : 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및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진로지도사항/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상황 • 자기소개서 : 1번, 2번, 4번 문항
종합적 사고력	•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 • 다양한 시각 및 관점	• 학교생활기록부 :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및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독서활동상황 • 자기소개서 : 2번, 4번 문항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	• 면접 태도, 의사소통능력 • 협력, 배려, 리더십, 도덕적 가치관	• 학교생활기록부 : 창의적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봉사활동), 행동특성및종합의견 • 자기소개서 : 3번, 4번 문항

다. 기타고사

□ 기타고사 개요

○ 모집시기 : 수시
○ 전형명 : 재외국민·새터민·외국의 전교육과정이수자 특별전형
○ 전형일정(필답시험) : '16.07.12(화)
○ 모집인원 : 재외국민군 최대선발가능인원 : 총 45명(인문계 35명, 자연계 7명, 예체능계 3명)
※새터민, 외국의 전교육과정이수자 : 정원제한 없음.

- 기타 고사는 '재외국민·새터민·외국의전교육과정이수자 특별전형'의 필답고사로 국한하며, '국어, 외국어에세이, 영어, 수학'의 4개 영역으로 나뉜다.
- 본교 기타고사의 출제범위는 일반고에서 편성된 과목을 출제범위로 하였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출제 개요를 공지하였다.

□ 기타 고사 출제의 적절성

1. 국어

- **국어과목 출제문항은 "Ⅵ.부록. 3-1"으로 첨부함.**
- 국어과목 필답고사의 출제범위는 국어Ⅰ,Ⅱ의 내용과 지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고교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기초학업역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출제하였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국어영역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여부 분석>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국어Ⅰ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2	국어Ⅰ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3	국어Ⅰ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4	국어Ⅰ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5	국어 I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6	국어 I	문법	(11) 음운과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7	국어 I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8	국어 I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9	국어 I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10	국어 I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11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2	국어 I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13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4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5	국어 I	문법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16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7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8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19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20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21	국어 II	독서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22	국어 II	독서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23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24	국어 II	독서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25	국어 II	독서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26	국어 II	독서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27	국어 II	독서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28	국어 II	독서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29	국어 II	독서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30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31	국어 I	문학	(15)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32	국어 I	문학	(15)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33	국어 I	문학	(15)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34	국어 II	문학	(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35	국어 II	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36	국어 II	문학	(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37	국어 II	문학	(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38	국어 II	문학	(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39	국어 II	문학	(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40	국어 II	문학	(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수학

- **수학과목 출제문항은 "Ⅵ.부록. 3-2"으로 첨부함.**
- 수학과목 필답고사는 출제범위에 공지된 대로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I 과목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자연계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하여 평가하였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수학영역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여부 분석>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수학I	다항식	수학1112-1. 다항식의 곱셈을 할 수 있다.
2	수학I	항등식	수학1122. 나머지정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수학I	복소수	수학1211.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4	수학I	이차방정식	수학1221.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5	수학I	이차함수	수학1222.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6	수학I	원과 직선	수학1332-1.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7	수학II	집합	수학2113.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있다.
8	수학II	유리함수	수학2221. 유리함수 $y=\frac{ax+b}{cx+d}$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9	수학II	등차수열	수학2312-2. 등차수열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0	수학II	여러가지 수열의 합	수학2322.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1	수학II	로그	수학2421-2.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다.
12	수학II	상용로그	수학2422. 상용로그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3	미적분I	급수	미적1121. 급수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14	미적분I	함수의 극한	미적121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15	미적분I	함수의 극대, 극소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6	미적분I	정적분	미적1423.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17	확률과 통계	조합, 확률	확통1122. 조합의 뜻을 알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확통1213. 확률의 덧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8	확률과 통계	확률	확통1211/1212.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의 의미와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19	확률과 통계, 미적분I	확률, 급수	확통1222-2.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미적1121. 급수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20	확률과 통계	확률분포	확통1312-1.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을 구할 수 있다. 확통1312-2. 이산확률변수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수학」(교육과학기술부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2322-01)

3. 영어

- **영어과목 출제문항은 "Ⅵ.부록. 3-3"으로 첨부함.**
- 2017학년도 재외국민/새터민 특별전형 영어 문제는 단편적 지식의 암기로 풀 수 있는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고, 이해력, 분석력 등 폭넓은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위주로 출제하였다.(어휘, 문법과 구조, 독해력, 생활영어, 영어작문)
-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영어적인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말하기 영역의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되어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영어영역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여부 분석>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4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5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6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7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단서나 주어진 문맥을 통하여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8	영어 Ⅰ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9	영어 Ⅰ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0	영어 Ⅰ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1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단서나 주어진 문맥을 통하여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12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단서나 주어진 문맥을 통하여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13	실용영어 Ⅰ	말하기	실생활 중심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14	실용영어 Ⅰ	말하기	실생활 중심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15	영어 Ⅰ	읽기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순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단서를 활용하여 내용의 논리적 순서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6	영어 I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7	영어 I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8	영어 I	읽기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9	영어 I	읽기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통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20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단서나 주어진 문맥을 통하여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21	영어 I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2	영어 I	읽기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3	영어 I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24	영어 I 영어 II	읽기	다양한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5	영어 I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6	영어 I 영어 II	읽기	다양한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7	영어 I 영어 II	읽기	다양한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8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단서나 주어진 문맥을 통하여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29	영어 I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0	영어 I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1	영어 I	읽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어구나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2	영어독해와 작문	어휘·어법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단서나 주어진 문맥을 통하여 단어나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33	영어 I 영어 II	읽기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4. 외국어에세이

- **외국어에세이과목 출제문항은 "Ⅵ.부록. 3-4"으로 첨부함.**
- 에세이 문항은 국문 지문을 해당언어로 작문하고 요약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았고, 고등학교 성취기준에 충실한 문제였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 1번 문항의 경우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한국어와 외국어의 이해와 활용을 알아 볼 수 있는 문제로, 고교 교육 과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2번과 3번 문항의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외국어에세이는 필답고사 과목의 간소화 노력과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

<외국어 에세이영역 출제의도>

문항	구분	문항별 출제 의도
1	작문	영어나 외국어 과목에서의 작문 능력을 묻기 위한 출제.
2	이해와 요약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비상교육의 『국어 2』 '매체의 이해' 단원)에 수록된 "인터넷 글쓰기, 어떻게 해야 할까"에서 발췌한 지문을 통하여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핵심 내용 파악과 요약 능력을 묻기 위한 출제.
3	생각쓰기	제시한 지문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한 출제.

<외국어 에세이영역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여부 분석>

문항	과목명	영역	관련 성취 기준
1	화법과 작문	작문	[정보전달] (5)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 원리를 이해하고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게 내용을 구성한다. [화법과 작문의 본질] (1)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한다.
2	영어Ⅰ	쓰기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요약하는 글을 쓴다.
3	영어Ⅰ	쓰기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쓴다.

<예시 답안>

문항	예시 답안
2	인터넷 발달로 글쓰기 환경의 변화가 생겼으며 인터넷 글쓰기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다.
3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나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 모두 정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쓰도록 하며,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인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인터넷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법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에 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나.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에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이 전하는 정보가 타당하고 믿을 만하며 공정한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인용할 때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악의적인 댓글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Ⅴ.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Ⅴ.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평가결과의 활용 과정과 절차

□ 우리대학은 현행 관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 실시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차년도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참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반영 절차

절차	내용	시행 주체
(1) 대학 입학 전형 실시	· 입학 전형 실시	입학처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매년 2월 말 평가완료)	선행학습 영향평가 소위원회
(3)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공개	· 소위원회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와 전형 개선방안 보고서를 심의하고 공개(매년 3월 말)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4)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	· 전형 개선 방안 보고서에 근거하여 차년도 전형계획수립에 반영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2. 평가결과 활용실적

1) 2016년 대입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등 연구 추진 실적

구분	연구과제명	주요 추진 내용
전형개발 관련	사교육영향 평가 분석 및 대입전형 개선방안 연구	· 연구진 : 숙명여자대학교 박○○ 교수 · 연구목적 : 201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사교육비 영향 정도를 평가하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개선안 도출 · 연구내용 1) 대입전형과 사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2)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전형 분석 3) 고등학교 학부모 자녀의 대학입학 준비 및 사교육 실태 분석 4) 숙명여자대학교 신입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 과정 분석 5) 사교육비 지출경향 및 규모 분석 6) 2015년과 2016년 결과 비교 분석(학생) - 대학 입학 준비 과정, 사교육 지출경향 및 규모 비교 분석 · 연구 추진 방법 1) 문헌연구 2) 설문조사 - 학생설문 : 2016학년도 입학생 대상 - 학부모설문 : 본교 수시전형에 지원한 학생의 학부모 대상 3) 학생면담 : 2016학년도 입학생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4)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 · 연구 대상 : 학부모, 학생

전형운영 관련	신입생특성종단연구	· 연구진 : 숙명여자대학교 노○○ 교수 외 1명 · 연구목적 - 입학전형별 신입생들의 대학적응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학생활 분석을 통해 학생의 특성과 다양한 성취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대학 입학정책의 장기전략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이 누적되면서 취업률과 학생생활에 대한 질적연구 필요 · 연구내용 1) 학업성취도와 입학생의 출신 고교유형과 입시유형의 연관성 분석 2) 중도이탈률과 입학생의 계열, 출신 고교유형 및 입시유형의 연관성 분석 3) 학생취업과 입학생의 출신 고교유형과 입시유형의 연관성 분석 4) 취업 여부와 정규직 취업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SM-CLA 역량 차이 분석 5) 입학전형별 학생들의 SM-CLA 역량 분포 차이 분석 6) 집단면담과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한 입학사정관제 학생들의 특성 파악 · 연구 추진 방법 : (개인) 면담 조사·분석 / 통계처리를 이용한 요인 분석
평가요소 관련	고교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연구	· 연구진 : 숙명여자대학교 김○○ 교수 · 연구목적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탐색하여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현황 2)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3) 학생부종합전형과 창의적 체험활동 -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방법 및 평가방법,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방법 탐색 4)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모델 -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모델 개요, 서류/면접 평가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 연구 추진 방법 : 관련 문헌 및 연구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연구진 세미나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

2) 2011~2015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 및 반영 실적

연도	구분	연구결과	반영실적
2011	전형 운영	· 대입전형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 - 상시적인 사교육의 경우, 학생부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것과 수능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전형시기에는 진학정보 확보를 위한 컨설팅, 논술/면접 대비 특별과정, 포트폴리오 작성, 입학사정관제 대비를 위한 사교육이 운영되고 있었음.	• 논술전형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 서류검증시스템 적용을 확대 • 모의면접 등 참여 기회 확대 추진 • 입학 관련 정보의 적극성 제공: 월례설명회 및 집중상담기간 운영을 통해 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논술가이드북, 입학사정관전형 안내책자 배포 • 불필요한 자격증, 공인인증서 등의 취득보다는 학교생활 중심의 성과가 중요함을 홍보 • 면접 등 수험생 준비사항을 수험생과 교사들에게 홍보 • 상시점검을 위한 사교육 영향평가시스템 운영 방안 수립
	평가 요소	·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분석 결과 - 자격증, 수상경력,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의 비중 축소가 필요 - 학생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활용	• 교과성적, 수능성적 이외의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 • 고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 • 교외수상실적, 공인외국어 성적 등 미반영 • 학생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에듀팟에 대한

		- 사교육을 활용하지 않고서도 면접·구술시험을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입학사정관제 및 세부 전형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활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전형자료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제시
2012	전형 운영	· 대학입시에서 내신, 수능, 대입정보는 중요한 대입전형요소로 인식됨 - 이중 학교교육만으로는 준비가 어려운 수능의 경우만 사교육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과성적, 수능성적 이외의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 • 고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 • 전형유형 간소화
	평가 요소	· 입학전형별로 대입준비요소를 살펴본 결과 - 입학사정관전형을 포함한 수시 1차 합격자들은 면접과 포트폴리오를 가장 많이 준비하였고, 수시 2차, 정시 가/나군 합격자의 경우 논술 준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교외수상실적, 공인외국어 성적 등 사교육 유발자료 미반영 • 포트폴리오 제출에 있어 에듀팟의 활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대학에서 진학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013	전형 운영	· 학부모들은 자녀의 대입준비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능과 내신이 학교교육만으로 준비하기 어렵고 사교육의 효과가 컸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수능 다음으로 대입정보 수집 및 분석을 대입의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어 대학입학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음.	•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계획 시 사교육 유발요소를 배제함. • 입학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학부모, 수험생 대상 상담 및 설명회를 확대·지속할 예정이며 교사의 진학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교사 연계 워크숍 등을 활성화 할 계획임.
	평가 요소	· 신입생들이 대입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의 효과가 컸다고 인식한 항목은 수능과 논술이었음. · 신입생 중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들은 대입준비를 위해 서류전형, 학생부(내신), 구술면접, 포트폴리오 등의 순서로 전형요소를 준비함.	•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확대함 • 논술 선발 인원을 축소함.
2014	전형 운영	· 2014 대입전형의 사교육 영향평가 분석 및 대입전형 개선방안 연구	•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확대함 • 2017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 논술 선발 인원을 축소함
	평가 요소	· 입학전형별 신입생특성에 대한 연구	•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 확대
2015	전형 운영	• 입학전형별 사교육비 지출경향을 보면 사교육비 지출액은 정시 '가'군, 수시, 정시 '나'군 순이며, 정시 '가'군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의 특수성이 반영됨 • 수시와 정시전형에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수능, 학생부(내신), 논술과 같은 대입전형요소의 경우 기본으로 사교육을 활용함 • 읍면지역과 타 지역 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모집인원 확대 • 2017학년도 수능 영향력 완화 추구: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 :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인문, 자연) → 4.5 이내(인문), 5.5 이내(자연) • 사교육수혜범위가 좁은 지원자에 대한 전략적 배려 확대: 2017학년도 고른기회전형 인원 확대(172명→199명 / 15.7% 증가)
	평가 요소	• 논술은 수시전형은 물론 정시전형에 응시한 학생들까지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전형요소로, 그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학년도 논술전형 선발인원 축소(345명→331명)

3.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평가의견

□ 소위원회의 항목별 검토결과 총괄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 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위원별 검토결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논술 고사	논술우수자	인문계	-	(1교시)공통	1		○									**적합**
			-	(1교시)계열	2	○	○	○								**적합**
			-	(2교시)공통	1		○	○								**적합**
			-	(2교시)계열	2		○	○								**적합**
			-	(3교시)공통	1	○	○	○								**적합**
			-	(3교시)계열	2	○										**적합**
		자연계	-	공통문항	1	○	○	○								**적합**
			-	계열문항	2-1				○							**적합**
					2-2(a)				○							**적합**
					2-2(b)				○							**적합**
기타 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 계열	-	국어과	1~40	○										**적합**
			-	수학과	1~20				○							**적합**
			-	영어과	1~33									○ (영어)		**적합**

□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별로 평가를 진행 후,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구분		내용
위원 1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 인문계 공통문항과 인문계 계열문항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성취목표 수준과 연계된 출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항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 자연계열 공통문항의 경우, 인문계 계열문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의견	· 2018,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도 논술은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유지되는 한,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예상되며, 특히 공교육 기여사업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논문 출제 문항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원 2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문항 2-1, 제시문(가): <확률과 통계>과목의 확률(조건부 확률) 단원과 <수학II> 과목의 수열(수학적 귀납법) 단원에서 출제되었다. ·문항 2-1, 제시문(나): <수학1>과목의 도형의 방정식 단원과 <미적분II>의 삼각함수 단원에서 출제되었다. ·문항 2-2(a): <수학I>과목의 도형의 방정식(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단원과 <미적분I> 과목의 다항함수의 미분법, <미적분II>의 삼각함수, 미분법 단원에서 출제되었다. ·문항 2-2(b): <기하와 벡터> 과목의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단원과 <미적분I>과목의 다항함수의 미분법, <미적분II>과목의 삼각함수 단원에서 출제되었다. ·제시된 지문은 고등학교 수준의 수리 능력을 갖춘 학생이면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판단된다. 이에 관련 내용은 대부분의 고교 교과서에 출제 단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사료된다.
위원 3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 인문계열 2교시 계열문항은 제시문 <가>, <나>, <다>를 제시한 후, 제시문 <가>와 <나>에 드러난 문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다>의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참조하여 <가>에 나타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하는 문제였으며, 인문계열 2교시 공통문항은 제시문 <가>, <나>, <다>를 제시한 후,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왜 <다>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였다. 제시문을 요약하고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어떤 제시문의 입장에서 다른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이나 현상을 설명하거나 논술하는 방식의 논제는 숙명여대에서 모의논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익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에 나타난 어휘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제시문의 핵심어와 핵심 논점을 파악하고 요약하며, 이를 통해 다른 제시문을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의견	·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어휘력과 이해력과 적용력을 측정하고 나아가 고등정신기능인 비판능력과 종합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위원 4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 2017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3교시 공통문제와 계열문제 모두 수험생들이 주어진 글을 읽고 핵심적 내용을 파악한 후 이를 다른 글의 내용에 적용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성되었다. 제시문 모두 수험생들이 학교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시문에 사용된 어휘도 어렵지 않아서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제시문의 독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문제 모두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출제되었다고 판단한다. · 공통문제는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편견에 취약한 여론이 갖는 한계점과 외국인을 국외자이자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발생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중매체의 반응과 자치단체의 차별적인 외국인 범죄 방지 대책이 가지는 문제를 수험생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어진 제시문들은 모두 고교교육과정의 사회과, 도덕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의 관용에 대한 이해는 여러 단원에서 반복하

		여 강조하는 성취기준이므로 고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이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계열문제는 글에 나타난 비유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유가 실제의 현상, 즉 창작자와 비평가들의 소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고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과 평이한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 작품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의 어려움을 제시문에서 제시한 비유를 통해 유추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고교교육과정에서 글읽기의 과정, 특히 문학 작품의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을 학습한 수험생은 제시문에서 제시한 비유적 상황, 즉 '이명'과 '코골이'를 다른 제시문의 상황인 작품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의 어려움에 적용하고 이를 글로 옮기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위원 5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 자연계 계열문항 및 제시문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잘 출제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 [2-1 출제근거] 확률과 통계: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확률의 기본성질, 조건부 확률 / 수학2: 수열의 귀납적 정의 · [2-2(a) 출제근거] 수학1: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 미적분1: 함수의 증가 및 감소, 극대 및 극소 판정 / 미적분2: 삼각함수(사인, 코사인, 탄젠트함수)의 이해,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 [2-2(b) 출제근거] 기하와 벡터: 좌표공간에서 점의 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간벡터의 의미, 벡터의 연산(덧셈, 뺄셈, 실수배), 두 공간벡터의 내적 / 미적분1: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원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 및 감소, 극대 및 극소 판정 / 미적분2: 삼각함수(사인, 코사인, 탄젠트함수)의 이해,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위원 6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 전반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게 논술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사회 변동과 시사 현상과 연관한 제시문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문제들이 출제 되었다. · 발췌한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이 교육과정과 잘 연계되어 있으며, 어색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은 제시문 독해와 논제 파악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 통합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고전 등의 내용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수업 시간에서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싶을 만큼 완성도가 높은 문제로 구성되었다. 발췌한 논제의 관련 도서가 참신하고 사회 현상과 연결되는 내용이라 학교 관련교과 필독서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좋았다. · 문제 풀이 과정에서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논증 구성력, 의사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히 문제가 구성되었다. · 1교시 공통문항(인문계열): '사회'와 '사회문화' 과목의 사회변동 관련 내용과 상대성 이론 등과 관련하여 사회변동과 시간에 대해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됨 · 1교시 계열문항(인문계열): '생활과 윤리', '사회', '사회문화' 등 교육과정의 고령화 사회, 사회 불평등, 생명·가족 윤리 등의 내용과 연관하여 노년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됨 · 2교시 공통문항(인문계열):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과목의 GDP와 행복, 공정한 삶의 질에 대한 교과 내용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림1,2'의 그래프가 제시문과 적절하여 연관되어 공동체 의식 등 생각할 거리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됨 · 2교시 계열문항(인문계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교육과정과 연관되어 타인과 소통, 차이와 단절에 대한 주제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구성됨
	기타 의견	·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목를 위주로 출제한 것은 학교나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 출제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사탐 주제를 포함시킨다면 (예를 들어 상경계열 경제내용) 관련 사회 공부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하는 바램이 있다. · 숙명여대 논술 문제는 선행학습 및 사교육에 노출되지 않도록 출제에 매년 노력하며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위원 7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 모든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깊이 공부하여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의도에 부합한다. 아울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모든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교과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제시문들의 각각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의견	· 전체적으로 제시문 대부분이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모두 부합한다.
위원 8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 제시문 <가>는 우리가 한 번 쯤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한 상황인 극장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을 확률을 수학적 풀이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활용하는 수학적 해결방법이 모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여 극장에서 마지막 관객이 자신의 자리에 앉을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있어,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제시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전제 조건을 조금만 변화시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2-1.]은 제시문 <가>만 이해하면 고등학교 수준의 논리적 추론능력으로 어렵지 않게 문제의 답을 추론해낼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문제이다. · 제시문 <나>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인 극장에서 화면이 가장 크게 보이는 자리를 수학적 해결방법으로 찾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 활용하는 수학적 해결방법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운 직선의 방정식과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극장에서 관객의 시야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어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제시문이라 할 수 있다. · 주어진 [문항 2-2(a)] 은 몫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함수의 극대 극소를 구하는 문제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수준에 적합한 문제이다. · 문항 2-2(a)에서 평면좌표에서 주어진 문제를 공간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공간에서도 극장에서 화면이 가장 크게 보이는 자리를 찾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로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운 좌표공간에서 두 공간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여 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활용하여 최대가 되는 점을 구하는 문제로서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타 의견	·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극장이라는 좋은 환경의 예를 들어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서 수학이 우리 생활에서도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학문임을 보여주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평면에서 공간으로 생각의 장을 넓힘으로서 학생들의 수학적 추론능력을 묻고 있어 이러한 경향으로 출제하는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적합하고, 또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형식의 논술고사라 할 수 있다.

4. 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의 반영 계획

- 소위원회에서 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차년도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 절차 및 내용 개선에 반영

구분	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의 반영계획
논술고사	□ 현재 우리대학의 논술고사 형태 및 수험생 지원 방향 유지 • 공통문항과 계열문항으로 구성된 논술고사 형태를 유지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 및 통합적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우리대학 논술고사의 특장점을 강화하고자 함 • 모의논술 실시, 논술가이드북 제작 및 공개, 기출문제 및 해설 공개 등 학생들에게 우리대학의 논술고사 출제 방향 및 형태를 경험하게 하고, 수험생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대학 제공 자료만으로 충분히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출제와 평가의 연계 강화 • 출제자가 평가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출제의도에 맞는 답안이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자 사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여 출제와 평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유지하도록 함 □ 출제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 준수 여부 지속 점검 •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중요성 및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 • 출제위원은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해 스스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출제하도록 하며, 출제과정 중 검토위원의 점검 및 최종 검토결과 제출을 통하여 출제 전부터 출제 후까지의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기타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 필답고사 전형 과목의 간소화 노력 : 2018학년도 '외국어에세이' 과목 폐지 • '재외국민·새터민·외국의전교육과정이수자 특별전형'의 필답고사로 국한되는 기타고사는 현재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국어, 외국어에세이, 영어, 수학의 과목을 선별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 중 외국어에세이 과목은 필답고사 과목의 간소화 노력과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폐지함
면접	□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질문은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도출하여 '종합적 사고력,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공통질문 및 제시문 출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2018학년도에도 유지함

Ⅵ. 부록

Ⅵ. 부록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숙명여자대학교의 자체규정

□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 배경 및 관련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규정화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도 개발 및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구술고사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법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입학처장 및 관리정보처장)은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6.26.)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신설 2015.2.6.)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3.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⑤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완료하고, 3월 10일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은 3월 말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붙임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교시 공통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1교시 공통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정보화 사회, 근대, 시간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공 통 문 항

<가> 정보자본주의 사회는 그 시스템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간 체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 1998년 10월 23일 스위스의 세계적인 시계 제조업체인 스와치(Swatch)는 인터넷 시대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시간측정법을 만들어냈다고 발표했다. 스와치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편해지고 잦아진 지구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새로운 '보편시(universal tim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의해 형성된 가상공간에서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가정해보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각자 다른 지역 시간을 가진 참가자들이 동시에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교한 시간표가 준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회식이 런던 시간(그리니치 표준시, Greenwich Mean Time)으로 아침 10시에 열린다면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 뉴욕 시간으로는 오전 5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회의 참석자들은 개회시간을 맞추기 위해 표준시간을 고려하며 움직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와치가 만든 '인터넷 시간'은 이런 불편을 없애줄 것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시간대(international time zone)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간은 시, 분, 초 대신 '비트'(bit가 아니라 beat라 쓴다)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새로운 시간 체계이다. 하루(24시간/1,440분/86,400초)를 1,000비트로 나눠 @를 붙여 표기하는데, 86.4초는 @001비트에 해당한다. 낮 12시는 스와치의 새로운 시간 체계에서 @500비트이다. 이 인터넷 시간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이나 또는 공항에서 @500비트에 만나기로 약속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 시간이 단지 시간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일 뿐 아니라, 스와치 본사가 위치한 스위스의 빌(Biel)이라는 도시에 설정된 자오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간설정 방법이기 때문이다. '빌 표준시(BMT: Biel Mean Time)'는 인터넷 시간의 보편적인 준거점이 될 것이다. 인터넷 시간에서 하루의 시작(@000비트)은 빌의 자정에 시작한다. 이 인터넷 시간은 밤이든 낮이든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다.

이와 같은 인터넷 시간에 대해 MIT 대학 미디어랩의 네그로폰테(N. Negroponte)는 이렇게 말한다. "인터넷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시간이다. 현재는 현재이고 이 현재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왜냐하면 숫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넷 시간 논의는 전자상거래에서 구입과 배송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일치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일몰과 일출의 자연적 리듬이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는 시간 단위의 출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 17세기 후반 '분' 단위를 측정하는 시계가 발명되었다. 분 단위의 시간 계산은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비약적으로 높아진 정밀도는 곧 일반적인 시간 감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람들이 '시간 엄수'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것은 시계 자체의 발전에 따른 것이었다. 기술이 정교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 엄수도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었다. 이는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간 질서에 편입되기를 원하든 아니든 시간 엄수는 하나의 규범이 되었고, 개인은 그것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게으름은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되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시간의 모눈종이가 순식간에 촘촘해진 것은 당연했다. 특히 청교도인들은 엄격한 노동 규율을 요구했다. 한 청교도 성직자는 "매 분을 더없이 소중한 재화로서 노동에 사용해야 하고, 건강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오래 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에 늦잠을 막기 위해 자명종이 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강조되어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구별하는 시간표가 등장하였으며, 그것은 또한 시간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는 강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새로운 시계가 널리 퍼진 결과 17세기 후반부터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작은 단위의 시간들을 꼼꼼하게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해졌다. 노동 시간은 점점 더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휴식은 제한되었다. 대도시의 삶은 전체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 현대적 기술을 통해 인간은 땅에서 분리된다. 비행기와 우주선은 인간을 지구의 중력에서 떼어놓는다. 인간이 땅 위에서 빨리 움직일수록 땅은 그만큼 줄어든다. 지상의 거리를 극복할 때마다 인간과 땅 사이의 거리는 커져간다. 게다가 인터넷은 아예 땅 자체를 증발시킨다. 전자공간은 무공간적이다. 현대적 기술은 인간의 삶을 땅에서 소외시킨다.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시간은 가속화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가속화는 사물들을 확고한 공전궤도에 붙들어두던 지구의 중력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사물들은 그 의미 연관에서 풀려나와 방향을 잃고 부유하거나 어지럽게 날아다니게 되었다. 외부의 관점에서는 이 광경이 마치 사물들이 가속화의 힘으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물들은 의미의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탈하고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속화는 결과적으로 탈시간화를 낳게 되며, 전반적인 탈시간화는 의미를 형성하던 시간적 매듭, 종결, 문턱, 이행 등의 소멸을 가져온다. 시간이 예전보다 빨리 흘러간다는 느낌도 뚜렷한 시간의 분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사건이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즉 '경험'이 되지 못한 채 빠르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버리는 까닭에 더욱더 강화된다. 삶이 완전히 리듬을 상실할 때 시간적 감각의 교란이 일어난다.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빨리 간다는 인상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머무를 줄 모르게 되었다는 것, 지속의 경험이 대단히 희귀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정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근대적 문화 프로그램은 세계의 가능성들을 더 빠르게 맛봄으로써—체험 속도의 증대를 통해—각자의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고 더 풍부한 체험으로 채워갈 수 있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개인의 경험 축적에 의해 생성되는 개인의 서사는 그 개인마다 고유한 것으로서 결코 속도의 증대에 의해 더 풍요로워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른 시간, 즉 일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간을 생성하는 시간 혁명이다. 시간에 향기를 되돌려주는 혁명이다.

1.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 저자의 입장에서 그 공통점에 대해 비판하시오. (단, <참고문>을 활용할 것) (1,000±100자)

<참고문>

상대성 이론이 소개되기 전, 물리학에는 뉴턴의 '절대 시간'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있었다. 절대 시간이란 어느 곳의 누구에게나 시간이 동일하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물체의 운동 상태 등을 비롯해 무엇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흐르는 시간으로서,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아인쉬타인의 이론은 절대 시간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면 그곳에서는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이다. 또 그 결과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들어 보인다.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들은 주어진 한 순간에 서로 다른 '지금'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실체'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갖게 된다.

3. 출제 의도

시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떠한 순간에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는다면 왜 그런 것일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일까? 과거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시간'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문들을 제시하여, 제시문 간의 내적 연관성을 도출함으로써, 대답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 colspan="3">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 rowspan="4">관련 성취기준</td><td colspan="3">1.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 colspan="2">과목명: 사회·문화</td><td>관련</td></tr>
<tr><td>성취 기준 1</td><td>(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탐색한다.
㈑ 세계화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 사회의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td><td>제시문 <가></td></tr>
<tr><td>성취 기준 2</td><td>(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 근대 사회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근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살펴본다.
㈐ 산업화에 따른 노동 및 인구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원인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td><td>제시문 <나></td></tr>
<tr><td>성취 기준 3</td><td>(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 정보 사회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탐색한다.</td><td>제시문 <다></td></tr>
</table>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보기술은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희진	삼성경제연구소	2006	13~15	제시문 <가>	O
라이프니츠, 뉴턴 그리고 시간의 발명	토마스 데 파도바	은행나무	2016	151~152	제시문 <나>	O
시간의 향기	한병철	문학과지성사	2013	46~66	제시문 <다>	O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강운선 외 5인	미래엔	2014	235	제시문 <가>	O
고등학교 사회	류재명 외 10인	천재교육	2014	104-105	제시문 <나>	O
고등학교 사회·문화	박찬구 외 9명	천재교육	2016	173	제시문 <다>	O

5. 문항 해설

1. 논제의 구성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 저자의 입장에서 그 공통점에 대해 비판하시오. (단, <참고문>을 활용할 것) (1,000±100자)

제시문 <가>, <나>, <다>, <참고문>은 모두 '시간' 개념에 대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가>와 <나>는 각각 정보화 사회와 근대의 '절대 시간'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제시문 <다>와 <참고문>은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문제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후, <다> 저자의 입장에서 그 공통점에 대해 비판해 보라는 것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정보화 시대와 근대적 '절대 시간'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후, 상대적 시간 개념을 바탕으로 그러한 절대적 시간 개념을 비판하라는 것이다. 문제 도출의 방향은 비교적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기에 이러한 방향 자체를 혼동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도출하여 자신의 이해된 말로 풀이하기는 다소 난위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 시간'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적 보편시는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흘러간다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고,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하나의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정교한 시간 관리가 중시되며, 그렇기에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부가적이기는 하나, <가>와 <나>는 새로운 시간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논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다.

<가>와 <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나>는 보편시로서 근대적 시간 개념이고, <가>는 인터넷 시간으로서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보편시는 절대 시간이기는 하나 여전히 자정과 정오를 가진다, 즉 낮과 밤이 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지구의 자전에 따르는 시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시간은 이러한 시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의 리듬에 따르지 않는다. 또한 보편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반해,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사용하여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시간이다.

<다> 지문은 학생들에게는 다소 난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시간과 시간의 가속화에 반대하여, 시간은 경험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그 경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 즉 상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문>은 아인쉬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물리학 영역에서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뉴튼의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자연계의 시간이 관찰자의 위치나 속도에 따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다>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주장은 정보화 사회의 대

안으로 제기되는 '슬로라이프'의 주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다. 다만 참고문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다>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와 <참고문>의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적 시간 개념은 비판될 수 있다. 우선 <나>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절대 시간은 일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의 시간으로서 발전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조차 시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가>의 주장은 시간이 관찰자가 위치한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무시한 극단적인 절대 시간일 뿐이다. '일출과 일몰'이라는 자연적 시간, 그에 연동하는 인간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상실하여 의미로 발전하지 않고 결코 경험으로 축적될 수 없다.

시간의 상대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가>, <나>, <다>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계발서 식의 <나>의 시간과 정보화 시대 <가>의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개개인에 따라 경험치가 다른 <다>의 시간이 모두 공존하고 모두 필요한 것이다.

2. 각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이희진, 『정보기술은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13~15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가>는 '정보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시간 개념을 기술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밤과 낮이라는 자연적 시간 차이조차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그 사례로 세계적인 시계업체 스와치가 스위스 빌(Biel) 시간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시간을 일치시키려고 시도하는 빌 표준시(BMT: Biel Mean Time)를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의 데이터양에서 착상한 이 시간을 전세계인이 공유하게 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가 전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각기 차이가 난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빌 표준시는 전세계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제시문 <나> : 토마스 데 파도바, 『라이프니츠, 뉴턴 그리고 시간의 발명』 (박규호 옮김, 은행나무, 2016년, 151~152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나>는 근대적 시간 개념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 시계가 출현하게 되어, 하루가 24시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시간은 인간 모두에게 해당하는 '절대적인 시간'이다. 게다가 분 단위까지 측정하는 시계가 출현한다는 것은 근대적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즉 청교도들에게 시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재화이기에 단 일 분, 일 초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강박 관념을 낳게 되며, 자명종이나 시간표 등 규칙적인 생활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산업화와 도시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시간관념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도시인에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감각을 낳게 되었다.

제시문 <다> : 한병철, 『시간의 향기』 (문학과지성사, 2013년, 46~66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즉 근대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어지는 시기의 '절대적 시간' 개념을 시간의 '가속화'와 '탈시간화'로 설명하고 있다. 철도, 비행기 등 근대적 기계문명이 공간의 축소, 시간의 단축을 의미했다면, 그 과학문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인터넷은 이윽고 물리적 차원의 공간 소멸을 가져왔다. 또한 전세계인이 단일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시간 개념의 상실, 탈시간화를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가속화와 탈시간화를 물리적 운동과 인간적 경험을 연결지어 설명한다. 이러한 근대 문명의 수렴 형태는 인류에게 속도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미지의 영역이 개척되고,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상으로는 시간 감각의 교란이 생겨 '경험'으로서 축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이란 개념적으로 시작과 변화, 끝과 같은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없기에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고 경험으로 남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절대 시간' 개념에 저항하여, 개인마다 다른 시간, 개인마다 다른 서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 답안구성요소** ① <가>와 <나>의 공통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가>와 <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 시간'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적 보편시는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흘러간다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고,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하나의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정교한 시간 관리가 중시되며, 그렇기에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부가적이기는 하나, <가>와 <나>는 새로운 시간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논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다. ② <가>와 <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보편시로서 근대적 시간 개념이고, <가>는 인터넷 시간으로서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보편시는 절대 시간이기는 하나 여전히 자정과 정오를 가진다, 즉 낮과 밤이 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지구의 자전에 따르는 시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시간은 이러한 시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의 리듬에 따르지 않는다. 또한 보편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반해,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사용하여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시간이다. ③ <다>와 <참고문>의 공통점을 도출하고 있는가?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시간과 시간의 가속화에 반대하여, 시간은 경험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그 경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 즉 상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문>은 아인쉬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물리학 영역에서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다>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주장은 정보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슬로라이프' 주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다. 다만 참고문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다>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④ <다> 저자의 입장에서 '절대 시간'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가? <다>와 <참고문>의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적 시간 개념은 비판될 수 있다. 우선 <나>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절대 시간은 일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의 시간으로서 발전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조차 시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가>의 주장은 시간이 관찰자가 위치한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무시한 극단적인 절대 시간일 뿐이다. '일출과 일몰'이라는 자연적 시간, 그에 연동하는 인간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상실하여 의미로 발전하지 않고 결코 경험으로 축적될 수 없다. **■채점 기준** 위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①, ②, ③, ④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논증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문장과 정서법(正書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①과 ②의 기술이 다소 부족한 경우	등급 표기

	4등급: ①, ②는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③, ④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가 잘 되지 않았거나, ③, ④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과 ③만 나타나거나, 지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지 못한 경우 7등급: ③, ④는 없고 ①, ② 만을 설명하는 경우 8등급: ①, ②는 설명하고 있으나, 정서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9등급: ①, ②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혹은 분량이 1,100자를 넘는 경우	

7. 예시 답안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시간 개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나>에서 말하는 시간은 근대적 시간이다. 분 단위를 측정하는 정교한 시계가 개발됨으로써 노동 시간을 비롯한 인간 생활이 시간에 얽매이고 더욱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가>는 스와치 타임을 예로 들어, 정보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시간, 즉 전 세계인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점은 절대 시간, 시간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이며, 새로운 시간 체계가 나타난 시기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나>가 일출과 일몰의 자연적 시간인데 비해, <가>는 그것마저도 초월하여 전세계인 모든 장소의 모두에게 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다.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시간과 시간의 가속화에 반대하여, 시간은 경험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그 경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 즉 상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문>은 아인쉬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물리학 영역에서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뉴튼의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다>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주장은 정보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슬로라이프'의 주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다. 다만 참고문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다>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절대 시간은 일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의 시간으로서 발전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조차 시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가>의 주장은 시간이 관찰자가 위치한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무시한 극단적인 절대 시간일 뿐이다. '일출과 일몰'이라는 자연적 시간, 그에 연동하는 인간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상실하여 의미로 발전하지 않고 결코 경험으로 축적될 수 없다.

시간의 상대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가>, <나>, <다>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계발서 식의 <나>의 시간과 정보화 시대 <가>의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개개인에 따라 경험치가 다른 <다>의 시간이 모두 공존하고 모두 필요한 것이다.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교시 계열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1교시 계열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사회, 사회·문화, 화법과 작문, 문학, 고전
	핵심개념 및 용어	노인, 노년, 고령화, 교란하는 힘
예상 소요 시간	60분/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가>
그는 앉아있다.
최소한의 움직임만을 허용하는 자세로
나의 얼굴,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을 조용히 핥는
그의 탐욕스런 눈빛

나는 혐오한다, 그의 짧은 바지와
침이 흘러내리는 입과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허옇게 센 그의 정신과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그의 세계에 침을 뱉고
그가 이미 추방되어버린 곳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며
단 한 걸음도
그의 틈입을 용서할 수 없다.

갑자기 나는 그를 쳐다본다, 같은 순간 그는 간신히
등나무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린다.
손으로는 쉴 새 없이 단장을 만지작거리며
여전히 입을 벌린 채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는 듯이, 그의 육체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무엇이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기형도, 「늙은 사람」

<나>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비참해지지 않거나 행복할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제 아무리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라고 해도, 오늘 저녁까지도 멀쩡할 거라고 확신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 오히려 노인들보다 젊을수록 비명횡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이다. 젊은 나이에는 쉽게 병에 노출되고, 더욱 심하게 앓으며, 완치되기도 힘든 법이다.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지극히 소수만이 노년기까지 살아남는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현명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현명한 조언을 하는 것은 온전히 노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만약 노인들이 없다면 국가는 제대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의 문제는 비단 노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들 알다시피 죽음의 문제는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남아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 노인들은 달리 바라는 것이 없다고들 말한다. 오히려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미 얻었으니 말이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노인은 이미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들이다. 수명이 더 길다고 슬퍼할 이유는 없다. 따스한 봄날이 가고 여름과 가을이 왔다고 해서 농부가 슬퍼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봄은 젊음의 계절이고 앞으로 결실의 시기가 다가올 것을 약속하지만, 이어지는 여름과 가을은 그동안 맺은 결실을 수확하기에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결실이란 지금까지 행했던 미덕을 회상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뜻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미덕으로 여겨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조화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 때로는 젊은이들도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지만, 그때마다 자연이 거세게 반항을 한다. 때문에 젊은이들이 죽으면 거센 물살이 뜨거운 불길을 단숨에 꺼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살 만큼 산 노인이 죽음을 맞으면 오랫동안 타오르던 불꽃이 서서히 꺼지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과일이 제대로 익지 않았을 때는 수확하는 것조차 힘들다. 하지만 농익은 과일은 저절로 바닥에 떨어지듯이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폭력이요, 노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원숙함이다. 나로서는 그런 원숙함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다> 노인이란 '사회의 규범에서 밀려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을 맞이해서 무직이 되면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非)노동인구로서 생산 활동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철 무임승차와 같은 각종 할인, 다양한 시설의 노인 무료입장 등의 우대가 있음을 생각해 보면 적극적 소비자도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미성년자는 무죄'와 비슷한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 고령자가 지금 대량으로 세상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인이 지니고 있던 힘은 사회의 폭주를 막아주는 안전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대가 좀 더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인은 권위에 의지한다.' 라든지 '노인은 보수적이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 말을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과거보다 '분별없는' 노인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요즘 시대 '노인의 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교란하는 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회는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로 흘러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조금씩 듭니다. 물론 나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 교란하는 힘은 생산성이나 효율성,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문화를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음을 선험적으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젊음에 우월한 가치를 두는 생각은 전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처럼 젊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모를까, 요즘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령자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5명 가운데 1명이 예순다섯 살 이상이 되는 사회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힘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이 소수였던 과거의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된 사회와는 달리 오늘날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죽음은 아주 흔한 것으로 바뀌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반대로 각오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아이들처럼 되면 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아이처럼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죽음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두렵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인생에 대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피한다면 끝없이 두려움에 떨어야겠지요. 나는 그 경험 덕분에 과거보다 대담해졌고 좀 과장해서 말하면 '활이든 대포든 얼마든지 덤벼라.'라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쇠퇴'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이를테면 '자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다면 무턱대고 이런저런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노년'의 의미와 연관하여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저자가 보이는 태도를 비교하고,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각각 비판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1회차 인문계열 논술의 주제는 '노년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를 일컬어 '고령화 사회'라 한다. 그리고 멀지 않아 '고령화'의 단계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늘어났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사회적 위상은 그에 걸맞게 높아지진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하다. 여전히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젊음, 유용성, 생산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회 구조가 낳은 노인에 대한 정형화된 의식 또한 그와 같은 불균형한 상황을 심화시키는 데 한몫 거들고 있다. 노인은 여전히 정신적·육체적으로 무기력한 존재 아니면 '분별력' 있는 '원숙'한 지혜의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이 과연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로 나아가는 오늘날 상황에서 타당한 것인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1회차 인문계열 논술 제시문은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의미'에 대해 성찰적 접근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문학, 철학, 사회 영역의 텍스트 등에서 선별하였다. 논제는 '노년'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적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의미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까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2) 생명·성·가족 윤리
㈑ 가족 관계의 윤리
사랑의 결실로서의 결혼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 부부·부모자녀·형제자매, 친족</td><td>제시문 <다>, 문항2</td></tr>
</table></td></tr>
</table>

	간의 사랑과 윤리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 결혼 생활과 부부간의 윤리, 가족의 가치, 형제자매 관계와 우애, 친족간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전통 윤리의 기본 정신과 내용을 파악하여 오늘날의 가족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④ 고령화 사회의 가족 윤리 (7쪽)	
성취기준 2	(2) 생명·성·가족 윤리 ㈎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낙태(인공 임신 중절)와 생식 보조술 등의 문제와 죽음과 관련된 자살, 안락사, 뇌사 등의 문제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생명 존중의 윤리적 정신과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를 파악하고 낙태, 생식 보조술, 자살, 안락사, 뇌사 등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이와 관련된 사례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한다. ①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 (6~7쪽)	제시문 <가>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3) 합리적 선택과 삶 (가) 고령화와 생애 설계 고령화가 한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고령화 사회를 염두에 둔 생애 설계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①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현상과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② 생애 발달 단계별 과업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애 설계(교육과 취업, 결혼, 출산, 노후 등)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예측한다.(10~11쪽)	제시문 <가> <나> <다> 문항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시각을 이해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152쪽)	제시문 <다>, 문항2
성취기준 2	(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역동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 변동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다. 그리고 사회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의 중요한 변화 양상인 세계화와 정보화를 이해한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방안에 관해서 알아본다. (다) 산업화에 따른 노동 및 인구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원인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 (154쪽)	제시문 <다>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25) 논거의 타당성, 조직의 효과성, 표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고쳐 쓴다. 설득을 위한 글을 쓸 때 설득하는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비추어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쓰는 것은 글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기본적으로 어휘나 어법을 바르게 고치려면 어휘와 문장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어휘나 문장의 오용 유형을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설득을 위한 글은 내용 면에서 논거의 타당성과 풍부성이 중요하고 조직 면에서는 일관성, 내용 조직의 체계성 등이 중요하며, 표현 면에서는 논리성, 명확성 등이 중요하다. 특히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독자를 포함한 언어 공동체를 고려한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부분을 수정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109쪽)	문항2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면서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이러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문학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작품 생산 시점뿐만 아니라 수용 시점에서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폭을 넓히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을 높이도록 한다. (135쪽) (4) 문학이 예술,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한다. 문학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언어로써 표현한 예술이다. 문학은 인간 문제에 대한 사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시대적·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사회 분야와도 관련을 맺는다. 인간의 생활 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문학은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문학이 다른 분야와 맺는 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생산 활동을 심화하도록 한다. (136쪽)	제시문 <가>, 문항2
성취기준 2	[문학과 삶] (13)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작품 속의 세계와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자신의 삶과 생각을 통해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독자는 풍부한 감수성, 예리한 통찰력, 따뜻한 포용력, 바람직한 가치관 등을 두루 갖춘 내면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삶의 다양성을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자아의 내면세계가 보다 넓고 깊어짐으로써 타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개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141쪽)	제시문 <가>

과목명: 고전		관련
성취기준 1	[고전의 탐구] (4) 고전이 쓰인 시대와 문화 등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고전의 지혜와 통찰을 수용한다. 고전에는 그것이 쓰인 시대와 배경이 되는 문화 등의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만인평등, 양성평등, 종교의 자유, 자연과 우주에 대한 견해 등 현대에서는 상식에 가까운 일도 과거에는 다른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읽음으로써 선인들의 지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당대의 통찰이 오늘날에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5) 고전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가치를 가지게 된 요인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 보고, 다른 사례 등과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비판적 평가를 통해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한다. (6)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전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가치를 재평가한다. 현대 사회에는 정보 통신 기술 문명의 발달, 심각한 환경 파괴 등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급격한 변화는 고전의 선별과 수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오늘날 어떤 글들이 고전의 반열에 오르고 높이 평가되는지 살피고, 현대인들의 관심사에 따라 예전에 인정받던 고전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 보도록 한다. (146~147쪽)	제시문 <나>, 문항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늙은 사람’(『입속의 검은 잎)	기형도	문학과 지성사	1989	22	제시문<가>	×
키케로의 노년에 대하여	키케로	소울메이트	2016	82~89	제시문<나>	○
늙어서 ‘최강’이 되라(『고민하는 힘)	강상중	사계절	2009	159~170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14	12~24	제시문<가>	×
고등학교 고전	정재승 외	해냄에듀	2014	123~131	제시문<나>	○
고등학교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2014	100~107	제시문<나>	×

5. 문항 해설

1. 각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기형도, 「늙은 사람」(『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가>에 제시된 「늙은 사람」은 요절한 시인 기형도의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에 실린 작품이다. 기형도 시 세계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문제화하였다는 점이다. <가>에 제시된 ‘늙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노인’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부정적인 시선을 통해 형상화한 시이다. 시적 화자 ‘나’는 ‘등나무 그늘 속에 웅크린’ 채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이는 ‘늙은 사람’ 곧 ‘노인’을, ‘틈입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늙은 사람’이 시적 화자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까닭은, ‘짧은 바지’와 ‘벌어진 입’, ‘허옇게 센 정신’ 등이 시사하듯, 육체적으로 쇠퇴하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는 데 있다. 이런 노인의 이미지는 ‘늙은 사람’이 ‘탐욕스런 눈빛’으로 시적 ‘나’의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과 대비된다. 이와 같이 ‘늙은 사람’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태도는 단호하다. ‘나’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틈입’을 허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나’의 세계에는 이미 ‘그’가 추방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세계 또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다. ‘나’에게 ‘늙은 사람’은 ‘죽음’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4연의 내용이 시사하듯, 역설적으로 ‘나’와 ‘늙은 사람’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그를 알아차리는 순간, 죽음은 너무도 쉽게 가까이 내 곁에 있음을 ‘나’는 깨닫는다. 이런

점에서 '늙은 사람'은 죽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 '나'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늙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혐오의 시선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스며들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제시문 <나> : 키케로, 『키케로의 노년에 대하여』(정영훈 편역, 소울메이트, 2016)에서 발췌 후 재구성

<나>는 '노년'과 '죽음' 두 개의 화두를 성찰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 C.)의 『노년에 관하여』에서 발췌 구성한 글이다. <나>에서는 '노년' 혹은 '늙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나>는 노년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늙는다고 해서 모두 비참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노년의 장점이 <나>에 서술된다. 노인은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 분별력과 이성을 갖추었고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존재라는 것, 노인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보다 자연의 이치에 걸맞는 조화로운 것이라는 점 등을 노년의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 : 강상중, 『고민하는 힘』(이경덕 역, 사계절, 2009)에서 발췌 후 재구성

<다>는 강상중의 『고민하는 힘』 가운데 「늙어서 '최강'이 되라」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노인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글이다. <다>에 따르면, 노인은 오늘날 '사회의 규범에서 밀려난' 존재이지만, 생산성과 효율,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교란하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피라미드 형태로 인구가 구성된 과거와 달리, 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오늘날 노인은 더 이상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분별력' 있는 존재일 수 없다. 오히려 '분별없는' 노인이 늘어난 까닭에 노인은 '젊음'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운용되는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다>의 저자는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다>의 저자는 노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논제의 구성

논제는 '노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두 개의 대조되는 통념을 보여주는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고, 고령화 사회의 시대에서 '노인'이 갖는 의미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통념적 인식을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제는 다음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의 의미에 대해 비교하시오.
둘째,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가>와 <나>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통념을 각각 비판하시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네 단계의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둘째,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셋째, <다>의 논지를 파악한다.
넷째,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을 비판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 **답안 구성요소**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논제가 요구하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의 파악 둘째,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셋째, <다>의 논지를 파악 넷째, <다>의 논지에 근거한 <가>와 <나>의 '노년' 인식에 대한 비판 *이 논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답안 구성 요소별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①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 (1) <가>의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노년'에 대한 인식 - 시적 화자 '나'는 '등나무 그늘 속에 웅크린' 채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이는 '늙은 사람' 곧 '노인'을 '틈입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봄 - 시적 화자는, '짧은 바지'와 '벌어진 입', '허옇게 센 정신' 등이 시사하듯, '늙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쇠퇴하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 - '탐욕스런 눈빛'으로 '그(=늙은 사람)'가 응시하는 시적 화자 '나'의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과 대비됨 - 시적 화자에게 '늙은 사람'은 '죽음'의 의미로 인식됨 - 4연의 내용이 시사하듯, 역설적으로 '나'와 '늙은 사람'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음. 그를 알아차리는 순간, 죽음은 너무도 쉽게 가까이 내 곁에 있음을 '나'는 깨달음. 따라서 죽음의 표상인 '늙은 사람'은 '나'의 내면을 투영한 존재. (2)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 - 노년은 모두 비참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 - 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 - 노년은 분별력과 이성을 갖추었고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존재 - 노인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보다 자연의 이치에 걸맞는 조화로운 원숙한 존재	등급 표기

②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⑴ 공통점
- <가>와 <나>는 노년을 문제화하고 있다
-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저자는 모두 노년을 죽음을 앞 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⑵ 차이점
-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저자는 노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을 보여준다. <가>의 시적 화자가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나>의 저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가>의 시적 화자 '나'는 '늙은 사람'을 혐오의 시선으로 응시한다. 노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탐욕스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의 '세계에 침을 뱉'으며 그의 '틈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노인과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있다.

- <나>의 저자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반박하며 그들의 장점을 서술하고 있다. <나>에 따르면 노인은 분별력과 이성을 갖춘 존재로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곧 공동체를 지탱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노인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보다 자연의 이치에 맞는 조화로운 것이라 하면서 늙는 것이 비참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다>의 논지를 파악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존재 의미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노인은 '생산성과 효율,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서 밀려난 존재이다. 피라미드 형태로 인구가 구성된 과거와 달리, 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오늘날 노인은 더 이상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분별력' 있는 존재일 수 없다. 오히려 '분별없는' 노인이 늘어난 까닭에 노인은 '젊음'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운용되는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다>에서는 노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④ <다>의 논지에 근거한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인식 비판

⑴ <다>의 논지에 바탕한 <가>의 시적 화자가 보이는 노년 인식 비판

<다>에서는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적인 맥락에서 볼 때 노인은 '사회의 규범에서 밀려난' 소외된 주변부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규제'에서 벗어나 무한한 도전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교란하는 힘'을 지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저자 자신 '노년'에 대하여 '쇠퇴'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가>의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노인은 더 이상 육체적·정신적으로 '쇠퇴'한 혐오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⑵ <다>의 논지에 바탕한 <나>의 저자가 보이는 노년 인식 비판

또한 <다>에서 '분별없는' 노인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인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듯이, <나>의 저자가 예찬하고 것처럼 노인은 '분별력'과 '지혜'로써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원숙'한 존재인 것만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같이 노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고 보거나 <나>와 같이 '분별력'과 '지혜'를 지닌 권위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노인에 대한 두 가지 정형화된 통념이라 비판할 수 있다.

■ **전체 채점 기준**

인문 문항의 취지에 맞게 채점 기준은 답안의 내용과 표현의 측면 모두에 강조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논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정도, 답안 서술 과정의 논증구성력 등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한다.

■ **채점 기준 (9등급)**

앞에서 제시한 답안 구성 요소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9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답안 서술이 체계적이며 완성도가 높은 경우.
2등급 :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서술과 표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경우.
3등급 : ①, ②, ③을 부분적으로 충족하고, ④를 충족한 경우.
4등급 : ①, ② ③ 중 부분적으로 충족하고,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한 경우.
5등급 : ①, ②, ③를 부분적으로 충족하고, ④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6등급 : ①, ② ③ 중 하나만 충족하고,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한 경우.
7등급 : ①, ② ③ 중 하나만 충족하고, ④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8등급 : 구성 요소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답안 완성도에 큰 결함이 있는 경우.
9등급 : 문항의 요구사항과 관계없는 글을 썼거나 답안 분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채점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가>, <나>, <다>에 제시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2. 논제의 요구에 맞게 <가>, <나>, <다> 간의 내적 연관성을 적절히 파악하여 논의를 이끌었는가?
3. 글 전체가 무리 없이 논리적인 흐름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4. 답안은 1,000±100자의 분량을 충족시켰는가?
5. 단어, 문장, 표현, 서술 방식 등에 오류가 있거나 어색하지 않은가?

7.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노년을 공히 죽음을 목적에 둔 시기로 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을 보여준다. <가>의 시적 화자는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는 노인을 혐오의 시선으로 응시한다. 노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의 '틈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절대적 거리를 둔다. 이와 달리 <나>의 저자는 노인들의 장점을 예찬하고 있다. 노인은 분별력과 이성을 갖춘 원숙한 존재로 국가를 지탱하는 원로이다. 따라서 노인의 죽음은 자연의 이치에 맞는 조화로운 것이기에 늙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고 <나>의 저자는 주장한다.

<다>는 고령화 시대 노년의 의미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노인은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서 밀려난 존재이다. 그러나 '분별 없는' 노인의 수가 늘어난 오늘날 노인은 '생산성과 효율, 젊음과 유용성' 중심의 '젊음'에 가치를 두고 운용되는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를 근거로 노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노인이 주변부적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규제'에서 벗어나 무한한 도전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교란하는 힘'을 지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다>의 논지에서 볼 때, <가>의 시적 화자의 인식처럼 노인은 더 이상 육체적·정신적으로 '쇠퇴'한 존재일 수만은 없다. 또한 <다>에서 '분별없는' 노인이 대량으로 존재하므로 노인이 과거처럼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듯이, <나>의 저자가 예찬하듯 노인은 '분별력'과 '지혜'로써 공동체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원숙'한 존재도 아니다.

따라서 <가>와 같이 노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고 보는 입장, <나>와 같이 '분별력'과 '지혜'를 지닌 권위의 존재로 보는 입장 모두 고령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노인에 대한 두 가지 정형화된 통념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2-3. 문항카드 ③ <인문계열 2교시 공통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2교시 공통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국민총생산, 행복, 공정성과 삶의 질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공 통 문 항

<가> 나는 현대사회의 가장 놀랄 만한 기만, 즉 집단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흑주술(black magic)을 감추기 위한 숫자 조작의 백주술(white magic)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부기상의 환상(accounting illusions)이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불합리한 모순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다.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알리바바의 주술과 같은 이 조작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요소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작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학술 연구도, 문화도, 여성들의 가사 노동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반대로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항목이 단지 측정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회계는 마이너스 기호를 인정하지 않으며 완벽할 정도의 비논리적인 태도로 해로운 것과 긍정적인 것을 모두 함께 계산해버린다.

경제학자들은 공공 서비스와 사적 서비스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생산물과 서비스의 가치를 국민총생산으로 합계한다. 그렇게 하면 공해도 공해대책도 객관적으로 유용한 재화의 생산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 알콜, 마약, 외설물, 핵탄두의 생산도 학교나 연주홀 신축, 공원 신설과 마찬가지로 국민총생산을 증가시킨다. 손해나 가치하락과 같은 비용은 대개 계정에 표시되지 않지만, 표시된다 하더라도 플러스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출퇴근 교통비도 장부상으로는 소비자 지출로 기록된다. 그것은 생산 그 자체를 위한 생산이라는, 주술적 숫자화의 논리적 귀결이다. 생산된 것, 계량 가능한 것 모두는 긍정된다. 우리 도시의 대기 맑음 정도가 10년 사이에 30%나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회계사의 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이 감기약, 마스크, 전구, 안경 등의 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이상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게다가 생산 및 사회적 부의 증가로 존재한다.

<나> 무엇이 행복일까? 행복의 뜻을 알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우리는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행복한 상태를 조리 있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돌이켜 본다면, 일반적으로 행복은 외부적 환경과 내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복은 직업, 소득, 안전, 사회적 관계와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외부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것은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가치관은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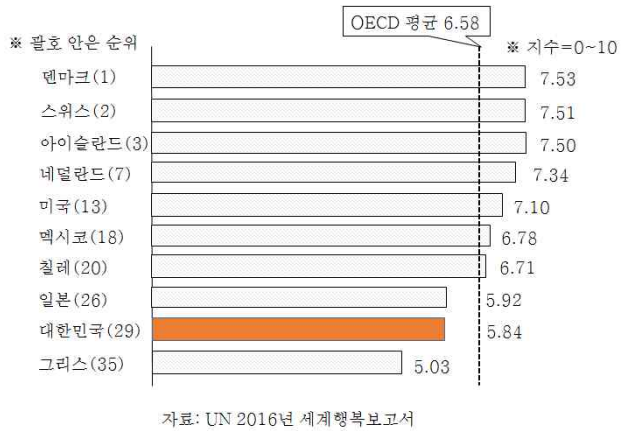
특히 유전적 요인은 선천적인 것으로 일생 동안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후천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후천적 요인은 어떤 문화 환경과 교육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에 사는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행복의 조건을 훨씬 용이하게 찾아내며, 성공 지향적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삶에서 행복의 가능성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비단 문화나 교육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좀 더 작게는 가족 간의 관계나 동료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사회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용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이다. 재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어울려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다고 할 때, 그들의 어울림이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 사는 사람이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 사는 사람보다 행복의 가능성을 더 높게 가지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외부적 여건이 같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의 정도를 다르게 느끼게 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 '행복'은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이것은 행복이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경제적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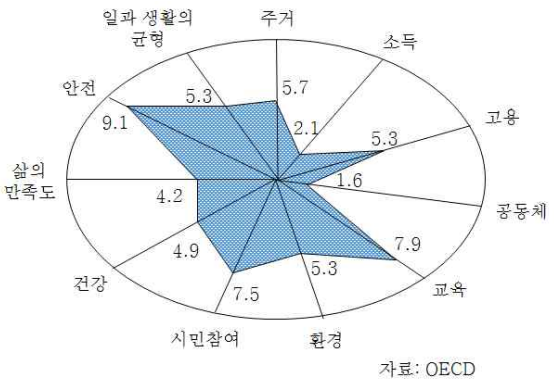
유엔이 올해 초에 발표한『2016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평균 5.84점(0점~10점 척도)으로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58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만 보면 최하위권(29위)이다. 각각 세계 11위와 28위(2015년)인 한국의 국내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 규모에 비춰보면, 한국은 '행복 없는 사회·경제'에 빠져 있음이 한눈에 드러난다.

행복 결핍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소득뿐 아니라 행복에서도 불평등하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 응답자의 '행복감 표준편차'(행복불평등지수)는 2.15로, 157개국 중 96번째다. 한국인들 사이에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격차가 매우 크다는 뜻이다. OECD 안에서만 보면 행복불평등지수는 31위로 최하위권이다. 즉 행복불평등이 5번째로 크다는 의미다.

사실 한국의 소득불평등 지표(가처분소득 지니계수 2012년 0.307)에서는 경제력이 비슷한 OECD의 다른 나라에 견줘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행복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OECD 주요국 행복도 순위



[그림 2] 한국 행복지수 주요 항목별 점수

1.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왜 <다>([그림 1], [그림 2] 포함)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행복이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목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는 그렇게 증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이켜 봄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학생들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는 것이 출제의 의도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 (다)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다양한 윤리 이론들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윤리 이론들을 적용하여 윤리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윤리 이론들(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배려 윤리, 책임 윤리, 담론 윤리)의 강조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윤리 이론들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탐구한다.(40쪽~43쪽)	제시문 <나>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3) 서양 윤리 사상 (차) 현대의 덕 윤리와 배려 윤리 근대 윤리학을 비판하는 현대의 덕 윤리와 배려 윤리의 문제의식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덕 윤리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배려 윤리의 특징을 조사한다.(154~160쪽)	제시문 <나>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4) 국민 경제의 이해 국민 경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 순환과 함께 경기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재정·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다) 삶의 질과 복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노력을 파악한다. 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고려)을	제시문 <다>

		찾아보고, 이를 갖추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②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부와 사회 봉사가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③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차 해소, 환경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야르	문예출판사	1992	12	제시문 <가>	O
99%가 행복해지는 정치	조승헌	이담	2012	64-65	제시문 <나>	O
한겨레21	김학준	한겨레 21 1110호	2016		제시문 <다>	O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오영수, 김진영	교학사	2014	146-149	제시문 <가>	O
생활과 윤리	담궁달화 외 5인	교학사	2016	192-197	제시문 <나>, <다>	O
사회·문화	강운선 외 5인	미래엔	2016	132-134	제시문 <나>, <다>	O

5. 문항 해설

1. 논제의 구성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왜 <다>([그림 1], [그림 2] 포함)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00±100자)

위 문항은 첫째, 제시문 <가>와 <나>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며, 둘째, 제시문 <다>에 있는 내용과 그림

을 분석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며, 마지막으로 제시된 조건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여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즉 창의적인 추론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2. 각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소비의 사회』, 쟝 보드리야르, 발췌

제시문 <가>는 GDP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불합리한 모순에 대하여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GDP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GDP 속에는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모두 부기 상 긍정적인 것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면 알콜, 마약, 외설물 등과 대기가 나빠져서 그 반대급부로 성장하게 되는 감기약, 마스크, 전구, 안경 등의 지출 증가도 그것이 시장의 상품으로 소비되는 한 GDP성장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GDP가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진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제시문 <나> : 『99%가 행복해지는 정치』, 조승헌,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적 여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다르게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 서술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행복이란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적 가치관인데, 왜냐하면 외부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이유는 이 내적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건강, 성격 등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후천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 「한겨레21」, 2016, 5월 제 1110호

제시문 <다>는 '행복 없는 사회, 경제'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서술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한국은 적지 않은 GDP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에 있어서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58위이며, UN보고서 기준 29위(그림 1)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림 2)가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림 2)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삶에 있어서 특히 불행하게 느끼는 부분은 공동체적 결합과 소득, 삶의 만족도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제시문 <가>와 <나>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가 둘째, 제시문 <다>에 나타난 현상을 그림을 포함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셋째, 제시문 <다>의 현상을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넷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답안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① 제시문 <가>의 요약 첫째, 사람들은 GDP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GDP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은 그 내용면에서 숫자에 의한 불합리성을 포함한다. 셋째, GDP는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그것이 시장의 상품으로 소비되는 한 모두 포함한다.	등급 표기

② 제시문 <나>의 요약
첫째, 행복이란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다.
둘째, 외부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이유는 이 내적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치관은 건강, 성격 등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후천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③ 제시문 <다>에서 제시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GDP를 갖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행복도를 보인다.
둘째, 특히 낮은 국민 행복도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는 공동체적 삶과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이다.

④ 제시문 <가>와 <>의 논지를 활동하여 제시문 <다>의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GDP대비 국민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제시문 <가>가 말하듯이 GDP의 허구성이 일조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히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결함,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삶의 만족도 등에서 낮게 나오는 이유는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행복의 내적 요인인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공동체 의식의 부족 -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환경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환경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과 어울림이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결과임
삶의 만족도 - 성공 지향적 교육이 아닌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교육 환경과 관련됨

■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등급: ①, ②, ③, ④을 정확히 수행하고, 특히 ④를 서술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논증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적절히 기술했지만, 체계적인 논증력과 표현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적절히 기술했지만, ①, ②, ③과 ④의 논리적인 연결이 다소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①, ②, ③과 ④의 논지와의 논리적인 연결도 미흡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의 요약이 부실하고, ④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결론을 충실히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의 요약이 부실하고, ④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결론을 충실히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의 요약이 모두 부실하고, ④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결론을 충실히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의 요약이 모두 부실하고, ④에 대한 이해에 실패한 경우
9등급: 답안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혹은 분량이 1,100자를 넘는 경우

7.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나>는 각기 GDP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불합리한 모순과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말한다. 먼저 <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GDP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GDP 속에는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알콜, 마약, 외설물 등과 같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것 또한 시장의 상품으로 표시될 수 있는 한에서 모두 포함된다. 이것은 곧 GDP가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행복이란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적 가치관인데, 왜냐하면 외부 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이유는 이 내적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건강, 성격 등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후천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그림 포함)는 적지 않은 GDP(세계 11위)와 1인당 국민 소득(28위)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그림 2)가 보여주듯이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는 현저히 낮은 공동체적 결합과 소득의 불평등 및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계된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사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GDP에 비례해서 국민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제시문 <가>가 설명하고 있는 GDP의 허구성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GDP란 결코 삶의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림 1)에서처럼 높은 GDP와 그에 상응하는 높은 행복도를 보여주는 유럽의 나라들도 있다. 그것은 그들 국가의 국민계정 속에는 부정적 요소가 가능한 적게 포함되리라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특히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공동체적 삶과 소득 및 삶의 만족도 등에서 현저히 낮은 행복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의 부족하다는 것은 가치관의 구성요인 중 한국의 문화 환경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 환경이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지향적 교육이라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득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사회 환경이 상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4. 문항카드 ④ <인문계열 2교시 계열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2교시 계열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단절과 소통, 타자와 만남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가>

우리는 건설하지 않는다. 우리는 파괴한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선언하지 않는다. 우리는 낡은 허위를 폐지한다. 현대인은 그저 다리를 놓을 뿐이다. 다른,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미래의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갈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볼지 모르겠다. 이쪽 강변에 언제까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점 없는 반동으로 구원받기보다는 혁명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 낫다. 혁명의, 위대한 사회변혁의 종교만이 내가 너에게 전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종교다. 너의 세대가 되면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라. 거기에서는 일찍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사랑했으니 아마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인간의 이성과 개인의 자유, 우애와 맹세하고 너의 여행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1855년 런던 교외의 자택에서 열린 신년 축하 모임에서 게르첸(A.I. Gertsen)은 인사말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인사말이 끝났을 때 아들 알렉산드르는 울음을 터뜨리며 게르첸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초청객들 대다수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자신들의 고국 생각에 잠겼다. 게르첸 자신도 초청객들도 고국에서 쫓겨난 망명자였던 것이다.

서두에 인용한 게르첸의 말은 조선 민족의 앞선 세대가 우리들에게 남긴 말과 상통한다.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중국에서,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차세대에 기탁하고 세상을 떠났던가. 1970년 20살 대학생이었던 나는 이 말을 아들의 입장에서 읽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을 읽고 있다. 물론 나 자신이 게르첸처럼 살아왔다는 오만한 감정은 없다. 오히려 내가 받은 감명에는 쓴맛이 섞여 있다. 그것은 '흐르는 세월의 잔혹성'이라는 맛일지도 모르겠다. 뛰어난 역사가만이 지닌 얼음 같은 냉철함으로 카(E.H. Carr)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아들 알렉산드르에게 끼친 그 신년 축하 모임의 감동적인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세상의 여느 자식들처럼 그도 부친의 신들을 숭배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는 부친처럼 앞뒤 재지 않는 낭만적인 1830년대의 공기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영국 빅토리아조의 견실한, 들뜬 1850년대에 성장했다. 혁명도 그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도 지도 위에서 보는 하

나의 명칭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결코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 어는 점차 그의 집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일조선인 1세와 2세, 2세와 3세 간에 새겨진 단절의 얘기로 읽을 수도 있다. 아니 재일조선인만이 아니다. 게르첸 부자의 예는 이미 19세기 중반이라는 시점에서 그 이후의 근대 디아스포라 모두에게 공통되는 세대 단절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 토니오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흐려졌다. 그들 둘이서 오늘 오후에 잠시 함께 산보를 하자고 했던 사실을 한스는 잊었단 말인가? 한스는 그것이 이제야 비로소 생각났단 말인가? 그런데 그 자신은 그 약속을 한 이래로 거의 잠시도 잊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고대해오지 않았던가! 사실 토니오 크뢰거는 한스가 그들 둘이서 하는 이 산보에 자기가 생각하는 절반만큼의 비중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문제는 토니오가 한스를 좋아하고 있었고 한스로 인해 벌써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는 사실이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는 패배자이며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박하고도 가혹한 교훈을 열네 살 난 영혼은 이미 삶으로부터 터득하고 있었다.

"난 요즘 놀라운 것을 읽었어, 뭔가 굉장한 거야!"

하고 토니오가 말했다. 둘은 걸어가면서, 뮐렌 가에 있는 이버젠 씨의 가게에서 10페니히를 주고 산 한 봉지의 과일 사탕을 나눠먹고 있었다.

"한스, 너도 그걸 읽어봐라. 그건 실러의 『돈 카를로스』라는 작품이야. 내 그 책을 빌려줄게, 네가 원한다면 …."

"아냐, 그만 둬, 토니오!"

하고 한스가 말했다.

"그건 내겐 어울리지 않아. 난 계속 말[馬]에 관한 책이나 읽겠어. 너도 왜 알잖아, 거기에는 근사한 사진들이 정말 많단다!"

… (중략) …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쓰는 모든 작품이 인쇄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돼도 그것이 한스에게 아무런 감명을 주지 않을지 두고 볼 일이다. 하긴 그래도 아무런 감명도 주지 않을 것이다. 주지 않고말고! 그게 사실이다.

그리고 설령 내가 아홉 개의 교향곡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최후의 심판'을 순전히 혼자서 이룩해 내었다손 치더라도, 너는 영원히 나를 무시할 권리가 있다. 내 머릿속에는 내가 오랫동안 새로 기억해 낸 적은 없지만 내게 아주 친숙하고 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서로 통하는 시행(詩行) 하나가 떠올랐는데, '난 잠이 오는데, 넌 춤을 춰야겠다는구나.'가 그것이었다. 나는 이 시행에서 뜻하고 있는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다> 타자(他者)는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용해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레비나스(E. Lévinas)가 말하는 타자는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나의 삶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자로 남아 있다. 타자의 출현은 단지 친밀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타자는 나에 대해서 완전한 외재성이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이다. 자아는 그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타자로부터도 자기성을 분리함으로써 스스로 개별적인 자기성을 확립할 수 있다.

한편 타자는 이 세계에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추구하는 나의 이기심을 꾸짖고, 타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기 자신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것은 타자 속에서 나를 상실해 버리는 소외 현상을 가져오지 않는가? 레비나스는 이 물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타자는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침입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벗어나 외부로의 초월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비나스는, 타자는 인간에게 새로운 존재 의미를 열어 주고 지배 관계를 벗어나 서로 섬기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존재라고 본다. 내가 타자를 영접하고 대접할 때, 타인의 존재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일 때, '환대(歡待)로서의 주체성'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환대를 통한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는 무엇보다 타자의 입장에 서 보는 상상력을 요구한다.

2. **<가>와 <나>에 드러난 문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다>의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참조하여 <가>에 나타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 인문계열 2회차 논술문제는 타인과의 소통, 차이와 단절을 그 중심주제로 삼고 있다. 나와 다른 타자의 생각, 가치관, 성향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세우고 타자를 환대하는가를 지문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문제이다.
-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동년배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의견의 차이와 역사적 상황의 차이, 성향과 기질의 차이를 어떻게 서로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타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검증하고 파악하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2)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 및 현대적 의의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발생 배경과 특성,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이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인격을 닦고 타인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동양 및 한국 윤리 사상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토론한다.(34쪽~38쪽)</td><td>제시문 <가>, 제시문 <나> 문제2</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
(다)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다양한 윤리 이론들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윤리 이론들을 적용하여 윤리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윤리 이론들(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배려 윤리, 책임 윤리, 담론 윤리)의 강조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윤리 이론들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탐구한다.(40쪽~43쪽)</td><td>제시문 <가>, 제시문 <나> 문제2</td></tr>
</table>
2. 사회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사회</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 사회를 바라보는 창
(가) 개인 이해
인간은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존재이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이해하여, 시민 사회에서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4쪽)</td><td>제시문 <가> 문제2</td></tr>
<tr><td>성취기준 2</td><td>(2) 공정성과 삶의 질
(나) 다양성과 관용</td><td>제시문 <가>,</td></tr>
</table></td></tr>
</table>

	①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간과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문화, 종교 갈등, 학교 폭력 등)를 파악한다. ②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 인정이 필요한 상황(지역, 인종, 계층 등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 ③ 다문화 사회(지역, 인종과 민족, 성, 계층, 장애 등 고려)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8쪽)	제시문 <나> 문제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혁명가의 생애」	서경식	한겨레신문	2007	2007.1.5.	제시문 <가>	×
「토니오 크뢰거」(『토니오 크뢰거』)	토마스 만	민음사	1998	8～102	제시문 <나>	○
「레비나스의 철학」(『시간과 타자』)	강영안	문예출판사	1996	141～150	제시문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2013	19～67	제시문 <가>	×
고등학교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14	12～24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2013	66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1. 각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서경식의 칼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혁명가의 생애」(『한겨레』, 2007.1.5.)에서 발췌

제시문 <가>는 재일 디아스포라 논객이자 에세이스트인 서경식 교수의 칼럼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러시아의 혁명가인 게르첸과 그 아들 알렉산드르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 간 단절문제를 재일 조선인 세대 사이의 단절과 겹쳐서 사유한다. 혁명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바친 게르첸 세대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들 알렉산드르는 혁명 같은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신세대에 해당한다. 서경식의 글은 이런 세대론적, 역사적 차이를 재일 조선인이 마주한 세대론적 갈등과 연결시킨다. '흐르는 잔혹성'으로 표현되는 세대론적

차이와 각자 세대가 마주한 역사적 체험의 차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 않은 일종의 숙명적인 굴레이자 문화사적 조건일 것이다.

제시문 <나> : 토마스 만의 중편소설 「토니오 크뢰거」(안삼환 역, 『토니오 크뢰거』, 민음사, 1998)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나>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 토마스 만의 자전적 예술가 소설인 「토니오 크뢰거」를 발췌한 후에 재구성한 지문이다. <나>에는 소설의 주인공 토니오와 친구 한스 사이의 단절과 차이의 감각이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문학작품 읽기를 좋아하는 토니오와는 달리 친구 한스는 실러로 대변되는 문학에 관심이 없으며 말[馬]에 대한 그림보기를 좋아한다. 토니오가 아무리 저명하고 탁월한 작가가 되더라도, 그런 세계에 관심이 없는 한스에게는 토니오의 명성이 무관심의 대상이다. 서로 취향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토니오가 독백한바 "난 잠이 오는데, 넌 춤을 춰야겠다는구나"는 이러한 성향의 차이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토니오와 한스 사이에 존재하는 관심과 취향의 차이는 제시문 <가>와는 달리 역사적, 세대론적 문맥이 소거된 동년배 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취향과 기질의 차이에 가깝다.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하고, 나와 타자 사이의 다름에 대해 사유하는 과정은 한 사람이 온전한 주체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통과제의(通過祭儀)라고 하겠다.

제시문 <다> : 강영안의 「레비나스의 철학」(『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다>는 '타자의 철학'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을 해설한 강영안 교수의 저서 『시간과 타자』에 수록된 글 「레비나스의 철학」을 발췌·재구성한 글이다. <다>에서는 '타자'에 관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게 포섭될 수 없는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타자)은 내 삶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체와 타자 사이의 존재하는 차이를 흔쾌하게 인정하면서, 타자를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타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자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타자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할 수 있을 때, 각자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타자의 존재는, 주체에게 새로운 존재 의미와 지평을 열어주는 소중한 등불이다.

2. 논제의 구성

2회차 인문계열 논술의 주제는 '타자와 주체', '소통과 단절'이다. 주체의 성숙, 곧 진정한 주체가 된다는 것은 타자와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 타자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사유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한 주체는 자신의 고유한 개별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체의 성숙과정에서 타자와의 만남은 필수적인 통과제의라고 할 수 있다. 타자의 세계관, 역사의식, 취향. 기질과 자신의 그것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한 주체는 그만의 고유한 개별성을 지닌 진정한 주체로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한 주체에게 있어서, 자기와 다른 타자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보는 과정은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탈피하여 세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주체의 성숙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타자와의 차이를 어떻게 자기 인식의 성숙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글쓰기를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논제는 아래와 같다.

<가>와 <나>에 드러난 문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다>의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참조하여 <가>에 나타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3.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첫째, 답안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2)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3)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와 <나>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2) <다>에 드러난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도출하는 것
3) 2)에서 수행된 내용을 활용하여 <가>에 등장하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서술하는 것

■ 이 논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답안 구성 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논리적이며 명료한 언어로 서술해야 한다.

▲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파악

1) 공통점
- 서로 간의 차이와 단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관심의 다양성과 상대성이 드러나 있다.
- 어떤 사람(세대)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타자에게는 대단히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표출되어 있다.

2) 차이점
- <가>에 드러난 차이는 역사적이며 세대론적 문맥이 개입되어 있다. 이에 비해 <나>에 드러난 차이는 개인적인 취향과 기질, 관심의 문제에서 연유한다. <나>에는 역사적인 문맥이 소거되어 있다.
- <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지는 세대론적 문제이나, <나>는 동년배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가>는 차이를 발생한 원인과 그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현상에 대한 수동적인 추인과 묘사에 가깝다.

▲ <다>에서 제시된 '타자'에 관한 두 가지 논리 파악

1)
-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게 포섭될 수 없는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 상대방(타자)은 내 삶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주체와 타자 사이의 존재하는 차이를 흔쾌하게 인정하면서, 타자를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 타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자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타자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
- 서로의 입장을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해야 한다.
- 타자는, 주체에게 새로운 존재 의미와 지평을 열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 <다>의 논리를 활용하여 <가>에 나타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함

1) <다>의 첫 번째 논지를 활용한 답 내용
- 아버지와 아들 세대는 서로의 차이점과 각자가 처해 있는 다른 역사적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상대방 세대가 내 삶의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한 관계라는 생각으로 타자(상대방)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2) <다>의 두 번째 논지를 활용한 답변 내용
-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의 입장에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해야 한다.
-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열어주는 소중한 타자가 되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1.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2. 제시문 <가>와 <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3. 답변에 제시문 <다>의 '타자'에 관한 첫 번째 논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4. 답변에 제시문 <다>의 '타자'에 관한 두 번째 논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5. 국어정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장이 정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만점을 9점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1,2,3,4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5번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평점을 매긴다. **제 1부분 (2점 만점) :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 파악 (2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 두 제시문 모두 서로 간의 차이와 단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관심의 다양성과 상대성이 드러나 있다. - 어떤 사람(세대)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타자에게는 대단히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표출되어 있다. 2점: 위에 서술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풍부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1점: 위에 서술된 내용의 문장이나 구절의 일부가 평범하게 기술되어 있음 0점: 전체적으로 공통점의 파악에 실패한 답안 **제 2부분 (2점 만점) : 제시문 <가>와 <나>의 차이점 파악 (2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 <가>에 드러난 차이는 역사적이며 세대론적 문맥이 개입되어 있다. 이에 비해 <나>에 드러난 차이는 개인적인 취향과 기질, 관심의 문제에서 연유한다. <나>에는 역사적인 문맥이 소거되어 있다. - <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지는 세대론적 문제이나, <나>는 동년배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가>는 차이를 발생한 원인과 그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현상	등급 표기

에 대한 수동적인 추인과 묘사에 가깝다.

2점: 위에 서술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풍부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 **역사적 문맥의 개입 여부 차이가 반드시 서술되어야 2점을 부여함**)
1점: 위에 서술된 내용의 문장이나 구절의 일부가 평범하게 기술되어 있음
0점: 전체적으로 차이점의 파악에 실패한 답안

제 3부분 (2점 만점) : 답변에 제시문 <다>의 '타자'에 관한 첫 번째 논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2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상대방 세대가 내 삶의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 세대는 서로의 차이점과 각자가 처해 있는 다른 역사적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한 관계라는 생각으로 타자(상대방)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2점: 위에 서술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풍부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첫 번째 기술된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상대방 세대가 내 삶의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와 유사한 구절이 있어야 2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1점: 위에 서술된 내용의 문장이나 구절의 일부가 평범하게 기술되어 있음
0점: 전체적으로 질문의 취지 파악에 실패한 답안

제 4부분 (2점 만점) : 답변에 제시문 <다>의 '타자'에 관한 두 번째 논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2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의 입장에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해야 한다.
-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열어주는 소중한 타자가 되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2점: 위에 서술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풍부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1점: 위에 서술된 내용의 문장이나 구절의 일부가 평범하게 기술되어 있음
0점: 전체적으로 질문의 취지 파악에 실패한 답안

◎ 이상의 네 가지 항목(각 2점)과 다섯 번 째 항목 <국어정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장이 정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1점)을 합하면 9점이 만점이다. 채점 시 등급은 아래와 같다.

9점: 1등급
8점: 2등급
7점: 3등급
6점: 4등급
5점: 5등급
4점: 6등급
3점: 7등급

	2점: 8등급 1점: 9등급 0점: 9등급 ※ 참조사항: 전체적으로 문장력이 뛰어나거나, 논지의 구성이 탁월한 경우, 혹은 오랜 독서 경험과 인문학적 소양이 분명하게 감지되는 경우, 제시한 평가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전공 교수님들 간의 합의와 재량에 따라 점수를 다소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 예시 답안

이 논제는 타인과의 소통, 차이와 단절을 그 중심주제로 삼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혁명가이자 망명가인 게르첸 세대와 아들 세대 사이의 단절이 화두다. 모든 인생을 걸고 혁명에 투신한 게르첸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들은 혁명에 어떤 관심도 없다.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현저히 다른 것이다. 이 점은 제시문 나)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문학작품 읽기를 좋아하는 토니오와는 달리 친구 한스는 실러로 대변되는 문학에 관심이 없으며 말[馬]에 대한 그림보기를 좋아한다. 토니오가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되더라도, 그런 세계에 관심이 없는 한스에게는 토니오의 명성이 무관심의 대상이다. 서로 취향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토니오가 독백한바 “난 잠이 오는데, 넌 춤을 춰야겠다는구나”는 이러한 성향의 차이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두 예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차이에는 역사적 배경과 세대론적 문맥이 개입되어 있다. 한 개인의 취향보다는 특정한 세대가 마주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그 차이를 생성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에서 드러난 차이는 동년배(친구)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 차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롯되는 관심과 기질,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 문맥이 소거되어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게 포섭될 수 없는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타자를 환대하며 타자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제시문 가)의 아들과 아버지 세대의 관계에 적용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흔쾌하게 인정하면서, 그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즉 상대방은 내 삶의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의 입장을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해야 한다. 상대방, 곧 타자의 존재와의 만남에 의해 각자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타자의 존재, 즉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열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2-5. 문항카드 ⑤ <인문계열 3교시 공통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3교시 공통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독서와 문법
	핵심개념 및 용어	다문화사회, 대중매체, 외국인범죄, 일탈행동, 차별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공 통 문 항

<가> 민주주의에서 숭상해 마지않는 여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리프먼(Walter Lippmann)에 따르면, 흔히 여론으로 간주되는 것은 번쩍이는 이미지들의 결합, 표피적인 인상,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편견, 이기심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사람들의 세계와의 접촉은 간접적인 것이며, 그들은 무작위로 사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가 요구하는 스테레오타입에 따라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흔히 '정형화'로 번역되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용어는 인쇄에서 '연판인쇄(鉛版印刷)'를 가리키는 말인데, 리프먼이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각과 정의를 표준화시키는 데 있어서 폭넓게 공유된 기대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리프먼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보고 나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정의를 먼저 내리고 나서 본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적합한 현실만을 만들어 내며, 그것이 바로 '우리 머릿속의 그림(the pictures inside our heads)'이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인 것이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멀고, 일련의 이미지와 픽션들로 구성된 '유사환경(類似環境, pseudo-environment)'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과 이야기, 사진, 신문의 설명,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성한 허구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실제 환경이 아니라 유사환경을 구성한다. 그런 유사환경이라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리프먼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언급하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등 뒤에 불빛을 둔 채 묶여 있고 그들이 보고 있는 벽에 투영된 그림자들이 실제 모습들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세계를 하나의 그림자나 혹은 상(像)으로 이해한다. 이는 평균적인 시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나>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필요로 한다.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 진술은 범죄의 기능에 대한 뒤르켐(Emile Durkheim)의 주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뒤르켐에 의하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은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도덕을 강하게 공유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사회의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그 사회의 도덕적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범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통해 도덕과 규범의 원리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는 범죄와 일탈을 필요로 하고, 범죄와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사회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려 하는데, 베커(Howard S. Becker)는 그들을 국외자(outsiders)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국외자란 "타인들에게 일탈자라고 판정되어 집단의 정상적인 구성원들

의 모임 밖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국외자에 대한 판정은 권력을 지닌 사회집단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본다. 따라서 보통 그 사회에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국외자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이방인은 외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우리의 도덕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이 매우 강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간주되고 정치적 영향력도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경우에 이들을 국외자로 지목하려는 사회적 음모는 한층 더 강력해질 것이다.

<다> OOOO년 O월 O일, A시(市) OO산 등산로에서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끔찍한 범행 수법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했다. 일주일 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살인 및 사체훼손죄의 용의자로 검거되었다.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벌인 일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후 모든 언론에서는 연일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몇몇 방송국에서는 긴급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급증하는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사건의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각종 SNS에서는 외국인 범죄 괴담과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글과 댓글들이 넘쳐났다.

같은 달 O일, A시는 범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범죄 예방 대책은 A시 내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한 현황 제시로부터 시작된다. 현황 도표에서는 A시 내 동별 주민등록 인구와 체류 외국인의 통계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을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이라고 공포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이 왜 '우범'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져요." 지난 O월 O일 '시민과의 열린 대화' 자리에서 A시의 시장이 한 말이라고 한다.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는 곳이니 범죄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일까. 그저 시장의 말을 통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우범' 지역 사이의 관계를 추측해볼 따름이다.

A시가 내놓은 예방대책은 어떠한가. 우선 각 동의 통·반장으로 구성된 주민 신고망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지역 안전 불안요소에 대한 주민 신고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 내 불법 체류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예방 대책에는 지역 공인중개사의 수입 감소, 지역민의 임대 수입 감소와 같은 내국인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만이 예상되고 있었다. 범죄 대책 어느 곳에서도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우려는 찾아 볼 수 없었다.

1. <가>와 <나>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다>에 나타난 A시와 언론의 반응을 비판하시오(<표 1>을 활용하되, A시의 범죄율은 전국 범죄율과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1,000±100자)

<표 1> 전국 내국인과 체류 외국인의 범죄건수 및 범죄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범죄(발생건수)	2,020,209	1,784,953	1,752,598	1,793,400	1,857,276
내국인(건수)	1,998,974	1,765,508	1,727,091	1,770,486	1,832,292
외국인(건수)	21,235	19,445	25,507	22,914	24,984
국내인구(만명)	4,918	4,941	4,977	5,000	5,022
체류외국인(만명)	117	126	140	145	158
내국인범죄율(A)*	4,064	3,573	3,470	3,541	3,649
외국인범죄율(B)*	1,817	1,542	1,828	1,586	1,585
B/A	44.7%	43.1%	52.7%	44.8%	43.4%

*범죄율: 10만 명당 피의자수

[출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5), 체류외국인 통계연보; 경찰청(2015), 범죄유형별 외국인 범죄현황]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객관적인 실제를 반영하지 않고 편견에 취약한 여론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점과 외국인을 국외자이자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게끔 만드는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A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의 반응과 A시의 차별적인 외국인 범죄 방지 대책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도록 구성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사회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사회</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2) 공정성과 삶의 질
(나) 다양성과 관용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성이나 다문화를 단순히 인종이나 민족 문화의 차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간과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문화, 종교 갈등, 학교 폭력 등)를 파악한다.(8쪽)
②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 인정이 필요한 상황(지역, 인종, 계층 등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8쪽)
③ 다문화 사회(지역, 인종과 민족, 성, 계층, 장애 등 고려)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8쪽)</td><td>제시문
<나>
<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사회·문화</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2)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이해한다. 아울러 일탈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 여러 가지 사회화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징과 기능을 이해한다.
㈑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td><td>제시문
<나>
<다></td></tr>
<tr><td>성취기준 2</td><td>(3) 문화와 사회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각 사회마다 문화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도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임을 파악한다. 또한 문화가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한다. 아울러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특히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을 비판적 안목으로 파악하고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101쪽)
㈏ 기술, 언어, 상징, 예술, 가치, 규범 등 다양한 문화의 요소와 그 기능을 파악한다.(101쪽)
㈐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화 및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101쪽)</td><td>제시문
<나>
<다></td></tr>
</table></td></tr>
</table>

	㈑ 지역 문화, 세대 문화, 반문화 등의 하위 문화와 대중 문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파악한다.(101쪽) ㈒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이해하고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101쪽) ㈓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한다.(101쪽)	
성취 기준 3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시각을 이해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한다.(101쪽)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101쪽)	제시문 <나> <다>
성취 기준 4	(5)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가족, 교육, 대중 매체, 종교 등의 사회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 제도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기능들을 파악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 제도들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 사회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 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본다.(102쪽) ㈑ 대중 매체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대중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102쪽)	제시문 <가> <나>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5) 문화와 윤리 ㈑ 다문화 사회의 윤리 지구촌 시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다문화적 시민의식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즉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윤리의 문제,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범위와 한계, 다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등의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과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①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윤리의 문제(12쪽) ② 다문화에 대한 존중 및 관용과 한계(12쪽) ③ 다문화와 문화적 정체성(12쪽)	제시문 <나> <다> 문제1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3) 서양 윤리 사상 ㈐ 이상주의 윤리와 현실주의 윤리 고대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세계관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플라톤 윤리 사상의 특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주의와 덕 윤리의 특징을 조사하고, 각각 서양 윤리 사상에 끼친 영향을 토론한다. ① 플라톤의 윤리 사상(23쪽)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23쪽) ③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서양 윤리 사상에 끼친 영향(23쪽)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4) 사회 사상 ㈏ 개인과 자율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권리와 의무 및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관용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국가 중립성 논의 포함)(25쪽) ②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상호 보완성(25쪽) ③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관용의 중요성과 갈등 해결의 바람직한 방법(25쪽) ㈐ 공동체와 연대	제시문 <나> <다> 문제1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①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 형성 기능(구성적 공동체)(26쪽)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26쪽) ③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26쪽)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성취 기준 1	(18)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추론적 독해를 위해서는 글의 표면적 단서인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해 나가면서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 광고문이나 정치 담화문, 시사평론(시평, 칼럼) 등에는 필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글의 의도나 목적, 주제 등을 숨겨 놓을 수 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도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표제, 기사의 위치, 관련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등을 달리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추론적 독해 능력을 길러 글에 담긴 의도나 숨겨진 주제, 필자의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문제1
성취 기준 2	(19)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글에는 필자의 주장과 의견, 정보, 사실 등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타당성이란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나 의견과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공정성이란 필자가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료의 적절성이란 필자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한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정보 수준으로 구조화하여 제시되어 있는가와 관련된다.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이와는 다른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제시문 <가> <나> <다> 문제1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여론	월터 리프먼	까치	2012	12	제시문 <가>	O
미국사 산책 5: 혁신주의와 '재즈시대'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10	226-227	제시문 <가>	O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신동준	형사정책연구	2012	192-193	제시문 <나>	O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 [공변의 변]			제시문 <다>	O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5	4	<표 1>	O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	박윤진 외 5인	지학사	2015	68-73	제시문 <나><다>	O
사회	류재명 외 10인	천재교육	2014	192-197	제시문 <나><다>	O
사회·문화	강운선 외 5인	미래엔	2016	57 123 150-152 192 82-83 192-196	제시문 <가><나><다>	O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11명	미래엔	2016	212-215 268-269	제시문 <나><다> 문제1	O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9명	천재교육	2016	133-134 201-203	제시문 <가><나><다> 문제1	O
독서와 문법	이도영 외 6명	창비	2015	216-223 224-233	제시문 <가><나><다> 문제1	O

5. 문항 해설

1. 논제의 구성

본 문항은 세 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었다.
<가>는 월터 리프먼의 『여론』을 소개하는 두 개의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여론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현실과 허구가 혼재된 유사환경이자 스테레오타입이며 편견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나>는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국외자에 관한 뒤르켐과 베커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을 지닌 사회집단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국외자로 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는 A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다룬 블로그의 글로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A시의 대책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1>은 2015년에 발표된 통계자료로서 외국인 범죄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되었다.

이 문항의 논제는 "<가>와 <나>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다>에 나타난 A시와 언론의 반응을 비판하시오"(<표 1>을 활용하되, A시의 범죄율은 전국 범죄율과 유사하다고 가정한다.)이다.

2. 각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월터 리프먼, 「여론」(까치, 2012 에서 발췌 후 재구성), 강준만, 「미국사산책 5: 혁신주의와 '재즈시대'」(인물과 사상사, 2010 에서 발췌 후 재구성)
<가>는 월터 리프먼의 『여론』을 소개하는 두 개의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여론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현실과 허구가 혼재된 유사환경이자 스테레오타입이며 편견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 <나> : 신동준,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형사정책연구, 2012 에서 발췌 후 재구성)
<나>는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국외자에 관한 뒤르켐과 베커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을 지닌 사회집단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국외자로 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다> : 소라미,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 [공변의 변]』, 에서 발췌 후 재구성)
<다>는 A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다룬 블로그의 글로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A시의 대책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 답안 구성요소**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와 <나> 각각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둘째, <가>와 <나>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요약하고 있는가? 셋째, <가>와 <나>를 통해 <다>의 상황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는가? 넷째, <표 1>에 나온 통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가? 답안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가>와 <나>의 논지: <가>에 따르면 여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 등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들은 것들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머릿속의 그림이자 유사환경이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여론은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으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편견을 통해 보게끔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나>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통합을 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의 권력자들에 의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일탈자인 국외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나>는 동질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와 구별되는 외국인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국외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가>에서는 여론이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스테레오타입이자 편견일 수 있음을 <나>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사회의 일탈자로 규정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② <가>와 <나>의 통합적 이해: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가>와 <나>를 각각 <다>에서 나타난 언론의 보도태도와 A시의 대응으로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와 <나>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의 문제 상황을 발생시키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외국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구성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은 다시 외국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간주하게끔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며, 이는 다시 외국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킨다.	등급 표기

③ <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가>와 <나>에 의한 비판: <다>에 나타난 언론의 반응은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하나의 살인사건을 외국인 범죄 일반의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고,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범죄 괴담들과 외국인 혐오감을 부추기는 글들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강화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A시의 반응은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우범지역으로 간주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A시는 범죄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내국인의 피해만을 고려함으로써 외국인을 더욱 더 우리 사회의 국외자들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④ <표 1>의 적절한 활용: <표 1>은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와 그에 근거한 A시의 대책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통계자료이다. 10만명당 범죄피의자수로 산출되는 범죄율을 놓고 보면 조사기간 동안 내국인범죄율이 외국인범죄율을 크게 앞지르며, 외국인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는 언론보도와 그에 상응하는 A시의 대책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외국인 범죄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반응이자 대응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공통문항의 취지에 맞게 답안은 내용과 표현 면 모두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는가
둘째, 답안의 내용이 문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셋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이며 언어 사용이 명확한가
넷째, 문장 구성력과 표현력이 좋은가

■ **채점기준**

위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①, ②, ③, ④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논증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문장과 정서법(正書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제시하였으나, ④가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경우
4등급: ①, ②, ④를 제시하였으나, ③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
5등급: ①과 ②의 논지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 한쪽만을 제시하고, ③, ④를 부분적으로 제시한 경우
6등급: ①과 ②의 논지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 한쪽만을 제시하고, ④를 부분적으로 제시한 경우
7등급: ③, ④는 없고 ①과 ②만을 요약한 경우
8등급: ③, ④는 없고 ①과 ② 중 한쪽만을 요약한 경우
9등급: ①과 ② 중 한쪽도 제대로 요약하지 못한 경우, 답안 분량이 현저히 적거나 분량이 1,100자를 넘는 경우

7.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여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으로서, 편견이 내재된 정형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한다. <나>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통합을 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사회집단에 의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일탈자인 국외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동질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와 구분되는 외국인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국외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고착화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스테레오타입은 외국인들을 잠재적인 일탈자이자 범죄자로 간주하게끔 만든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은 대중매체가 외국인 범죄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다루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다>에서 나타난 A시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과 SNS를 포함한 대중매체의 반응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개별적인 사건을 외국인 전체에 의한 범죄행위로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키고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A시의 반응 또한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을 우범 지역으로 공포함으로써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A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A시의 대책 모두 외국인 범죄를 실제보다 과장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의 기간 동안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에 나타난 A시와 언론의 반응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에 근거한 반응이자,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들을 일탈자로 규정하려는 유혹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2-6. 문항카드 ⑥ <인문계열 3교시 계열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3교시 계열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비유, 소통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가> 글이란 뜻을 드러내면 족하다. 글을 지으려 붓을 들기만 하면 옛말에 어떤 좋은 말이 있는가를 생각한다든가 억지로 경전의 그럴듯한 말을 뒤지면서 그 뜻을 빌려와 근엄하게 꾸미고 매 글자마다 엄숙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사람은, 마치 화공을 불러 초상화를 그릴 때 용모를 싹 고치고서 화공 앞에 앉아 있는 자와 같다. 눈을 뜨고 있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으며 옷의 주름은 쫙 펴져 있어 평상시 모습과 너무도 다르니 아무리 뛰어난 화공인들 그 참모습을 그려 낼 수 있겠는가.

글을 짓는 일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는가. 말이란 꼭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니다. 도(道)는 아주 미세한 데서 나뉜다. 도에 합당하다면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인들 왜 버리겠는가. 이 때문에 도올(檮杌)이 비록 흉악한 짐승이지만 초나라에서는 그것을 자기 나라 역사책의 이름으로 삼았고, 무덤을 도굴하는 자는 흉악한 도적이지만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는 이들을 자신의 역사책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글을 짓는 건 진실해야 한다. … (중략) …

꼭 이명(耳鳴)이나 코골이와 비슷하다.

한 아이가 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왜앵'하고 귀가 울자 '와!'하고 좋아하면서 가만히 옆의 동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 이 소리 좀 들어봐! 내 귀에서 '왜앵'하는 소리가 난다. 피리를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생황을 부는 것 같기도 한데 소리가 동글동글한 게 꼭 별 같단다."

그 동무가 자기 귀를 갖다 대 보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자, 아이는 답답해 그만 소리를 지르며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다.

언젠가 어떤 시골 사람과 한 방에서 잤는데 그는 드르렁드르렁 몹시 코를 골았다. 그 소리는 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휘파람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숨 쉬는 것 같기도 하고, 푸우하고 입으로 불을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글보글 솥이 끓는 것 같기도 하고, 빈 수레가 덜커덩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숨을 들이쉴 땐 톱질하는 소리 같고, 숨을 내쉴 땐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내가 흔들어 깨우자 발끈 성을 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적 없소이다!"

쯧쯧! 어찌 코와 귀에만 이런 병통이 있겠는가! 글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하다. 이명은 병이건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니 병이 아닌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코를 고는 것은 병이 아니건만 남이 흔들어 깨우면 골을 내니 병인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독자가 이 책을 하찮은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처럼 여겨 버리지 않는다면 저 화공의 그림에서 흉악한 도적놈의 험상궂은 모습을 보게 되듯이 진실함을 볼 수 있으리니, 설사 이명은 듣지 못하더라도 나의 코골이를 일깨워 준다면 그것이 아마도 나의 본의(本意)일 것이다.

<나> 미국의 현대 미술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은 흔히 '미술계의 제임스딘'으로 표현된다. 1940년대 후반 그는 바닥에 펼친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붓는, 이른바 '드립 페인팅(Drip painting)'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서양 회화사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미술가다. 그러나 폴록은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환대를 받지는 못했다. '그린다'라는 회화의 고전적 임무를 내팽개친 채 우연성을 강조한 그의 작업 방식은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제스처로 끊임없이 의심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의 무의식과 감성에만 몰두하느라 대상을 화면에서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일반인과 미술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벌려 놓았다는 비판도 늘 따라다녔다.

1950년 11월 20일자 『타임』에는 '빌어먹을 카오스(Chaos, damn it)'라는 제목으로 폴록의 작품에 대한 혹독한 비평의 기사가 실렸다. 폴록의 뿌리기 기법은 완전히 무의미한 혼돈의 극치, 다시 말해 '카오스 그 자체'라는 내용이었다. 평소 평론가들의 냉정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폴록은 다음 달 11일자 같은 잡지에 '카오스가 아니야!, 빌어먹을(No chaos, damn it)'이라는 제목으로 반박의 글을 썼다.

폴록이 사망한 지 40년이 지나 현대 물리학자들은 최신 물리학 이론으로 그의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에 따르면, 폴록의 작품이 '카오스'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카오스'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카오스가 아니다. 모든 자연 현상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특징 중 하나인 '카오스와 프랙털(Fractal)'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반영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잭슨 폴록의 드립 페인팅은 물리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고전적인 시스템이었다. 그는 헛간 바닥에 커다란 캔버스를 깔고 천장에는 길이가 1~2미터 정도 되는 줄로 물감통을 매달았다. 물감통 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감이 흘러내리게 한 다음, 손이나 어깨 혹은 몸으로 물감통을 이리저리 치면서 물감통의 운동을 조절했다. 그러면 물감통에서 흘러내린 물감들이 바닥 캔버스에 알 수 없는 궤적들을 그리게 된다. 그는 추의 주기 운동에 몸으로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무의식적 몸놀림과 물감통의 흔들림이 빚어내는 그 궤적들 속에서 그는 무의식이 발현된 창조적인 이미지가 표현되길 희망했을 것이다.

리처드 테일러(Richard Taylor)는 먼저 컴퓨터로 스캔한 폴록의 그림을 유심히 관찰했다. 폴록의 그림에는 두 가지 요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폴록이 자신의 몸으로 물감통을 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물감이 통에서 흘러내리는 운동이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서로 다른 스케일로 그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것을 통해 폴록이 처음에 굵은 궤적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후, 수많은 자기 유사 구조의 궤적을 통해 그림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듬어 갔다고 주장했다. 폴록의 그림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유사성을 직감적으로 이해한 폴록의 세밀한 계획 하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의 그림 안에는 물감의 점성과 흔들리는 물감통의 속도, 물감을 떨어뜨리는 각도와 높이 등이 만들어낸 정교한 자연의 패턴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다> 한 시인이 "내가 쓴 시가 나온 대입 문제를 풀어 봤는데 작가인 내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가 풀어 본 것은 수능 모의고사 문제였다. 그는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가 모른다면 누가 아는 건지 참 미스터리"라며 쓴 소리를 했다. 작품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 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귓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문제> 교내 축제에서 위의 시를 원작으로 한 무용을 공연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러 명의 무용수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무질서하게 춤을 추도록 합시다.
②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의 길거리가 느껴지도록 세트를 구성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사용합시다.
③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유리벽에 부딪히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면 원작의 내용이 잘 표현될 거에요. **[시인의 정답]**
④ 무대는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하되, 더운 느낌을 주는 조명을 사용하면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⑤ 처음에는 흰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를 등장시키고, 마지막에는 검은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를 등장시키면 주제가 부각될 거에요. **[교육청 정답]**

2. <가>의 '이명'과 '코골이'가 비유하는 바를 풀이하고, 이를 <나>, <다>의 갈등 상황에 선택적으로 대응시켜 그 관련성을 논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 글에 나타난 비유를 예리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고자 함.
- 이 비유가 실질 현장 즉, 창작자와 비평가들의 소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설득] - 설득을 위한 작문 - (24) 독자나 글의 유형에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설득을 위한 글을 쓸 때에는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한다.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이중부정이나 설의법과 같은 표현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비유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39면)	제시문 <가>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성취기준 1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 독서의 방법 - (17)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글을 구성하는 소단위의 내용을 대상으로 글에 나타난 정보의 확인, 그들 사이의 의미 관계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핵심어로서의 화제 파악, 화제와 관련하여 중심이 되는 진술 내용,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문장의 중요도 파악, 문단 간의 관계 등을 통해 사실적 독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54면)	제시문 <나>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작품은 그것이 창작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 시대 상황은 작가가 처한 시대의 한계로 말미암아 저절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작가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작가가 특별히 선택하여 부각시킨 것도 있다. 한국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각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의식, 인물, 배경, 표현 등을 이해하고 이를 감상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 배경을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68면)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연암을 읽는다	박희병	돌베개	2006	383-399	제시문<가>	○(발췌)
과학콘서트	정재승	어크로스	2011	93-108	제시문<나>	○(발췌)
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2009	11월 21일	제시문<다>	○(발췌)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박종호 외 10인	창비	2013	185	제시문<가>	○
고등학교 국어 II	이숭원 외 8인	좋은책신사고	2013	270	제시문<나>	○
고등학교 문학	김윤식 외 4인	천재	2013	258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1. 각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박희병, 『연암을 읽는다』 (박희병, 돌베개, 2006, p.383-399)

제시문 <가>는 박지원(1737-1805)의 「공작관문고자서(孔雀館文稿自序)」를 옮긴 것이다. 현대어 번역은 박희병 교수의 『연암을 읽는다』(박희병, 돌베개, 2006, 383-399면)를 따랐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글을 쓰는 자세에 대해 논하고 있다. 글이란 것은 진실해야 하며, 진실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소재나 표현 방식을 쓴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박지원의 창작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명과 코골이에 대한 비유가 퍽 인상적이다.

이명이란 "내 귀에는 분명히 들리는데 남의 귀에는 안 들리는 현상"이다. 박지원은 이 상황을 "창작자에게는 분명히 감지되지만 독자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현상"과 연결 짓고 있다. 코골이란 "남은 분명히 듣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현상"이다. 박지원은 이 상황을 "독자들에게는 다양한 의미로 들리는데 창작자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과 연관 짓고 있다. 이 두 에피소드를 통하여 창작자의 표현의 어려움과, 독자 비평의 자립성을 존중하고자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실한 글'을 매개로 작자와 독자가 서로 소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글이라 하겠다.

제시문 <나> : 정재승 교수, 『과학콘서트』 (어크로스, 2011, p.93-108)

제시문 <나>는 정재승 교수의 『과학콘서트』(어크로스, 2011, 93-108면.)에 수록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그림에 관한 에피소드를 옮긴 것이다. 폴록은 자신이 감지한 어떤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평가들의 비평은 냉담했다. 그들은 폴록의 그림을 "무질서한 카오스"라고만 여긴다. 그러나 그의 꾸준한 작품 활동, 그리고 비평에 대한 반박 글을 볼 때, 그는 어떤 질서를 감지한 것이 분명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과학자들은 폴록의 그림에서 어떤 질서를 포착한다. 카오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그림 속에는 프렉털 구조가 내재하고 있음을 본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박지원이 말한 이명과 흡사한 점이 있다. '무언가를 들었으나 남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명의 상황'과 '무언가를 표현하였으나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폴록의 상황'은 동일한 상황에 다름 아니다.

제시문 <다> : 『중앙일보』 (2009.11.21. 인터뷰 기사 중)

제시문 <다>는 한 때 회자되었던, 어떤 시인의 쓴소리를 옮긴 것이다. 해당 기사는 『중앙일보』(2009년 11월 21일)에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화되어 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수능 모의고사에 단골로 출제되는 시인의 시(詩)가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 시인이 '참 미스터리한 일'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 교육청이 출제한 해당 작품의 문제에 대한 시인의 답과 교육청의 답을 비교할 수 있게끔 소개하여 두고 있다.

문학작품이 창작자의 손을 떠나면 그 후로는 독자적 자생력을 지니는 것으로 흔히 간주된다. 그렇기에 창작자는

언제든 독자의 비평과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이려는 태도를 지닌다. 그런데 인터뷰의 시인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남의 지적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에만 관심을 보여준다. “내가 쓴 글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작품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층적 의미가 놓여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의미를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작품의 의미를 추출하는 행위 또한 또 다른 작품의 향유 양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코골이를 통하여 작품은 다양한 소리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독자가 들은 것을 “너는 이러이러한 소리를 내며 코를 골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에 대해 펄쩍 뛰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코골이 상황은 위의 시인을 연상시킨다. 작품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는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작품을 읽고 어떤 의미를 포착했는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완고히 부정하는 것과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논제의 구성

이명과 코골이가 비유하는 바를 포착하고 있는가, 이를 제시문 <나>와 <다>에 연관시킬 수 있는가, 연관의 과정이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묻고자 했다.

이명이 비유하는 바는 “내게는 들리는데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창작물로 환원하자면 “창작자에게는 감지되는데 독자(비평가)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현상”이다. 코골이가 비유하는 바는 “남에게는 들리는데 내게는 들리지 않는 것”, 창작물로 환원하자면 “독자(비평가)에게는 감지되는데 창작자 자신은 감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명은 제시문 <나>와 연관된다. 폴록은 어떤 질서를 감지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독자(비평가)의 평가는 냉정했다. 그의 작품은 그저 카오스(무질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폴록이 의도한 바를 읽지 못해 생겨난 평가일 뿐, 폴록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후의 과학자들이 그가 본 것을 결국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폴록의 상황은 이명증을 앓은 아이와 유사하다. 아마 폴록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본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니,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답답하도다.” 이 말은 바로 이명증을 앓던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코골이는 제시문 <다>와 연관된다. 독자는 시인의 시에 어떤 의미가 흐르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나름의 판단에 따라 시를 재해석한다. 그러나 그 해석을 들은 시인은 그런 비평을 부인한다. 그것은 자기의 의도가 아니며, 자신의 의도가 아닌 것을 어떻게 남들이 더 잘 아는 것인지 미스터리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반응은 코골이와 연관된다. 코고는 소리는 남들은 듣고 정작 코를 고는 자기는 듣지 못하는 것인데, 독자들은 다 보는 것을 자신이 보지 못했다며 화를 내는 것은 박지원의 일화 속 인물 ‘코골이’와 흡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이명을 시인의 경우에, 코골이를 폴록의 경우에 연결해서는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다. 얼핏 보면 가능할 듯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술하다 보면 이 둘의 어긋남은 큼을 알게 된다. 우선, 이명과 코골이 모두 창작자는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폴록이나 시인 모두와 연관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명은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점에서 [다]지문의 시인과 교육청과의 갈등과 연관 지을 수 없다. 시인의 의도가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떤 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교육청이 듣고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에게 들리지 않는 이명 증세와 관련짓기 어렵게 된다. 남에게 들리는 것이기에 이는 코골이인 것이다. 그 소리를 정당히 지적하자 화를 낸 것 또한 코골이의 속성에 그대로 부합한다.

한편, 코골이는 남에게 구체적인 어떤 소리를 들리게 한다는 점에서 폴록의 경우와 연관 지을 수 없다. 폴록의 비평가들이 한 것은 폴록의 어떤 소리를 듣고 낸 반응이 아니다. 비평가들의 반응, 난해하다, 질서가 없다 등은 폴록의 소리를 듣고 의도를 나름대로 이해하여 재구성한 결과가 아니라 폴록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그게 무엇이냐? 너는 무슨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 않느냐?’라는 반응일 뿐이다. 코골이와 연관되려면, 비평가들이 폴록의 그림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포착하고 그것에 대해 조목조목 합리적인 비평을 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 제기에 폴록의 완고한 부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글에 나타난 ‘무질서하다(비평가) ↔ 질서가 있다(폴록)’의 갈등은 비평가들이 폴록의 의도를 나름의 시각으로 포착하여 해석한 결과가 아닌, 폴록의 의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황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명 상황에 대응되는 것이다. 어렴풋하게 자연의 질서를 감지했던 것이 나중에 과학자들에 의해 해명된 것은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는 아주 빼어난 비평가가 나타났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지원의 글 마지막에 있는 ‘이명은 듣지 못할지라도’란 말에는 언젠가는 자신의 의도를 알아주는 이가 나타나

기를 기대하는 말인데, 과학자들의 분석은 그것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의 서문에 흔히 쓰는 '언젠가 눈 밝은 이가 나타나 이 글의 속뜻을 알아주기를 기대한다.'는 문장 등과 같은 의도라 볼 수 있다.

다시 요약하면, '창작자의 의도가 속에서만 울리고 타인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이명이라 하고, 밖으로 나온 창작자의 소리가 독자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구체적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을 창작자가 부인하는 경우를 코골이라 한다.'가 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이명과 코골이 상황이 비유하는 바를 포착하고 있는가? 2. 이명을 제시문 <나>에, 코골이를 제시문 <다>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3. 제시문 <나>에서 이명의 속성을 잘 포착하고 있는가? 4. 제시문 <다>에서 코골이의 속성을 잘 포착하고 있는가? 5. 정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장이 정확하고, 단락이 적절한가? ※만점을 9점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3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각 부분의 만점은 3점) **제1부분(3점 만점) : "제시문 <가>에 나타난 이명과 코골이 상황이 비유하는 바를 포착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 3점 : 정확한 정서법을 구사하면서 "이명은 나는 들을 수 있는데 남은 듣지 못하는 상황이고, 코골이는 남은 듣는데 나는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빗대고 있다. 즉,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나 이것이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이명이라 할 수 있고, 독자가 포착한 바가 있으나 이를 작자가 모르고 있는 상황을 코골이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3점 2점 : 위의 내용을 따르고 있지만, 정서법이 부정확하면 2점 1점 : 이명과 코골이 중 어느 하나를 파악 못한다거나, 이명과 코골이가 비유하고 있는 원관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서법에 관계없이 1점 0점 : 위의 취지로 기술하지 않았으면 정서법에 관계없이 0점 **제2부분(3점 만점) : "이명을 제시문 <나>에, 코골이를 제시문 <다>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제시문 <나>의 일화에서 이명의 속성을 잘 포착하고 있는가?** 3점 : 정확한 정서법을 구사하면서 "이명은 제시문 <나>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폴록의 그림은 폴록의 영감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내재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 <가>의 아이처럼 폴록은 자신이 직감한 어떤 질서를 남들에게 말하고 싶었으나 당대로서는 그가 인지한 것을 남에게 쉽게 전달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3점 2점 : 위의 내용을 따르고 있지만, 정서법이 부정확하면 2점 1점 : 정서법이 정확하더라도,	등급 표기

이명과 폴록의 공통점을 기술하지 못한 경우,
이명을 제시문 <다>에 연계시킨 경우,
제3부분의 답안 분량에 비해 볼 때 1/2이 안 되는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점

0점 : 정서법이 부정확하면서 위 1점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부분(3점 만점) : "이명을 제시문 <나>에, 코골이를 제시문 <다>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제시문 <다>의 일화에서 코골이의 속성을 잘 포착하고 있는가?

3점 : 정확한 정서법을 구사하면서 "코골이는 제시문 <다>의 상황과 닮았다. 코를 고는 소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들리듯이, 시 또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소리는 시인은 듣지 못할 수 있지만, 독자나 비평가는 들을 때가 있다. 작품의 잘못이나 다층적 면모 중 어느 하나를 지적하는 비평 활동에 대해 창작자는 그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시인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골이와 닮은 점이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3점

2점 : 위의 내용을 따르고 있지만[작품 해석의 다층성, 시인의 완고한 부정(否定)이 꼭 포함되어야 함], 정서법이 부정확하면 2점

1점 : 정서법이 정확하더라도,
코골이와 시인의 공통점을 기술하지 못한 경우,
코골이를 제시문 <나>에 연계시킨 경우,
제2부분의 답안 분량에 비해 볼 때 2배를 넘기는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점

0점 : 정서법이 부정확하면서 위 1점 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이상 3개의 항에서 맞은 점수를 합하면 0~9점이 나오는데,

9점은 1등급
8점은 2등급
7점은 3등급
6점은 4등급
5점은 5등급
4점은 6등급
3점은 7등급
2점은 8등급
1점은 9등급
0점은 9등급

으로 평가한다.

이외 전체적으로 단락 구성이 적절하거나, 정서법이 매우 정확한 경우, 문장이 정확한 경우 등 많은 독서 경험과 인문학적 소양이 확연히 감지되는 경우 평가자의 재량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 예시 답안

이명은 자신은 어떤 사실을 알지만 남은 모르는 상황, 코골이는 남은 어떤 사실을 알지만 자신은 모르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즉, 작자가 어떤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나 독자들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명이란 병에 빗댄 것이고, 작자가 표현한 어떤 생각의 잘못,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독자가 발견하여 지적함에도 그 지적에 대해 완고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코골이에 빗댄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이명은 제시문 <나>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폴록의 그림은 폴록의 영감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내재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 비평가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의 그림은 그저 '무질서'일 뿐이라고 평한다. 이 상황은 피리소리 같기도 하고 별처럼 동글동글하기도 한 어떤 소리를 남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가>의 아이와 흡사하다. 즉, 내게는 들리는 것이 남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코골이는 제시문 <다>의 상황과 닮았다. 코를 고는 소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들리듯이, 시 또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시는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지만, 자신도 모르는 다른 면모의 소리가 그 시에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소리는 시인은 듣지 못할 수 있지만, 독자나 비평가는 들을 때가 있다. 모의 문제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시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독자의 눈에는 분명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의 갑갑함이 읽힌다. 그 점에서 볼 때 시인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부정한 '물고기가 유리벽에 자주 부딪치는 장면'은, 남들이 보기엔 오히려 시적 흐름에 퍽 잘 어울리는 장면이다. 결국 자신의 작품에서 남들이 들은 어떤 소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완고히 말하는 코골이와 닮은 점이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 두 사례는 창작자가 지닌 의도가 비평가(독자)에게 전달되기 어렵고, 비평가(독자)의 지적이 창작자에게 수용되기 어려운 '소통의 어려움'을 겨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7. 문항카드 ⑦ <자연계열 공통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공통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독서와 문법
	핵심개념 및 용어	빈곤, 개인적 책임, 구조적 책임, 사회구조, 분배적 선호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공 통 문 항

<가> 내가 만난 많은 이십대 대학생들은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모습에는 불쌍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에는 대체로 반대 입장에 섰다. 이유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난의 일차적인 원인이 개인의 노력 부족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좀 더 노력했으면 그런 꼴 안 당했을 것인데, 왜 뒤늦게 이러쿵저러쿵 요구를 하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이십대들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인생을 날로 먹으려는 게으름뱅이나 루저들'이라고 그들은 간주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가는 자기통제형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데는 이십대들의 박탈감과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이십대에게는 수능점수와 그에 기초해서 들어간 대학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어낸 성과에 해당한다. 뭐 그 자체로야 무슨 문제이겠냐마는, 수능점수의 차이가 어떤 차별의 타당한 근거로서 확신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설사 대학이름 때문에 무시받거나 차별받는다 해도 누굴 원망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의 고통에 공감해줄 이유도 없다. 이십대들은 이 '원칙'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십대 대학생들은 '자기계발'이란 단어와 마주하면 당연히 이를 "취업준비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즉, 이들에게 자기계발하기란 당연히 외국어 공부, 학점 관리, 자격증 취득, 인턴, 봉사활동, 공모전 참가, 체력 관리, 외모 가꾸기,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 프레젠테이션 및 스피치 훈련 등을 말한다. 무슨 대외 활동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다양한 세상 경험을 말하지만 이들에게 그것이 선택된 이유는 오로지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한 줄 기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십대들의 모든 '다양한 세상 경험'은 결국에는 취업에 도움이 되리라는 포장을 쓴 채 진열된다. 그렇게 이십대의 자기계발은 취업준비의 다른 말일 뿐이다.

<나> 빈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압력에 기인한다. 빈곤율은 시장에 구직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요동치며, 구직 기회는 수요와 공급의 변덕, 정책 결정자들의 불확실한 의사 결정, 고용주의 채용 관행,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따라 결정된다. 일개 구직자에 불과한 사람들은 직업과 급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이 노동시장 상황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빈곤층이 낮은 임금과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경제 및 정치 권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제경쟁 심화는 기업 경영자들이 투자 전략을 수정하고, 고용관계를 바꾸며, 기업 구조를 재조직함으로써 주로 노동자 계층을 착취해서 기업 수익 향상에 매진하게 만들었다. 기업은 생산 공장을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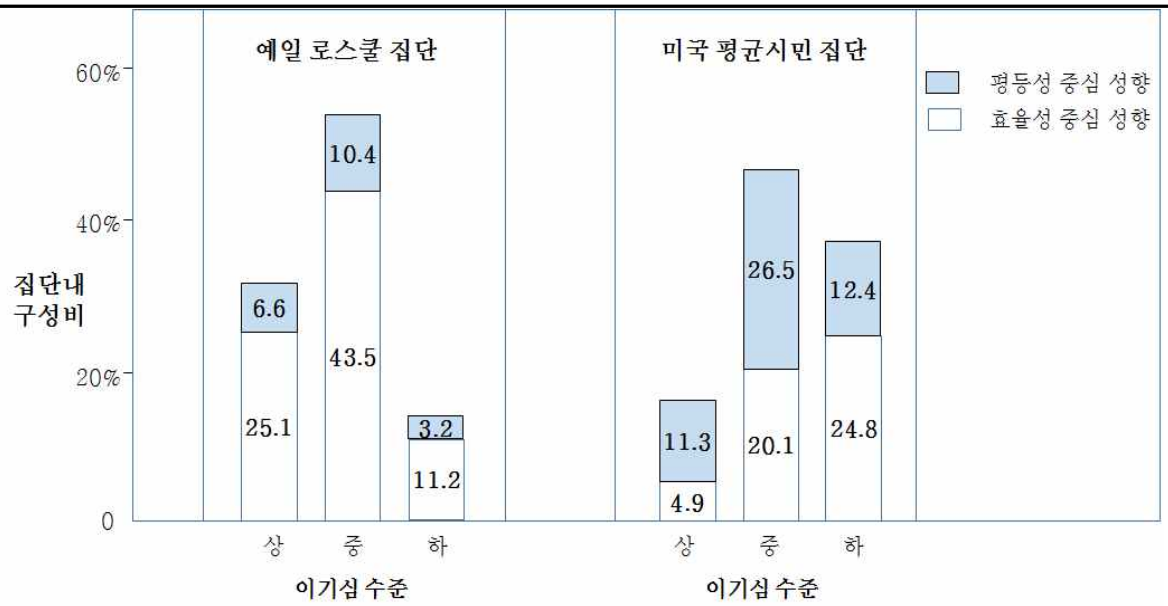
다수의 정규직 직원들을 임시직과 단기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왔다. 이처럼 노골적인 경영 전략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보상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는 산업별 구조와 고용도 변화시켰다. 제조업 부문의 노동자 비율이 급감한 반면 서비스 부문의 노동자 비율은 뚜렷하게 증가했다.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업의 부흥은 오늘날 구직 가능한 일자리의 성격과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 그리고 안전한 미래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서비스업으로 고용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했다.

가난을 퇴치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정치구조 자체가 재분배 개혁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는 대체로 평등주의적 대의를 내세우는 정당의 출현을 억제한다. 삼권분립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제도에서는 정책 수립 자체가 타협과 양보, 수용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저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의 이익에 영합하고, 빈곤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개혁 조치들이 자꾸만 솎아내진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민간 기업은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고, 민간 기업의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운명이 좌우된다. 이런 환경 때문에 정치 권력층은 어쩔 수 없이 기업 엘리트들의 취향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재분배를 위한 과세나 정부 지출에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지도 모르는 행위들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행동경제학의 레이먼드 피스먼(Raymond Fisman) 교수가 주도한 실험결과가 2015년 9월 『사이언스』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 미국 엘리트들의 독특한 성향 및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분배적 선호(distributive preference)는 사회복지의 모든 지표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정책 결정의 모든 영역에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의 분배적 선호는 두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공정심(fair-minded)과 이기심(selfish)의 교환관계이고, 또 하나는 평등성과 효율성 중심 성향의 교환관계이다. 정책 결정자는 그들의 분배적 선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첫째, 그들은 누구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결정하게 된다.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전제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총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는 보다 평등한 소득 배분을 위해서 총소득의 감소를 얼마나 감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피스먼 교수의 연구는 사람들이 경제적 파이를 최대로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파이가 작아지더라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돈(정확하게는 현금 등가물)을 주고서 공정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실험은 2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예일대학 로스쿨 학생으로 3년 간격으로 표본을 세 차례 추출하였다. 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권력계층 또는 영향력 있는 계층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엘리트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연구목적의 패널(ALP: American Life Panel)에서 추출한 표본으로 미국의 다양한 구성원을 나타내는 평균시민집단이다. 이들 두 집단 피실험자들의 분배적 선호를 두 요소(이기심의 수준, 평등성 대 효율성 중심 성향)로 측정한 실험결과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요약되었다.



[그림] 실험 집단 내 분배적 선호별 피실험자의 구성비율 (단위: %)

1. <가>에 나타난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이 관점을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상반된 관점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실증적 자료와의 상호관련성 하에서 심화하여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논제를 구성하였다. 보통 우리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지만, 정부와 기업의 정책 등과 관련된 '구조적 원인'이 '빈곤'을 고착화하고 심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권력층인 엘리트들은 이러한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평등성보다 효율성 중심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본 문항에서 <제시문>은 이와 관련된 세 편의 글로 구성되었다.

<가>는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글이고, 이와 반대로 <나>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 구조에 빈곤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조적 책임'을 강조하는 글이다. 그리고 <다>는 엘리트의 분배적 선호를 통해 평등성보다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권력층의 정책결정 성향을 알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가) 개인 이해 ②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관계 및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4쪽)	제시문 <가>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한다.(85쪽) ㈏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85쪽) ㈑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85쪽)	제시문 <가> <다>
성취 기준 2	(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예측한다.(85쪽) ㈐ 상품의 공급자,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서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한다.(85쪽) ㈑ 재정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효율적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성장 및 안정 등을 추구)을 이해한다.(85쪽)	제시문 <가> <나>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한다.(101쪽) ㈏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101쪽) ㈐ 빈곤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101쪽) ㈒ 사회 복지의 의미와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본다.(101쪽)	제시문 <가> <나> <다> 문제1
성취 기준 2	(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 산업화에 따른 노동 및 인구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원인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102쪽)	제시문 <가>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4) 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 ①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9쪽) ② 사회 구조 및 제도와 윤리(9쪽) ㈏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① 사회 정의의 의미(10쪽) ②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10쪽)	제시문 <가> <나> <다> 문제1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성취 기준 1	(19)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글에는 필자의 주장과 의견, 정보, 사실 등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타당성이란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나 의견과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공정성이란 필자가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료의 적절성이란 필자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한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정보 수준으로 구조화하여 제시되어 있는가와 관련된다.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이와는 다른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54쪽)	제시문 <가> <나> <다> 문제1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개마고원	2013	239	제시문 <가>	O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에드워드 로이스	명태	2015	448	제시문 <나>	O
“The distributional preferences of an elite”	Raymond Fisman, et al.	Science	2015	7	제시문 <다>	O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	설동훈 외 9인	미래엔	2015	16-18	제시문 <가><나><다>	O
경제	박형준 외 5인	천재교육	2015	12-19 53-79		O
사회문화	강운선 외 5인	미래엔	2015	132-145 211-225		O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8인	천재교육	2015	144-147		O
독서와 문법	이도영 외 6인	창비	2015	224-233		O

5. 문항 해설

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가>에 나타난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이 관점을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이 문항에 대해 적절하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① <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파업하는 노동자, 수능점수와 입학 대학, 취업준비, 자기계발 등의 사례들을 문항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이해하였는가

② <나>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빈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기업과 정부의 정책, 선거와 정치 제도 등에 관한 사례들을 문항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이해하였는가

③ <다>의 내용([그림] 포함)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글의 내용을 [그림]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공정심과 이기심의 교환관계’와 ‘평등성과 효율성 중심 성향의 교환관계’의 상호관련성을 문항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엘리트의 분배적 선호를 통해 권력층의 정책결정 성향이 어떠한지를 문항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④ <나>의 관점에서 <다>를 활용하여 <가>에 나타난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적절하게 비판하였는가

또한, 공통문항의 취지에 맞게 답안은 내용과 표현 면 모두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는가
둘째, 답안의 내용이 문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셋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이며 언어 사용이 명확한가
넷째, 문장 구성력과 표현력이 좋은가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위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①, ②, ③, ④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논증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문장과 정서법(正書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제시하였으나, ④가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경우 4등급: ①, ②, ④를 제시하였으나, ③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 5등급: ①과 ②를 비교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 한쪽만을 제시하고, ③, ④를 부분적으로 제시한 경우 6등급: ①과 ②를 비교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 한쪽만을 제시하고, ④를 부분적으로 제시한 경우 7등급: ③, ④는 없고 ①과 ②만을 요약한 경우 8등급: ③, ④는 없고 ①과 ② 중 한쪽만을 요약한 경우 9등급: ①과 ② 중 한쪽도 제대로 요약하지 못한 경우, 답안 분량이 현저히 적거나 분량이 1,100자를 넘는 경우	등급 표기

7. 예시 답안

<가>의 이십대 대학생들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동자에게 느끼는 연민의 감정과는 별개로 그들이 받는 낮은 처우는 능력 부족 때문이기에 그 이상의 요구는 정당하지 못하며, 수능점수와 입학대학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이므로 그로 인한 차별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유추해 보면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낮은 인지능력, 노력 부족, 생산성 낮은 인적자본 때문에 구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얻더라도 저임금의 직업을 얻게 된다. '자기계발'에 그들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믿음도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보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나>는 개인 보다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빈곤의 원인이 있다는 '구조적 책임'을 주장한다. 정규직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세계화와 경기상황, 기업의 경영정책, 고용주의 태도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이런 외부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지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는 정치제도와 권력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자본, 자유, 분권을 기조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는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고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계층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구조적 관점은 빈곤과 권력의 연관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치적·경제적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권력층이기 때문이다. <다>에 나타난 엘리트의 분배적 선호를 통해 권력층의 정책결정 성향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예일 로스쿨 학생이 미국 평균시민에 비해 이기적이고, 평등성 보다 효율성 중심의 성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속한 부유층을 위한 이기적 정책을 펼치게 된다. 효율성 추구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를 저해하고, 효율성 달성으로 얻은 경제적 파이를 저소득층과 나누는 복지에는 소극적이다. 따라서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고착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2-8. 문항카드 ⑧ <자연계열 계열문항>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계열문항] 2-1, 2-1(a), 2-1(b)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핵심개념 및 용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 확률, 직선과 원의 방정식, 공간벡터의 내적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좌석의 수가 100개인 극장에 관객 100명이 차례로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고 하자. 단, 한 좌석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다. 첫 번째 관객은 극장표를 잃어버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 임의로 자리를 선택해서 앉기로 하고, 두 번째 관객부터는 자신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 자리에 앉고 이미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임의로 다른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다고 하자. 이럴 경우 마지막 100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을 구해보자.

일반적으로 n(n은 2 이상인 자연수)명의 관객과 n개의 좌석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n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을 구해보자. 편의상 n명의 관객을 A_1, A_2, $\cdots$, A_n, 이들의 극장표에 적혀있는 좌석을 각각 S_1, S_2, $\cdots$, S_n이라 하고 마지막 n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을 a_n이라 하자. 먼저 $n=2$일 때 그 확률은 $\frac{1}{2}$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a_2=\frac{1}{2}$이다. 이제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a_{n+1}=a_n$임을 보이자. 이것은 마지막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이 관객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관객의 수가 $(n+1)$명이라 하고, 첫 번째 관객 A_1이 S_2 이외의 자리를 선택할 경우와 A_1이 S_2를 선택할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자. 먼저 A_1이 S_2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관객 A_2는 자신의 원래 자리 S_2에 앉게 되므로 두 번째 관객 A_2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객이 n명일 때와 같은 상황이므로 A_1이 S_2를 선택하지 않고 A_{n+1}이 S_{n+1}에 앉을 확률은 $\frac{n}{n+1}a_n$이다. 다음으로 A_1이 S_2를 선택하면, 두 번째 관객 A_2는 S_2를 제외하고 임의로 자리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첫 번째 관객 A_1을 제외하고 두 번째 관객 A_2를 새로운 첫 번째 관객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관객이 n명 있을 때와 같은 상황이므로 A_1이 S_2를 선택하고 A_{n+1}이 S_{n+1}에 앉을 확률은 $\frac{1}{n+1}a_n$이 된다. 따라서 확률 a_{n+1}을 구하면

$$a_{n+1}=\left(\frac{n}{n+1}a_n\right)+\left(\frac{1}{n+1}a_n\right)=a_n$$

이다. 그러므로 관객 100명이 있을 때 100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은

$$a_{100}=a_{99}=\cdots=a_2=\frac{1}{2}$$

이다.

① 한편 첫 두 명의 관객이 극장표를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즉, 첫 번째 관객과 두 번째 관객이 극장표를 잃어버려 그 둘은 차례로 자리를 임의로 선택해서 앉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앉고 이미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임의로 다른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마지막 관객이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이 관객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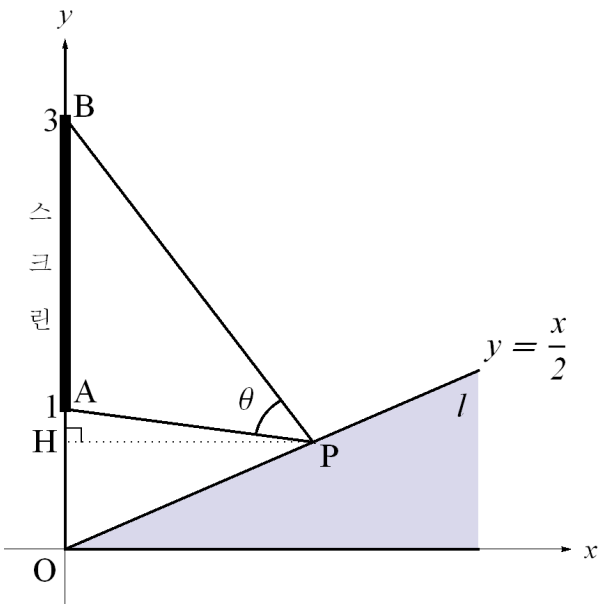
(i) A_1이 S_3을 선택한 경우,

(ii) A_1이 S_3을 선택하지 않고 A_2가 S_3을 선택한 경우,

(iii) A_1과 A_2가 모두 S_3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로 나누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나> 극장에서 스크린이 가장 크게 보이는 자리는 어디일까?



<그림 1>

<그림 1>은 극장을 옆에서 본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스크린은 선분 AB이고 관객의 눈의 위치는 직선 l 위에 있다. $\angle \mathrm{APB}$가 클수록 직선 l 위의 점 P에서 스크린이 크게 보인다고 가정하자. 이제 $\angle \mathrm{APB} = \theta$라 하고 직선 l의 방정식이 $y = \frac{x}{2}(x > 0)$일 때, 각 θ가 최대가 되는 점 P를 구해보자. 여기서 부등식 $0 < \theta < \frac{\pi}{2}$가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

각 θ가 최대가 되는 점 P는 함수 $y = \cos\theta$가 $0 < \theta < \frac{\pi}{2}$에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거나, 함수 $y = \tan\theta$가 $0 < \theta < \frac{\pi}{2}$에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y = \tan\theta$가 $0 < \theta < \frac{\pi}{2}$에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좌표평면 위의 네 점 $\mathrm{O}(0,0)$, $\mathrm{A}(0,1)$, $\mathrm{B}(0,3)$, $\mathrm{P}\left(x, \frac{x}{2}\right)$에 대하여 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angle \mathrm{HPB} = \alpha$, $\angle \mathrm{HPA} = \beta$라고 하자. 이때, θ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좌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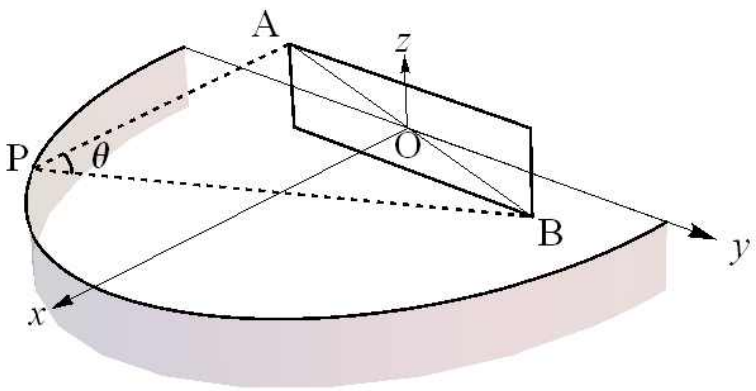
$$\tan\theta = \tan(\alpha-\beta) = \frac{\tan\alpha - \tan\beta}{1+\tan\alpha\tan\beta} = \frac{8x}{5x^2-8x+12}$$

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2-1. **<가>의 ①에서 제시된 증명을 완성하고, 관객의 수가 100명일 때의 확률을 구하시오. 즉, 마지막 n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을 b_n이라 할 때,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b_{n+1} = b_n$임을 보이고 b_{100}을 구하시오.**

2-2(a). **<나>에서 각 θ가 최대가 되는 점 P를 구하고, 이 점 P와 두 점 $\mathrm{A}(0,1)$, $\mathrm{B}(0,3)$을 지나는 원은 직선 $y=\frac{x}{2}$와 서로 접함을 증명하시오.**

2-2(b). **<그림 2>는 극장을 좌표공간 위에 나타낸 것이다. 원형으로 배치된 좌석들 중에서 스크린의 대각선이 가장 크게 보이는 곳을 찾으려고 한다. <그림 2>에서 두 점 $\mathrm{A}(0,-2,1)$, $\mathrm{B}(0,2,-1)$을 잇는 선분을 스크린의 대각선이라 하고 원형의 좌석을 나타내는 xy평면에 놓인 원의 방정식을 $x^2+y^2=16$이라 하자. 관객의 눈의 위치가 이 원 위의 점 $\mathrm{P}(x,y,0)$ $(x>0)$이고 $\angle \mathrm{APB}=\theta$일 때, θ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 그림 2 >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수준의 수리능력을 지닌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지문 2개를 선정하여 그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하였다. 이번 논술 시험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리논술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따라 교과지식의 단독 반복학습과 암기를 통해 습득된 지식을 통해 문제를

풀기 보다는 수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리적 현상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이 검토요원으로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등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가>, 문제 2-1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 - ㈏ 확률 - 1 확률의 뜻과 활용**(69쪽) 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확률과 통계] - ㈏ 확률 - 2 조건부확률**(69쪽) ① 조건부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수학II] - ㈐ 수열 - 3 수학적 귀납법**(61쪽) 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성취기준·성취수준**	**[확률과 통계] - (2) 확률 - (가) 확률의 뜻과 활용**(143쪽) 확통1211/1212.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의 의미와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확률과 통계] - (2) 확률 - (나) 조건부확률**(144쪽) 확통1221. 조건부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수학II] - (3) 수열 - (다) 수학적 귀납법**(109쪽) 수학2331.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제시문 <나>	교육과정	**[수학I] - ㈐ 도형의 방정식 - 2 직선의 방정식**(52쪽) ①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미적분II] - ㈏ 삼각함수 - 1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87쪽) ②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II] - ㈏ 삼각함수 - 2 삼각함수의 미분**(87쪽) ①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성취기준·성취수준	**[수학I] - (3) 도형의 방정식 - (나) 직선의 방정식**(51쪽) 수학1321.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미적분II] - (2) 삼각함수 - (가)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228쪽) 미적2212-1.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간단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미적2212-2.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II] - (2) 삼각함수 - (나) 삼각함수의 미분**(230쪽) 미적2221-2.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문제 2-2(a)	교육과정	**[수학I] - ㈐ 도형의 방정식 - 2 직선의 방정식**(52쪽) ①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I] - ㈐ 도형의 방정식 - 3 원의 방정식**(52쪽) ①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②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미적분I] - ㈐ 다항함수의 미분법 - 3 도함수의 활용**(79쪽)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II] - ㈏ 삼각함수 - 1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87쪽) ②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II] - ㈏ 삼각함수 - 2 삼각함수의 미분**(87쪽) ①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미적분II] - ㈐ 미분법 - 1 여러 가지 미분법(88쪽) ① 함수의 몫을 미분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 수준	**[수학] - (3) 도형의 방정식 - (나) 직선의 방정식**(51쪽) 수학1321.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 - (3) 도형의 방정식 - (다) 원의 방정식**(52쪽) 수학1331.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1332-1.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미적분I] - (3) 다항함수의 미분법 - (다) 도함수의 활용**(185쪽)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II] - (2) 삼각함수 - (가)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228쪽) 미적2212-1.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간단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미적2212-2.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II] - (2) 삼각함수 - (나) 삼각함수의 미분**(230쪽) 미적2221-2.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미적분II] - (3) 미분법 - (가) 여러 가지 미분법**(231쪽) 미적2311. 함수의 몫을 미분할 수 있다.
문제 2-2(b)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 - ㈐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 2 공간좌표**(97쪽) ① 좌표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② 좌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기하와 벡터] - ㈐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 3 공간벡터**(97쪽) ① 공간벡터의 뜻을 알고,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② 두 공간벡터의 내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미적분I] - ㈐ 다항함수의 미분법 - 3 도함수의 활용**(79쪽)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II] - ㈏ 삼각함수 - 1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87쪽) ②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 수준	**[기하와 벡터] - (3)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 (나) 공간좌표**(280쪽) 기벡1321/1322. 좌표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이해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기하와 벡터] - (3)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 (다) 공간벡터**(281쪽) 기벡1331. 공간벡터의 뜻을 알고,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기벡1332. 두 공간벡터의 내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미적분I] - (3) 다항함수의 미분법 - (다) 도함수의 활용**(185쪽)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II] - (2) 삼각함수 - (가)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228쪽) 미적2212-1.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간단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미적2212-2.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수학」(교육과학기술부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2322-01)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I	신항균외 11인	지학사	2016	147, 163, 167
	수학II	우정호외 24인	동아출판	2016	179
	미적분I	정상권외 7인	금성출판사	2016	128

	미적분II	이준열외 9인	천재교육	2016	62, 67, 92, 108, 120
	확률과 통계	정상권외 7인	금성출판사	2016	76, 95
	기하와 벡터	우정호외 24인	동아출판	2016	176, 208
기타	The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Vol. 121, No. 6 (June)	Yared Nigussi	MAA	2014	545-546

5. 문항 해설

1. 논제의 구성

제시문 <가>는 먼저 극장에 n명의 관객과 n개의 좌석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첫 번째 관객은 극장표를 잃어버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 임의로 자리를 선택해서 앉기로 하고, 두 번째 관객부터는 자신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 자리에 앉고 이미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임의로 다른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다고 할 때, n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첫 두 명의 관객이 극장표를 잃어버려 그 둘은 차례로 자리를 임의로 선택해서 앉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앉고 이미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임의로 다른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다고 할 때, 제일 마지막 관객이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은 관객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 <나>는 극장을 옆에서 본 단면을 생각했을 때, 극장에서 스크린이 가장 크게 보이는 좌석을 선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제 2-1>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된, 첫 두 명의 관객이 극장표를 잃어버린 경우에 대해 제일 마지막 관객이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은 관객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관객의 수가 100명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제 2-2(a)>는 제시문 <나>에서 언급된 극장에서 스크린이 가장 크게 보이는 위치를 구하고, 그 점과 스크린을 나타내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극장의 바닥모양을 나타내는 직선에 서로 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제 2-2(b)>는 제시문 <나>의 지문을 입체인 경우로 확장하여 원형으로 배치된 좌석들 중에서 스크린의 대각선이 가장 크게 보이는 곳을 찾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답안 구성요소

확률은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에 대하여 공부하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확률은 일기예보, 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함수, 미분, 도형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항들은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확률, 극대극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좌표공간에 대한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① 확률 b_3을 구한다.	2
	② A_1이 S_3을 선택한 경우, A_{n+1}이 S_{n+1}에 앉을 확률은 이 $\frac{1}{n+1}b_n$임을 보인다.	3
	③ A_1이 S_3을 선택하지 않고 A_2가 S_3을 선택한 경우, A_{n+1}이 S_{n+1}에 앉을 확률은 $\left(\frac{n}{n+1}\right)\left(\frac{1}{n}\right)b_n$임을 보인다.	3
	④ A_1과 A_2가 모두 S_3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A_{n+1}이 S_{n+1}에 앉을 확률은 $\left(\frac{n}{n+1}\right)\left(\frac{n-1}{n}\right)b_n$임을 보인다.	3
	⑤ ①, ②, ③, ④로부터 모든 자연수 $n \geq 3$에 대하여 $b_{n+1} = b_n$임을 이해하여 $b_{100} = b_{99} = \cdots = b_3 = \frac{1}{3}$임을 구한다.	2
2-2(a)	① <나>에서 θ가 최대가 되는 점 P를 구하기 위해 함수 $f(x) = \frac{8x}{5x^2 - 8x + 12}$가 최댓값을 갖는 x를 구한다.	3
	② <나>에서 θ가 최대가 되는 점 P를 구한다.	2
	③ $\mathrm{A}(0, 1)$, $\mathrm{B}(0, 3)$, $\mathrm{P}\left(\sqrt{\frac{12}{5}}, \frac{1}{2}\sqrt{\frac{12}{5}}\right)$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3
	④ (판별식을 이용하여) 세 점 A, B, P를 지나는 원은 직선 $y = \frac{x}{2}$에 접한다는 것을 보인다.	3
2-2(b)	①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여 두 벡터 $\overrightarrow{\mathrm{PA}}$, $\overrightarrow{\mathrm{PB}}$가 이루는 각의 크기 θ에 대한 $\cos\theta$를 구한다.	4
	② 함수 $y = \cos\theta$는 구간 $\left(0, \frac{\pi}{2}\right)$에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f(y) = -16y^2 + 441$이 최댓값을 갖는 y에서 각 θ가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	4
	③ 구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한다.	3

7. 예시 답안

■ 2-1

편의상 n 명의 관객을 A_1, A_2, $\cdots$, A_n이라 하고 이들의 극장표에 적혀있는 좌석을 각각 S_1, S_2, $\cdots$, S_n이라 하자. 그리고 마지막 n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을 b_n 이라 하자. 먼저 $n=3$ 일 때 그 확률 b_3을 구해보자. 3자리 중에서 A_1, A_2가 임의로 앉을 경우의 수는 ${}_3P_2=6$ 이고, A_3가 자신의 자리 S_3에 앉기 위해서는 A_1과 A_2가 각각 자신의 자리에 앉거나 서로 바꿔 앉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므로 $b_3=\dfrac{1}{3}$ 이 된다.

이제 모든 자연수 $n \geq 3$에 대하여 $b_{n+1}=b_n$ 임을 보이자. 즉, 마지막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은 관객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이자. 관객의 수가 $(n+1)$명이라 하고, (i) A_1이 S_3을 선택한 경우, (ii) A_1이 S_3을 선택하지 않고 A_2가 S_3을 선택한 경우, (iii) A_1과 A_2가 모두 S_3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i) A_1이 S_3을 선택한 경우:
이 경우는 세 번째 관객 A_3은 임의로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A_1은 제외하고 A_2와 A_3을 각각 새로운 첫 번째 두 번째 관객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관객이 n명 있을 때와 상황이 같아진다. 따라서 A_1이 S_3을 선택하고 A_{n+1}이 S_{n+1}에 앉을 확률은 $\dfrac{1}{n+1}b_n$이다.

(ii) A_1이 S_3을 선택하지 않고 A_2가 S_3을 선택한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관객 A_3은 임의로 자리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A_2를 제외하고 A_1과 A_3을 각각 새로운 첫 번째 두 번째 관객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관객이 n명 있을 때와 상황이 같아진다. 따라서 A_1은 S_3을 선택하지 않고 A_2는 S_3을 선택하며 A_{n+1}이 S_{n+1}에 앉을 확률은 $\left(\dfrac{n}{n+1}\right)\left(\dfrac{1}{n}\right)b_n$이다.

(iii) A_1과 A_2가 모두 S_3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A_3은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게 되므로 A_3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관객이 n명 있을 때와 상황이 같아진다. 따라서 A_1과 A_2가 모두 S_3을 선택하지 않고 A_{n+1}이 S_{n+1}에 앉을 확률은 $\left(\dfrac{n}{n+1}\right)\left(\dfrac{n-1}{n}\right)b_n$이다.

따라서 확률 b_{n+1}을 구하면

$$b_{n+1}=\left(\frac{1}{n+1}\right)b_n+\left(\frac{n}{n+1}\right)\left(\frac{1}{n}\right)b_n+\left(\frac{n}{n+1}\right)\left(\frac{n-1}{n}\right)b_n=b_n$$

이다. 그러므로 관객 100명이 있을 때 100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은

$$b_{100}=b_{99}=\cdots=b_3=\frac{1}{3}$$

이다.

■ 2-2(a)

제시문 <나>에서 $\tan\alpha = \dfrac{3-\frac{x}{2}}{x}$, $\tan\beta = \dfrac{1-\frac{x}{2}}{x}$ 이고, 따라서

$$\tan\theta = \tan(\alpha-\beta) = \frac{\tan\alpha - \tan\beta}{1+\tan\alpha\tan\beta} = \frac{\dfrac{3-\frac{x}{2}}{x} - \dfrac{1-\frac{x}{2}}{x}}{1+\dfrac{(3-\frac{x}{2})(1-\frac{x}{2})}{x^2}} = \frac{8x}{5x^2-8x+12}$$

이다. 여기서 $\tan\theta$는 $\theta \in [0, \pi/2)$에서 증가하므로 함수 $f(x) = \dfrac{8x}{5x^2-8x+12}$가 최댓값을 갖는 x를 구하면 이 x가 점 O에서 각 $\angle \mathrm{APB}$가 최대가 되는 양의 x축 위의 점 P의 x좌표이다. 한편,

$$f'(x) = \frac{-8(5x^2-12)}{(5x^2-8x+12)^2} = 0$$

이면 $x^2 = \dfrac{12}{5}$이므로 x는 $\sqrt{\dfrac{12}{5}}$이다. 즉, 점 P의 좌표는 $\left(\sqrt{\dfrac{12}{5}}, \dfrac{1}{2}\sqrt{\dfrac{12}{5}}\right)$이다.

이제 $\mathrm{A}(0,1)$, $\mathrm{B}(0,3)$, $\mathrm{P}\left(\sqrt{\dfrac{12}{5}}, \dfrac{1}{2}\sqrt{\dfrac{12}{5}}\right)$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x^2+y^2+ax+by+c=0$$

이라 하자. 이 원은 $\mathrm{A}(0,1)$, $\mathrm{B}(0,3)$을 지나므로

$$1+b+c=0, \quad 9+3b+c=0 \ \Rightarrow \ b=-4,\ c=3$$

이고 원의 방정식은 $x^2+y^2+ax-4y+3=0$이 된다. 또한 점 $\mathrm{P}\left(\sqrt{\dfrac{12}{5}}, \dfrac{1}{2}\sqrt{\dfrac{12}{5}}\right)$를 지나므로

$$\frac{12}{5}+\frac{12}{20}+\sqrt{\frac{12}{5}}\,a-2\sqrt{\frac{12}{5}}+3=0 \Rightarrow \sqrt{\frac{12}{5}}\,a-2\sqrt{\frac{12}{5}}+6=0$$
$$\Rightarrow a = 2-\sqrt{15}$$

이고,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2+y^2+(2-\sqrt{15})x-4y+3=0$$

이다. 이제 $y=\dfrac{x}{2}$를 대입하면

$$\frac{5}{4}x^2-\sqrt{15}\,x+3=0$$

이고 이 방정식의 판별식은 $D = 15-4\cdot\dfrac{5}{4}\cdot 3 = 0$이므로 세 점 A, B, P를 지나는 원은 직선 $y=\dfrac{x}{2}$에 접한다.

<다른 풀이>

위의 풀이로부터 함수 $f(x)=\dfrac{8x}{5x^2-8x+12}$가 최댓값을 갖는 x를 구하면 이 x가 점 O에서 각 $\angle \mathrm{APB}$가 최대가 되는 양의 x축 위의 점 P의 x좌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f(x)=\frac{8x}{5x^2-8x+12}=\frac{8}{5x-8+\dfrac{12}{x}}$$

에서 $x>0$임을 이용하여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면 $5x+\dfrac{12}{x}\geq 4\sqrt{15}$이므로

$$f(x)\leq \frac{8}{4\sqrt{15}-8}$$

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등호는 $5x=\dfrac{12}{x}$, 즉 $x=\sqrt{\dfrac{12}{5}}$일 때 성립한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left(\sqrt{\dfrac{12}{5}},\dfrac{1}{2}\sqrt{\dfrac{12}{5}}\right)$이다.

세 점 A, B, P를 지나는 원 $x^2+y^2+(2-\sqrt{15})x-4y+3=0$과 직선 $y=\dfrac{x}{2}$이 서로 접함도 다른 방법들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원의 중심이 $\left(-1+\dfrac{\sqrt{15}}{2},2\right)$이고 반지름이 $\sqrt{\dfrac{23}{4}-\sqrt{15}}$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음 둘 중 하나를 보이면 증명이 끝난다.

(1) 원의 중심 $\left(-1+\dfrac{\sqrt{15}}{2},2\right)$에서 직선 $y=\dfrac{x}{2}$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sqrt{\dfrac{23}{4}-\sqrt{15}}$와 같다.

(2) 원의 중심과 점 P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2이므로 이 직선은 $y=\dfrac{x}{2}$와 점 P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 2-2(b)

두 벡터 $\overrightarrow{\mathrm{PA}}=(-x,-2-y,1)$, $\overrightarrow{\mathrm{PB}}=(-x,2-y,-1)$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θ이므로

$$\cos\theta=\frac{\overrightarrow{\mathrm{PA}}\cdot\overrightarrow{\mathrm{PB}}}{|\overrightarrow{\mathrm{PA}}|\,|\overrightarrow{\mathrm{PB}}|}=\frac{x^2-(4-y^2)-1}{\sqrt{x^2+(2+y)^2+1}\,\sqrt{x^2+(2-y)^2+1}}$$

이다. 이제 $x^2=16-y^2$이므로

$$\cos\theta=\frac{11}{\sqrt{21+4y}\,\sqrt{21-4y}}$$

이다. 함수 $y=\cos\theta$는 구간 $\left(0,\dfrac{\pi}{2}\right)$에서 감소하므로 $f(y)=-16y^2+441$이 최댓값을 갖는 y에서 각 θ가 최대가 된다. 따라서 $y=0$일 때, 각 θ가 최대가 되며 $x^2=16-y^2$이고 $x>0$이므로 $x=4$이다. 즉 구하는 점 P의 좌표는 $(4,0,0)$이다.

3. 기타 고사(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고사) 출제 문항

※ 기타고사의 문항별 분석 결과(국어, 수학, 영어, 외국어에세이)는 'Ⅳ-2-다' 참조

3-1. 국어

3-1-1. 문제지

1. 다음 중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ㅈ

2. 다음 중 발음이 어문 규범에 맞게 표시된 것은?
① 깻잎[깬닙]
② 신여성[시녀성]
③ 문고리[문고리]
④ 발바닥[발바닥]

3. 다음 단어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은?
① 케익(cake)
② 비전(vision)
③ 챠트(chart)
④ 보우트(boat)

4. 다음 중 유음화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물[궁물] ② 좋고[조코] ③ 난로[날로] ④ 같이[가치]

5. 다음의 국어 음운에 관련된 설명 중 <u>잘못된</u> 것은?
① 앞 음절의 후설 모음이 뒤 음절의 전설 모음 'ㅣ'의 영향으로 전설 모음으로 변하는 일이 있다.
②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의 일곱 개뿐이다.
③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을 축약이라고 한다.
④ 발음의 편리를 위해 서로 다른 두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것을 동화라 한다.

6. 다음 옛 글자 중 모음을 표기한 글자는?
① • ② ㅸ ③ ㅿ ④ ㆆ

7. 다음 단어 중 조어법이 <u>다른</u> 것은?
① 시누이 ② 양배추 ③ 왕고집 ④ 보슬비

8. 다음 단어 중 복수표준어인 것은?
① 담배꽁초/담배꽁치 ② 샛별/새벽별 ③ 가뭄/가물 ④전봇대/전선대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u>틀린</u> 문장은?
① 오늘 부터 방학입니다.
② 입학한 지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③ 이 책은 국어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하다.
④ 먹을 만큼 먹어라.

10. 다음 중 맞춤법에 맞게 쓰인 문장은?
① 깍뚜기를 먹었다.
② 김치찌게를 맛있게 먹었다.
③ 음식을 뚝빼기에 가득 담아라.
④ 자장면을 곱빼기로 시켜 먹었다.

11. 다음 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의 의미는?
①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
② 매우 사소한 일이지만 흔적이 남는다.
③ 일의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
④ 남에게 악한 일을 하면 그 죄를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

12. 다음 중 품사가 다른 단어는?
① 빠르다 ② 슬프다 ③ 먹다 ④ 예쁘다

13. 다음 중 두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가 다른 것은?
① 남성-여성 ② 총각-처녀 ③ 오다-가다 ④ 직업-공무원

14. 다음 중 두 단어 사이의 문법 관계가 다른 것은?
① 속다-속이다 ② 익다-익히다 ③ 맡다-맡기다 ④ 먹다-먹히다

15. 다음 중 한자의 독음이 잘못된 것은?
① 학교(學校) ② 중요(重要) ③ 국가(國際) ④ 가요(歌謠)

16. 다음 중 '경솔하여 생각 없이 가볍게 행동함'의 의미를 지닌 것은?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② 가렴주구(苛斂誅求) ③ 타산지석(他山之石) ④ 경거망동(輕擧妄動)

17.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의미가 다른 것은?
① 친구들이 떠드는 통에 교실에선 공부를 못하겠다.
② 늘 동전을 넣어 두는 통에 돈이 가득 찼다.
③ 우리 가족은 난리 통에 뿔뿔이 헤어졌다.
④ 내가 한 번 가 본다 가 본다 하면서도 영감이 가로막는 통에 갈 수가 있어야지.

18. 다음 중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어떤 작가는 부주의하거나 착각 때문에 틀린 문장을 쓰곤 한다.
② 젊은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는 재목이다.
③ 저에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④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이 민족 분열의 수단인 동시에 정치 선전이었다는 것이다.

19.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

그 사람한테는 비밀을 털어놓지 마. 그 사람은 _____.

① 입이 높아
② 입이 짧아

③ 입이 가벼워
④ 입에 풀칠해

20.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말은?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① 애타게
② 즐겁게
③ 고통스럽게
④ 들뜬 마음으로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옛날의 독서는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 내어 읽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서당에서 ㉠낭랑하게 목청을 돋우고 가락에 맞추어 책을 읽었다. 선생은 좌우로 몸을 흔들고, 학생은 앞뒤로 흔들며 읽었다. 책을 읽는 낭랑한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그렇게 읽다 보면 그 가락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뇌리에 스며들어, 뜻을 모르고도 글을 외울 수 있었다. 의미는 소리에 뒤따라왔다.

(중략)

알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를 읽어 보니 중세 유럽에서도 책은 반드시 소리를 내어 읽었다고 한다. 암브로시우스가 ㉢묵독하는 것을 본 아우구스티누스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눈으로만 읽는 묵독은 그 비밀스러움 때문에 ㉣요사스럽게 보였던 모양이다. 그들은 경전을 읽을 때 신성함을 유지하려면 문장의 가락에 맞춰 몸을 흔들고 소리 내어 성스러운 단어를 읽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야만 ⓐ책장에 쓰인 죽어 있던 단어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올라 의미화된다고 여겼다.

(나) 전통 사회에서 음식의 소비는 일종의 사회성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생존을 위한 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미각은 집단의 관습, 문화,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날마다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미각의 공유를 통해 ㉤'초가족적인 식탁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러나 부의 획득을 위한 금욕이 중요한 가치가 된 근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기 과시와 자기 통제라는 측면이 더 강조된다. 음식의 과잉 소비를 자기 과시를 위한 과제로 제시하는 근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는 한편, 식탁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거나 ㉥탐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단련하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의 음식의 소비는, 음식의 직접적 섭취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이전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가상 공간의 소비자들이 컴퓨터 모니터에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을 현실 공간의 음식을 소비하듯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은 이제 직접적인 섭취를 넘어 이미지의 소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2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독서가 신성한 행위라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다.
② (가)는 독서가 한 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③ (나)는 매체의 발전이 삶에 더 큰 풍요를 가지고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매체의 변화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다.

22.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옛 사람들의 독서 습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해도 우선 문장을 외웠다.
② 리듬을 곁들여 더욱 쉽게 익힐 수 있게 하였다.

③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려고 노력했다.
④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은 동서 문화 모두의 관습이었다.

23. ㉠~㉣의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① ㉠ : 거침없이
② ㉡ : 사람의 의식이나 기억
③ ㉢ : 받아 적으면서 읽음
④ ㉣ : 신비롭게

24. ⓐ의 문장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표현하였다.
② 표현하려는 사물이나 관념을 유사한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③ 참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④ 문장의 뜻을 점차 강하거나 높게 하여 마침내 절정에 이르도록 표현하고 있다.

25. (나)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통적으로 음식은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해 왔다.
②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은 근대적 가치관을 강화한다.
③ 전통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가상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④ 가상 공간의 음식 이미지로 인하여 음식의 직접적 섭취는 무의미해졌다.

2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산적 측면이 강조되며, ㉥에서는 개인의 소비적 측면이 강조된다.
② ㉤에서는 음식문화의 향유적 측면이 강조되며, ㉥에서는 음식문화의 생존적 측면이 강조된다.
③ ㉤에서는 사회적 공간적 차원이 강조되며, ㉥에서는 역사적 시간적 차원이 강조된다.
④ ㉤에서는 구성원의 동질성이 강조되며, ㉥에서는 소비할 능력이 있으나 자제하는 개인이 강조된다.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과 눈 사이는 약 6.5㎝ 정도 떨어져 있어 각각의 눈에서는 서로 다른 2차원 영상을 보게 된다. 각각의 망막에 맺힌 좌우 영상은 뇌로 전달되는데 뇌로 전달되는 좌우 영상은 각각 2차원 정보이다. 이를 3차원 정보로 다시 복원하기 위해 뇌는 경험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으로 대별되는 ⓐ3차원 복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영상을 서로 융합시켜 본래의 3차원 장면을 재구성하고 이로부터 실제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경험적 요인은 ㉠양안의 초점 조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쪽 눈으로도 3차원 정보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단안 요인이라고도 한다. 인간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 축적해 온 여러 요인의 도움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3차원 영상 정보가 아니라 경험에 의한 ㉡3차원 착시라고 할 수 있다. 경험적 요인에는 ㉢같은 간격의 선들이 거리가 멀어지면 좁아 보이게 되는 직선 원근,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빨리 움직이고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 시차, ㉣물체의 상대적 크기나 조밀도에 따른 거리감, 멀리 있을수록 흐리게 보이는 대기에 의한 원근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한쪽 눈만으로도 심도를 느끼게 한다.

(나) HIV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를 말한다. HIV는 인체에 침투하자마자 매일 인체 내 면역 세포인 CD4 세포를 대량으로 파괴하고, 인체는 이 세포들을 다시 ⓑ채우려고 노력한다. 이 치열한 전투는 몇 년간 계속된다. 하지만 CD4 세포가 혈액 1㎖에 200개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HIV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CD4 세포의 숫자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

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을 에이즈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이 HIV가 역전사(逆轉寫) 바이러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DNA에 담긴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되는 전사(轉寫, transcription)를 거쳐 단백질이 합성되는 번역(translation)의 과정을 거쳐서 전달된다. 하지만 역전사는 DNA를 주형으로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전사와는 반대로 RNA를 주형으로 하여 D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즉 HIV는 자신의 RNA를 숙주의 DNA에 끼워 넣는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인 것이다.

27. (가)를 통해 파악되는 ⓐ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경험적 요인이 생리적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
② 2차원적 영상 정보를 융합해도 실제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는 없다.
③ 경험적 요인으로 느끼는 3차원 영상 정보는 일종의 착시이다.
④ 좌우 망막에 비친 평면적 영상은 입체 영상으로 복원될 수 없다.

28. 지문 (가)의 ㉠~㉣ 중, 다음 보기의 상우가 안대를 하고 있는 동안 사용할 수 <u>없는</u> 것을 고르시오.

<보기>
상우는 어느 날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공을 맞아 왼쪽 눈을 다쳤다. 그래서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왼쪽 눈에 안대를 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식탁에 있는 양파를 집어 달라고 하셨다. 상우는 손을 뻗어 양파를 집으면서, 양파의 위치에 대해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다.

① ㉠ ② ㉡ ③ ㉢ ④ ㉣

29.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HIV 치료제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②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HIV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④ HIV 치료제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30. 보기의 밑줄 친 단어 중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항아리에 쌀을 가득 <u>채웠다</u>.
② 수박을 얼음물에 <u>채워</u> 두었다.
③ 날이 추우니 외투의 단추를 단단히 <u>채워라</u>.
④ 볕에 잘 말린 기저귀를 아이에게 <u>채웠다</u>.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u>슈국(水國)의 ᄀᆞᆯ히 드니 고기마다 ᄉᆞᆯ져 읻다</u>
닫 드러라 닫 드러라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ᄏᆡ지 용여(容與)ᄒᆞ쟈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
㉡<u>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옥 됴타</u>

- 윤선도, 「어부사시사」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②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삶의 환희를 노래하고 있다.
② 농촌생활을 목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이야기 형식의 산문적 어조의 시이다.
④ 축제적, 달관적, 희망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 : 살 오른 고기는 자연의 풍성함과 함께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② ㉡ :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 :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후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느낄 수 있다.
④ ㉣ : 흥에 취하여 추는 농무(農舞)의 즐거움이 드러나 있다.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지조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强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名利)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一朝)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지조 있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곤고(困苦)를 이해할 뿐 아니라 안심하고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者)이기 때문에 지조 없는 지도자, 배신하는 변절자들을 개탄(慨歎)하고 연민(憐憫)하며 그와 같은 변절의 위기의 직전에 있는 인사들에게 ㉣경성(警醒)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조지훈, 「지조론」

34. 윗글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것은?
① 지도자에게는 지조가 있어야 한다.
② 지조를 가진 자라면 권력은 자연히 따른다.
③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 지조는 큰 가치와 위력을 지닌다.

35. ㉠~㉣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① ㉠ : 목표가 분명한
② ㉡ : 확신과 아집
③ ㉢ : 이치
④ ㉣ : 타일러 깨우침

36. 다음 중 윗글을 쓴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변절을 일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각성을 부르짖고 있다.
② 우리 역사 속에서 지조를 지킨 위인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③ 사라져 가는 선비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개인이 교양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엄마는 또 내 귓가에 소곤소곤 내가 서울 가서 앞으로 되어야 하는 신여성에 대해 얘기해 주기도 했다.
"신여성이 뭔데?"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다. 신여성이 되면 머리도 엄마처럼 이렇게 쪽을 지는 대신 히사시까미로 빗어야 하고,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뾰죽구두 신고 한도바꾸 들고 다닌단다."
내가 히사시까미, 한도바꾸에 전혀 무지하다는 걸 아는 엄마는 기차간을 한번 골고루 휘둘러보고 나서 저기 저 여자의 머리가 히사시까미, 조기 조 여자가 무릎 위에 놓고 있는 게 한도바꾸 하는 식으로 실물을 견학까지 시켜 가며 열성스럽게 신여성이 뭔가를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기차간에 한 몸에 그 여러 가지 신여성의 구색을 갖춘 여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춘 신여성이라는 걸 상상하긴 어렵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것에 실망했다. 내가 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긴 머리꼬리에 금박을 한 다홍 댕기를 드리고 싶었고 같은 빛깔의 꼬리치마를 버선코가 보일락 말락 하게 길게 입고 그 위에 자주고름이 달린 노랑저고리를 받쳐 입고 꽃신을 신고 싶었다. 나는 한창 고운 물색에 현혹돼 있었기 때문에 신여성의 구색인 검정치마, 검정구두, 검정 한도바꾸가 도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신여성은 뭐 하는 건데?"
나는 내가 고운 물색으로 차려입고 꼭 하고 싶은 게 널이나 그네뛰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 엄마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은 몹시 난처해 보였다. 어른들은 가끔 그런 얼굴을 잘했다.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할 때라든가, 슬픈데도 안 슬픈 척할 때 어른들은 그런 얼굴을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모르면서도 알은 체하려 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생글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마음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란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나는 신여성의 겉모양을 그려 보았을 때보다 더 크게 실망했다. 신여성이 그렇게 시시한 걸 하는 건 줄 처음 알았다. 그러나 그걸 안 하겠다고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기차는 칙칙폭폭 무서운 속도로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중략)

나는 옛날의 등성이를 넘기를 단념하고 새로 쌓아 내려가고 있는 성벽을 따라 사직터널 방향으로 내려왔다. 샌들 속으로 모래가 들어온 걸 벗어서 털면서 나는 문득 실소를 터뜨렸다. 어머니가 낯설고 바늘 끝도 안 들어가게 척박한 땅에다가 아등바등 말뚝을 박으시면서 나에게 '제발 되어지이다'라고 그렇게도 간절히 바란 신여성보다 지금 나는 너무 멋쟁이가 돼 있지 않은가. 그러나 신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머니가 생각한 것으로부터는 얼마나 얼토당토않게 못 미쳐 있는가.

- 박완서, 「엄마의 말뚝 Ⅰ」

37. 다음 중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u>않은</u> 것은?
① 엄마는 나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의지적 인물이다.
② 어린 나는 엄마의 생각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이다.
③ 어린 나는 엄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한다.
④ 엄마는 나를 신여성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상받고자 한다.

38. 다음 중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1인칭 시점이지만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드러나 있다.
③ 장면에 대한 긴박감 넘치는 묘사를 보여준다.
④ 들은 바를 회상하여 서술하고 있다.

39. 다음 중 위의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u>아닌</u> 것은?
① 엄마는 구여성의 복색을 부끄러워한다.
② 엄마는 신식 교육에 대한 선망이 있다.
③ 엄마는 봉건 사회 속에서 교육 받고 자란 구식 여성이다.
④ 엄마는 자신의 딸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40. 다음 중 위의 소설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치 <u>않은</u> 것은?
① 한국전쟁, 산업화, 도시화 등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세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어머니 세대에 대한 회상이기도 하고, 어머니 세대와 딸의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② 어른이 된 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열렬히 열망했던 신여성의 기준이 지닌 이중성을 깨닫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신여성의 겉모양과 신여성의 능력, 속된 허영과 높은 이상 사이의 모순 말이야.
③ 이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과거의 삶이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이나 반추가 아니라 현재라는 생각이 들었어. 현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문제인 것이지.
④ 한 개인의 체험을 통해 시대와 역사의 비극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어. 전쟁이라는 폭력 때문에 생긴 주인공의 정신적 외상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3-2. 수학

3-2-1. 문제지

1.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정수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직각을 포함하는 한 변의 길이가 11, 빗변의 길이가 a, 그리고 직각을 포함하는 또 다른 변의 길이가 b라고 할 때, $a+b$의 값은?

① 121 ② 131 ③ 141
④ 151 ⑤ 161

2. 두 다항식 $f(x), g(x)$ 에 대하여 다항식 $f(x)-g(x)$ 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5이고, 다항식 $f(x)g(x)$ 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일 때, 다항식 $(f(x))^3-(g(x))^3$ 을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① 170 ② 175 ③ 180
④ 185 ⑤ 190

3. 복소수 $\alpha=1-\sqrt{2}i$ 의 켤레복소수를 $\overline{\alpha}$라고 할 때, $\alpha^2\overline{\alpha}+\alpha\overline{\alpha}^2$ 의 값은?
(단, $i=\sqrt{-1}$ 이다.)

① -6 ② -4 ③ 0
④ 4 ⑤ 6

4. 이차방정식 $x^2+x+1=0$ 의 두 근을 α, β 라고 할 때, $\frac{1}{\alpha^2}, \frac{1}{\beta^2}$을 두 근으로 하는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은?

① $x^2-x+1=0$ ② $x^2+x+1=0$ ③ $x^2-2x+1=0$
④ $x^2+2x+1=0$ ⑤ $x^2-x-1=0$

5. 꼭짓점의 좌표가 $(2,0)$이고, a가 양수인 이차함수 $y=ax^2+bx+c$ 가 있다. 이 이차함수와 직선 $y=0.5x$ 와의 교점을 P와 Q 라 할 때, 원점 O 에 대해 $\overline{OP}:\overline{OQ}=1:2$ 가 되도록 a, b, c 의 값을 정할 때, $a-b-c$ 의 값은?

① $\frac{3\sqrt{2}-4}{4}$ ② $\frac{3\sqrt{2}-2}{4}$ ③ $\frac{3\sqrt{2}}{4}$
④ $\frac{3\sqrt{2}+2}{4}$ ⑤ $\frac{3\sqrt{2}+4}{4}$

6. 원 $(x-5)^2+(y-5)^2=1$ 이 직선 $y=-x+k$ 에 의해 잘린 두 점을 A, B 라고 할 때, 선분 AB 의 길이가 최대가 되기 위한 실수 k의 값은?

① 8 ② 9 ③ 10
④ 11 ⑤ 12

7. 전체집합 U와 두 부분집합 A, B 에 대하여 $n(U)=30, n(A)=20, n(B)=15$ 이다. $n(A\cap B)$ 의 최댓값을 M, 최솟값을 m이라고 할 때, $M+m$의 값은?
(단, $n(X)$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8. 유리함수 $f(x)=\dfrac{x^2+23x+132}{(x+10)^3}$ 에 대하여 $f(-9.9)$ 의 값은?

① 2210 ② 2310 ③ 2410
④ 2510 ⑤ 2610

9. 첫째항 $a_1=20$, 공차 d가 정수인 등차수열 $\{a_n\}$이 $a_7 \cdot a_8 \le 0$ 을 만족시킨다. 이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_n이라고 할 때, S_n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댓값은?

① 11 ② 12 ③ 13
④ 14 ⑤ 15

10. 100 이하의 자연수 중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자연수 전체의 합을 S 라고 할 때, $\dfrac{S}{5}$의 값은?

① 77 ② 110 ③ 210
④ 231 ⑤ 385

11. $\alpha=\log_a b, \beta=\log_b a$ 일 때, $\dfrac{1}{\alpha-1}+\dfrac{1}{\beta-1}$ 의 값은? (단, $a\neq b$ 이다.)

① -2 ② -1 ③ 0
④ 1 ⑤ 2

12. 어느 도시의 인구의 증가율이 매년 3%일 때, 이 도시의 인구의 수가 최초로 현재의 인구의 수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 년 후부터인가? (단, $\log 3 = 0.4771, \log 1.03 = 0.0128$ 이다)

① 36 년 ② 37 년 ③ 38 년
④ 39 년 ⑤ 40 년

13. 다음 무한급수

$$\frac{1}{1\cdot 3\cdot 5}+\frac{1}{2\cdot 4\cdot 6}+\frac{1}{3\cdot 5\cdot 7}+\frac{1}{4\cdot 6\cdot 8}+\cdots$$ 의 값은?

① $\frac{11}{120}$ ② $\frac{11}{96}$ ③ $\frac{11}{72}$
④ $\frac{11}{48}$ ⑤ $\frac{11}{24}$

14. x의 다항식 $f(x)$가 다음 두 조건

$$\lim_{x\to\infty}\frac{f(x)-3x^3}{x^2}=3, \quad \lim_{x\to 0}\frac{f(x)-3}{x}=3$$

을 만족할 때, $\lim_{x\to -1}\frac{f(x)}{x+1}$ 의 값은?

① 2 ② 4 ③ 6
④ 8 ⑤ 10

15. 겉넓이가 8π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높이를 h라고 하자.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frac{h}{r}$의 값은?

① $\frac{1}{3}$ ② $\frac{1}{2}$ ③ 1
④ 2 ⑤ 3

16. 이차함수 $f(x)=x^2+ax+b$ 에 대하여

$$\int_{-1}^{1} xf(x)dx=-\frac{2}{3}, \quad \int_{-1}^{1} x^2f(x)dx=\frac{16}{15}$$

이 성립할 때, $a+b$ 의 값은?

① -2 ② -1 ③ 0
④ 1 ⑤ 2

17. 어느 고등학교 동아리는 1학년 5명, 2학년 6명 그리고 3학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임원을 3명

뽑을 때, 각 학년에서 3명이 골고루 나올 확률은 a, 모두 같은 학년에서 3명이 나올 확률은 b라고 하자. 이때 $a+b$의 값은?

① $\frac{124}{455}$ ② $\frac{134}{455}$ ③ $\frac{144}{455}$
④ $\frac{154}{455}$ ⑤ $\frac{164}{455}$

18. 1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x, y, z 라고 하자. 이 중 최댓값을 w라고 할 때, w가 4일 확률은?

① $\frac{11}{72}$ ② $\frac{17}{108}$ ③ $\frac{35}{216}$
④ $\frac{1}{6}$ ⑤ $\frac{37}{216}$

19. A와 B가 어떤 게임을 한다. A가 이길 확률은 0.7, B가 이길 확률은 0.3 일 때, 그 게임을 연속해서 2번 먼저 이기면 우승한다고 하자. 이때 A가 우승할 확률은? (단, 무승부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0.7^2 ② 1.21×0.7^2 ③ $\frac{0.3}{0.79}\times0.7^2$
④ $\frac{0.7^2}{0.79}$ ⑤ $\frac{1.3}{0.79}\times0.7^2$

20. 한 화장품 판매점의 A제품 판매 개수는 매 분마다 평균이 3.2, 표준편차가 1.0이다. 이 제품의 한 시간마다 판매 개수의 평균과 분산의 합은?

① 193 ② 252 ③ $3,600$
④ $3,792$ ⑤ $15,120$

3-3. 영어

3-3-1. 문제지

I. 아래의 밑줄 친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의 단어를 찾으시오. [각 3점]

1.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① obvious ② deplorable ③ fair ④ enough ⑤ simple

2. New small businesses provide temporary workers to companies that are outsourcing, and individuals find new ways to do business over the Internet.
① permanent ② memorial ③ industrious ④ short-term ⑤ physical

3. Today, women make up about one-half of high-paying executive,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occupations.
① companies ② salaries ③ white-collars
④ professions ⑤ employers

4. The accounting procedures need to be overhauled thoroughly, as it took far too long for London Underground to realise that its financial position was unsound.
① examined ② instructed ③ settled ④ actualized ⑤ executed

5. Fortify yourself with some of the ever proliferating selection of gorgeous beach dresses, shirts, and trousers.
① declining ② waning ③ expanding ④ stimulating ⑤ discounting

6. After suffering much damage in the storm, the small craft was left to flounder about helplessly.
① stumble ② weigh ③ sidestep ④ predicate ⑤ establish

7. Traditional media outlets are in a bind, forced to reevaluate how to communicate with and retain customers in a technological market that never stops evolving.
① in trouble ② ripped off ③ developing
④ reforming ⑤ handed over

II.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찾으시오. [각 3점]

8. There seems to be a(n) _____ in every family, who boasts about his or her achievements and worth.
① braggart ② outsider ③ idealist ④ escapist ⑤ satirist

9. _____—particularly in the elbows and shoulders of young pitchers—are indeed becoming epidemic. Orthopedists often blame coaches and parents for failing to monitor how many pitches kids are throwing and for not giving them time to rest their arms.
① Overuse injuries ② Traffic accidents ③ Digestive disorders
④ Infectious diseases ⑤ Respiratory diseases

10. Since New York City is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centers of business, culture, and trade, in the city affects what happens throughout the Unites States and around the world.

① much of happens ② much of what happens
③ much of that happens ④ much happening
⑤ much of happening

11. Founded by the Spanish as Yerba Buena in 1835, _____ was taken over by the United States in 1846 and later renamed.

① San Francisco is now what
② what San Francisco is now
③ what is now San Francisco
④ while it is now San Francisco
⑤ while San Francisco is now

12. To stabilize its members' economi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rovides policy advice and short-term loans _____.

① so that a member nation encounters financial difficulty
② unless a member nation encounters financial difficulty
③ in that a member nation encounters financial difficulty
④ when a member nation encounters financial difficulty
⑤ in order to a member nation avoids financial difficulty

III.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각 3점]

13. Which of the following is INCORRECT translation in English?

① 남을 비방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name-calling and truth-telling.
② 이것은 집안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It is a matter of the family fortunes at stake.
③ 한 번 더 말씀해주시겠어요?
Could you run that by me one more time?
④ 걸어가는 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면 벤치에 느긋하게 쉴 수 있습니다.
You can let down your hair on a bench when walking is exhausting you.
⑤ 나는 "My Way"라는 제목의 책을 샀다.
I brought a book titled "My Way."

14.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 and B in the dialogue?

A: This is the largest children's museum in the world. Over 1 million people visit the Children's Museum of Indianapolis each year.
B: Sam and I obviously aren't young children, so is there anything here that we'd enjoy?
A: Absolutely. We have a planetarium and a carousel that people of all ages enjoy.
B: Are there any exhibits that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A: We have a permanent exhibit featuring three famous children and the impact they had on the world.

① A: archivist B: inspector ② A: guide B: tourist

③ A: student B: teacher ④ A: curator B: collector
⑤ A: teller B: customer

15. (A) Nevertheless many college graduates falter in chats with native speakers. (B) South Korean officials are often accused of grouping together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C) They are afraid to mix with native English speakers. (D) That, linguists say, is a result of a national school system that traditionally stresses reading and rote memorization of English grammar and vocabulary at the expense of conversation. (E)

Where is the best place to insert the following sentence?

The Korean government spends millions on English education.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6.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word "globalization" started showing up. ____(A)____, the focus was on Western companies' trying to compete with imports from Asia. The battle lines were drawn along each ____(B)____ borders. ____(C)____, things became more complex. Asian companies started designing and assembling products in the West.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ere was a lot of talk about whether it wa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____(D)____ it's pretty clear that globalization is an unavoidable thing.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to complete the paragraph?

① A: First	B: countries	C: Second	D: Now
② A: At first	B: country's	C: Later on	D: Now
③ A: At frist	B: country	C: Later on	D: Lastly
④ A: Now	B: countrys'	C: Therefore	D: In conclusion
⑤ A: Then	B: country's	D: Moreover	D: Now

17. American business schools are ____(A)____ the field with their way of business thinking, which is all very interesting but is not always applicable ____(B)____ in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It is important for Chinese managers to understand the laws and protocol in China. ____(C)____ at the same time, students appreciate they need to learn about global practice. This is ____(D)____ many local schools are now offering joint programs with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s. Students can get the best of both worlds.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to complete the paragraph?

① A: dominated	B: then	C: Thus	D: where
② A: dominating	B: back	C: But	D: why
③ A: dominated	B: then	C: But	D: what
④ A: dominate	B: back	C: However	D: that
⑤ A: dominating	B: then	C: Therefore	D: why

[18-20] John D. Rockefeller started as a bookkeeper in Clevelend, became a merchant, accumulated money, and decided that, in the new industry of oil, ____(A)____. He bought his first oil refinery in 1862, and by 1870 set up Standard Oil Company of Ohio, (B) made secret agreements with railroads to ship his oil with them if they gave him discounts on their prices, and thus drove competitors out of business. By 1899, Standard Oil Company was a holding company, which controlled the stock of many other companies. The capital was $110 million, the profit was $45 million a year, and John D. Rockefeller ____(C)____ a fortune estimated at $ 200 million.

18.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suitable for the blank (A)?
① whoever the oil refineries controlled the industry controlled
② controlled whoever oil refineries controlled the industry
③ the oil refineries controlled the industry whoever controlled
④ the industry controlled whoever the oil refineries controlled
⑤ whoever controlled the oil refineries controlled the industry

19. From (B), we can infer that these agreements were secret so that _____.
① other competitors would become more interested in that business
② other businesses were ignorant of Standard Oil Company's paying lower prices
③ other businesses would entice railroads to give discounts to Standard Oil Company
④ Standard Oil Company would induce competitors to join railroad business
⑤ railroads would become the only transportation for everyone to ship oil in the country

20.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suitable for the blank (C)?
① was amassed ② was being amassed ③ have been amassed
④ had amassed ⑤ would have amassed

[21-23] People always need to answer the question "Where am I?" when they (A) travel. Ancient people (B) used the stars to navigate. But of course this system of navigation didn't work during the day. In the 12th century sailors invented the compass—this shows north, south, east and west, and it (C) works at day or night.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re were many new inventions, (D) including of the sextant. This measured the position of the stars and sun and showed your approximate location, but it didn't show your exact location. Everything changed in 1973 when the United States launched the 24 satellites of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Computers combined the signals from the GPS satellites (E) with maps to (F).

21.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INCORRECT expression?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2.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suitable for the blank (F)?
① report the latest climate change news and updates
② produce secondary data for geographical research
③ show exactly where you are and how to get to another place
④ show regional or site-specific physical characteristics
⑤ give information about traffic situations

23.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title of the above passage?
① Problems of GPS
② Navigation Past and Present
③ How Ancient People Traveled
④ Basic Units and Concepts of Travel and Tourism
⑤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Global Tourism

[24-25] Theft of hotel towels _____(A)_____, but it can be expensive for hotels. Moral prohibitions against stealing

prevent most people (B) from stealing towels. Many hotels put their name or logo on their towels. That works (C) as a reputational pressure system; most people don't want their friends to see obviously stolen hotel towels in their bathrooms. Sometimes, though, this has the opposite effect: (D) making towels souvenirs of the hotel and more desirable to steal. It's against the law to steal hotel towels, of course, but with the exception of large-scale thefts, the crime will never be prosecuted. The result is that the scope of defection is higher (E) then hotels want. And large, fluffy towels from better hotels are expensive (F) to replace.

24.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suitable for the blank (A)?
①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service businesses
② is an encouraged action for the boldness
③ isn't high in the hierarchy of world problems
④ is concerned with the intellectual level among people
⑤ is a symbol of souvenirs

25.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INCORRECT expression?
① B ② C ③ D ④ E ⑤ F

[26-29] After the protesting and picketing had gone on for several months, police (A) began cracking down and making arrests. At first the women were released _____(1)_____. But subsequently when they returned to the picket line, they were arrested again. This time they were found guilty of blocking the sidewalk traffic and given prison sentences. In prison, many of the women joined in a hunger strike. The authorities tried to force-feed them. The public, horrified at this harsh treatment, began to look with sympathy on the cause of suffrage. When Paul and other feminists were eventually released from prison, they were greeted as heroes. The dramatic demonstrations staged by Alice Paul and the Women's party (B) combined with Catt's hard work to win the support of ordinary people paid off. On January 10, 1918, Jeannette Rankin of Montana, who, when elec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1916, had become the first female member of Congress, introduced the suffrage amendment on the floor of the House. One Congressman left his wife's death bed—at her behest—to vote for the amendment. Another Congressman (C) was bringing in on a stretcher. The amendment (D) had passed by one vote more than the majority required. It took another year and a half for the amendment to win passage in the Senate. In June 1919, the amendment was submitted to the states for ratification. On August 26, 1920, after Tennessee (E) had delivered the last needed vote, the 19th Amendment became a part of the Constitution.

26. According to the abov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① The public were indifferent to women's political rights.
② The dramatic demonstrations by the feminists such as Alice Paul were postponed.
③ Some men did what they could to support women's rights, and actually contributed to the passage of the 19th Amendment.
④ The 19th Amendment was ratified in the states in 1918.
⑤ Jeannette Rankin became a member of the Senate in 1916.

2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he one of the American feminists' tactics to bring the cause of suffrage to the attention of the public?
① a hunger strike ② the picket line ③ demonstrations
④ force-feeding ⑤ protesting

28.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used in a correct way?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9.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suitable for the blank (1)?

① with sentencing ② without sentencing
③ with having been sentenced ④ without sentenced
⑤ without being sentenced

[30-33] Many people are under the impression that daily life is an unending series of unpleasantnesses—that 50 percent or more of human encounters are stressful or aggressive. But think about it seriously for a moment. Such levels of nastiness cannot possibly be sustained. Society would have been devolved to anarchy in an instant if half our overtures to another human being were met with a punch in the nose. No, nearly every encounter with another person is at least neutral and usually pleasant enough. *Homo sapiens* is a remarkably genial species. Ethnologists consider other animals relatively peaceful if they see but one or two aggressive encounters while observing an organism for, say, tens of hours. But think of how many millions of hours we can log for most people on most days without noting anything more threatening than a raised third finger once a week or so. Why, then, do most of us have the impression that people are so aggressive, and (A) intrinsically so? Unfortunately, one incident of violence can undo a thousand acts of kindness, and we easily forget the predominance of kindness ___(B)___ aggression by confusing effect ___(C)___ frequency. Kindness is so fragile, so easy to efface; violence is so powerful. I am not asserting that humans are either genial or aggressive by inborn biological necessity. Obviously, both kindness and violence lie within the bounds of our nature because we perpetuate both, (D) in spades.

30. Which of the following best explains the underlined (A)?

① Intrinsically people have specific impressions
② Intrinsically most of us easily forget kindness
③ Intrinsically humans are genial
④ Intrinsically people are violent
⑤ Intrinsically humans misunderstand human encounters

31.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suitable for the blanks (B) and (C)?

① B: to C: with ② B: above C: of ③ B: for C: of
④ B: to C: of ⑤ B: over C: with

32. Which of the following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D)?

① considerably ② reservedly ③ deliberately
④ obscurely ⑤ minutely

33.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properly explain the above passage? **[4점]**

① Kindness is statistically more characteristic of relations among people than violence is.
② Human nature is naturally violent, as is common with lots of organisms.
③ The effect of one violent act is so powerful that people easily forget that it is not very frequent.
④ The writer seems to be optimistic about the human nature.
⑤ The writer analyzes why people assume that most human encounters are stressful.

3-4. 외국어에세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쓰기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특히 인터넷은 사람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보에 다가갈 수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표절하거나 도용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그리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왜곡하여 글을 쓰거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글로 써서 올리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상의 글쓰기는 글을 통해 정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적절한 내용도 무차별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도 같다.

1) 윗글을 원서접수 시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시오. (70점)

2) 윗글의 요지를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언어로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0점)

3) 밑줄 친 부분에서 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언어로 서술하시오. (20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100단어±10, 중국어: 200자±20, 일본어: 400자±40)